



이라크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작성



KOTRA COUNTRY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이라크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작성

KOTRA COUNTRY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차

I. 국가 일반	2
1. 국가 개요	2
2. 정치·사회동향	3
3. 한국과의 주요 이슈	8
II. 경제	12
1. 경제지표 DB	12
2. 경제동향 및 전망	12
3. 주요 산업동향	16
4.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20
III. 무역	22
1. 수출입동향	22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3
3. 수입규제제도	25
4. 대한 수입규제동향	27
5. 관세제도	28
6. 주요 인증제도	29
7. 지식재산권	31
8. 통관절차 및 운송	31
9. 수출유망품목	37
10. 시장 특성	38
11. 바이어 발굴	41
12.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42
13.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44
14. 수출 성공·실패사례	46
15. 수출 시 애로사항	47
IV. 투자	49
1. 투자환경	49
2. 투자 인센티브제도	53
3. 외국인 투자동향	54
4. 한국기업 투자동향	56
5. 한국기업 진출 현황	58
6. 주요 투자법 내용	59
7. 투자방식	60
8. 진출형태별 절차	62
9.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64
10. 투자입지여건	67

11.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69
12. 노무관리제도	70
13. 조세제도.....	73
14. 금융제도.....	74
15.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76
V. 비즈니스 참고정보	77
1. 물가정보.....	77
2. 비즈니스 에티켓.....	78
3. 이주정착 가이드.....	80
4. 생활여건.....	80
5. 취향정보.....	84
6. 출입국 및 비자제도	85
7. 관광, 호텔, 식당, 통역	90
8. 출장시 유의 및 참고사항	92
9. 유관기관 웹사이트.....	93
10. KOTRA 무역관 안내.....	95



자료원 : CIA

I. 국가 일반

1. 국가 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이라크 공화국(Republic of Iraq)
위치	중동지역 중북부
면적	44만 1, 839km ² (한반도의 2배)
기후	건조한 사막성 기후, 연간 강수량 170mm, 7~8월 최고기온 50도 이상, 1월 4~16도
수도	바그다드(Baghdad)
인구	3,720만 명(2016년, World Bank)
주요 주 및 인구	Baghdad(726만 명), Nineveh(335만 명), Basra(260만 명), Babel(186만 명), Dhi Qar(188만 명), Anbar(160만 명), Najaf(132만 명), Diyala(148만 명) 등
민족	아랍계 82%, 쿠르드계 13%, 기타 5%(페르시아, 투르크만, 아시리아, 아르메니아 등)
언어	아랍어(공용어), 쿠르드어(쿠르디스탄 지역에 한해 사용)
종교	이슬람교(97%: 시아파 60%, 아랍계 수니파 20%, 쿠르드계 수니파 15%), 기독교 등 3%
건국(독립)일	1932년 10월 3일(영국의 위임통치 종료)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실권자)	대통령(국가수반): Fouad Masum(취임일 2014년 7월) 총리(정부수반): Haider Al Abadi(취임일 2014년 9월)

자료원: EIU, BMI, Trading Economics, World bank

나. 경제지표

명목GDP	1,715억 달러(2016년, World Bank)
실질경제성장률	10.2%(2016년, World Bank 추정치)
1인당 GDP	4,610달러(2016년, World Bank)
실업률	16.0%(2016년, ILO)
소비자물가상승률	0.4%(2016년, EIU)
화폐단위	Iraqi Dinar(IQD)
환율	US\$ 1 = IQD 1,182(2016년)
외채	642억 달러(2016년, EIU 추정치)
외환보유고	454억 달러(2016년, IMF)
산업구조	광업(42.6%), 서비스업(18.7%), 금융, 보험, 부동산(13.1%), 농업(7.4%)(2011년)

교역규모	(수출) 477억 달러, (수입) 288억 달러, (무역흑자) 189억 달러(2016년, ITC)
교역품	수출: 원유, 대추야자, 양피, 양모 등 수입: 식품, 의약품, 기계류, 자동차, 가전제품, 기타 소비재 등

자료원: 이라크 기획부·통계청·중앙은행, EIU, BMI, Economy Watch, IMF, ILO, ITC

다. 한-이라크 관계

체결협정	무역 및 경제 기술 과학협정(1983년 3월) 항공운수협정(1985년 5월) 문화협정(1985년 9월) 외교공관 부지교환 협정(1987년 6월)
정부 간 협의기구	한국 이라크 공동위원회 한국 이라크 자원협력위원회 한국 이라크 경제협력포럼
교역품	우리나라 수출: 자동차, 정전 기기, 화학 기계, 원동기 및 펌프, 철강관 및 철강선 등 수입: 원유
투자 교류	- 석유공사가 쿠르드 지방정부와 바지안, 쿠시타파 등 8개 탐사광구(총 72억 배럴, 지분 감안시 31억 배럴) 에 대한 광권 계약 및 개발 진행 중 - 가스공사가 2009년 이라크 중앙정부가 발주한 11개 생산유전에 대한 국제입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주바이르 유전, 바드라 유전 서비스 계약 지분 참여 - 가스공사가 2011년 10월 이라크 중앙정부가 발주한 안바르주 아카스 가스전 개발 서비스 계약(단독 추진)
교민	북부 쿠르드 지역에 교민 포함 60여 명 주재 및 거주(2016년 말 기준) 중앙정부 관할지역에 우리 교민 1,000여 명 주재 및 거주(2016년 말 기준) 수도 바그다드에는 대사관, KOTRA, KOICA, 상사주재원 등 50여 명 주재

자료원: 이라크 기획부, 외교부

2. 정치·사회동향

가. 정치 역사

근대 이라크의 시작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위임통치로부터 시작한다. 1차대전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복잡한 이해 타산을 통해 그 전까지 오토만 터키의 3개주로 분리된 지역(바그다드, 바스라, 모술)과 3개로 나뉜 인종적·종교적 집단(시아, 수니, 쿠르드)을 이라크라는 나라로 만든 것이다. 충분한 국민통합의 과정을 내부적으로 거치지 않고 외부세력에 의해 만들어지다보니 이라크는 1932년 영국의 위임통치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상당히 복잡한 정치사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1차대전 중 메소포타미아(이라크)로 진주한 영국의 의도에 따라, 이라크는 당초에는 요르단과 같이 1차대전 중 오토만 터키에 아랍봉기를 일으킨 하심 왕가를 중심으로, 독립왕정국가로 출발했다. 그러나 범아랍주의 물결이 중동지

역에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1958년에는 쿠데타가 일어나 신생왕가가 축출당하고 공화정이 선포됐다. 그러나 공화정 초기에도, 군부세력, 세속 아랍민족주의 기치를 내건 바트당, 공산주의자 등에 의한 쿠데타 시도가 이어지면서 정치적 불안이 지속됐다.

정정이 불안한 가운데 1968년에는 아흐메드 하산 알 바크르가 주도한 세속민족주의 정당인 바트당이 이전 정권세력을 무너뜨리고 집권하면서 이라크 정치사에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졌다. 바트당 2인자 사담 후세인이 권좌에 오르는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사담 후세인은 1인자 아흐메드 알 바크르를 제치고 점차로 자신을 중심으로 권력을 결집, 1979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철권 독재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국정을 장악한 사담 후세인은 곧바로 1980년 이슬람 혁명으로 국력이 취약해진 이란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이란을 침공함으로써 과거 메소포타미아의 영화를 재현한다는 욕심이었지만, 인구가 몇 배 많은 이란의 역공세도 만만치 않아 전쟁은 고착상태에 이르렀다. 80년부터 88년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지속된 이 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이란과 이라크 양국 모두 국력이 쇠진해지는 결과를 맞았다.

우여곡절에 이란과의 전쟁을 종료한 사담 후세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1990년 쿠웨이트를 침공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를 방관할 것이라는 계산이었지만, 예상과 달리 미국이 크게 반발, 지상군 병력을 투입해 이라크군을 쿠웨이트로부터 구축한데 이어 사담 후세인 정권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말았다. 이로부터 이라크는 국제사회로부터 10년이 넘도록 혹독한 경제제재를 받았다. 한편, 2003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국제연합군을 구성, 이라크를 침공했다. 대량살상무기를 은닉하고 있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아랍권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라크 공화국군은 결국 패주하고 사담 후세인 정권도 끝내 와해됐다. 비교적 손쉽게 사담을 축출한 미국은 이를 계기로 연합국 임시 행정처(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CPA)를 설치하고 이라크 재건을 추진했다. 그러나 CPA는 점령 초기의 실책(바트당원 숙청, 공화국군 해체, 아부 그라입 스캔들), 수니파 과격무장단체(알카에다)의 무장봉기, 이란의 사주를 받은 시아파 민병들의 저항, 수니-시아 종파 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격화됐다.

CPA는 이라크 정부에 권력을 이양하기 위해 헌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2004년 7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임시정부(interim government)를 설치하고, 2005년 1월 선거를 통해 제헌임시국회를 구성했다. 이 선거결과에 의거해 2005년 5월 과도정부(transitional government)가 구성돼 임시정부를 계승했다. 2005년 10월 이라크 헌법의 인준 이후 같은 해 12월 이라크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첫 의원선거가 개최됐다. 이 선거 결과에 의해 2006년 5월, 시아파 정치인 누리 알 말리키가 이끄는 첫 번째 정통정부가 구성됐다. 말리키 정부는 종파간의 폭력갈등, 미군 및 국제연합군의 공격행위가 극에 달하던 시기에 정부를 이어받아 바스라를 장악하고 있던 시아파 민병대(묵타다 앗사드르의 마흐디 군대)를 축출하면서, 이라크 국민에 무조건적으로 시아편만을 드는 사람은 아니라는 인식을 심었다. 또한 2008년에는 2011년 철수를 골자로 하는 미군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 미군의 존재를 백안시하던 이라크 제정파의 환심을 얻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 1월 총선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한 말리키 수상은 권력기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수니와 쿠르드계를 소외시키는 것은 물론 같은 시아파 내부에서도 적을 만들었다. 때문에 4년 뒤인 2014년 4월 총선에서는 시아파 내부에서도 말리키의 세 번째 총리연임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정부 구성에 상당한 난항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시아파 내부에서 추대된 하이다르 알 아바디 총리가 취임하면서 정부구성은 마무리됐지만, 이라크 정부는 민족/종파 간 화합, ISIL반군 퇴치, 경제구조 개혁 등 쉽지 않은 과업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사담 후세인의 치하에서 억압 받던 다수(인구의 60%

이상) 시아파가 정치 전면에 등장하고, 소수파이자 사담 후세인 당시 우월적 지위에 있던 수니파, 그리고 독립 열망이 강한 쿠르드 등 이라크를 구성하는 3개 민족·종파 간의 갈등 문제는 민주적인 정치체제 안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2003년 이후 수니파의 봉기에 따른 종파 갈등의 양상이 이라크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바 있으며, 2014년의 ISIL 반군 역시 이 같은 종파 갈등의 양상을 최대한 이용해 수니·시아 간의 반목을 부추키는 형국이다.

2017년 7월 10일 ISIL 반군 최대 거점지역인 모술을 탈환하고 이라크 총리가 대ISIL 전쟁 승리를 선언하는 등 이라크 내 축출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이라크 민주주의 체제 정착의 성패는 이들 3개 민족·종파가 어떻게 화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와 같은 민족·종파 간의 갈등에도 이라크의 정치체제는 정치시스템이 왕정과 독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선진적이다. 다만 민주주의 경험이 일천해 이와 같은 선진적 정치체제 운영은 아직 크게 미흡하다.

나. 국가조직 구성 및 제도

이라크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리돼 있다. 중요한 국가적 요직을 3개 민족·종파가 분점, 총리는 시아파, 대통령은 쿠르드계, 국회의장은 수니파가 맡도록 안배돼 있다. 국가수반인 대통령직은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긴 하지만 권한은 제한적이다. 행정에 대한 실권은 총선 다수당에서 배출한 총리가 내각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기 때문에 내각책임제 형태의 정치구조라 할 수 있다. 지방 조직은 전국에 바그다드를 포함 18개 주가 있으며 이들 주지사는 지방자치제에 따라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주 의원들이 간선제에 의해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의 지방자치제는 주정부의 별도 예산이 없어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 주요 인사

- 대통령: Fouad Masum(쿠르드, PUK)
- 총리: Haider Al Abadi(시아, Dawa)
- 국회의장: Salem Al Jouburi(수니, Mutahidoun)
- 각 부처 장관(2017년 7월 현재)
 - 기획부: Salman al-Jumaili(수니, Mutahidoun)
 - 내무부: Qasim al-Araji(시아, SoL/Badr)
 - 외교부: Ibrahim al-Jaafari(National Reform Trend)
 - 국방부: Erfan al-Hiyali(수니, Mutahidoun)
 - 석유부: Jabar Ali Al Luaibi(무정파 기술관료)
 - 재무부: 공석
 - 전력부: Ali Ala Dashar(무정파 기술관료)
 - 산업광물: 공석
 - 무역부: 공석
 - 농업수자원부: Falah Zaidan(수니, Mutahidoun))
 - 주택건설부: An Awsi(무정파 기술관료)
 - 노동부: Waffa al-Mahdavi(무정파 기술관료)
 - 이민부: Darhaz Mohamad(쿠르드, Gorran)
 - 교육부: Mohammed Iqbal Omar(수니, Mutahidoun)

- 통신부: Kazem Rashed(시아, Sol/Badr)
 - 교통부: Kazim Hamami(무정파 기술관료)
 - 보건부: Alaa Ghani Hussein(무정파 기술관료)
 - 고등교육부: Abdulrazaq Abduljalil(무정파 기술관료)
 - 법무부: Haider al-Zamili(시아, Fadhila)
 - 지자제공공사업무: Abdul-Karim Ayalan(시아, Sol/Badr)
- * 2016년부터 알 아바디 총리가 기술관료 중심의 개각을 진행 중이나 일부 장관은 국회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상태

라. 외교관계

이라크는 2003년 전쟁 이후 주변 아랍국가와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정식 주권 정부 출범 이후까지 친미, 친이란 외교노선을 지속해왔다. 미군은 2010년 8월 전투병력의 철수와 함께 이라크 전쟁 종료를 선언했으며, 2011년 말 모든 미군병력이 완전히 이라크에서 철수했다. 미군의 완전 철수와 함께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미국과 이라크는 아직도 긴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란은 이라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에서 지원한 정파인 이라크 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of Iraq)가 지난 총선거에서 저조했지만, 이라크의 주요 정치가들은 특히 시아파 계열을 중심으로 아직도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니계 이라크인들을 중심으로 이란의 시아파 민병대 지원 등 이라크 내 영향력 확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과 이란 이외에 주변 아랍국가들과의 관계는 반드시 순탄한 것은 아닌데, 그것은 이들 (수니) 아랍 국가들이 시아파 주도 이라크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과거 이란-이라크 전 당시의 채무탕감 문제, 쿠웨이트 침공에 따른 전후 처리 등의 문제로 인해 이들 국가와의 관계에는 아직도 냉랭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 다행히도 2012년 3월 27~29일 바그다드에서 개최된 아랍리그 정상회담을 계기로 1990년 단절됐던 외교관계를 이라크와 사우디는 상호 대사관을 개설하기로 합의하면서 정상화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이라크 바그다드에 주이라크 사우디 대사관을 재개설했다. 그러나, 여전히 시아파를 중심으로 한 이라크 국민들은 사우디가 ISIL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쿠웨이트와의 외교관계는 2012년 3월 제바리 이라크 외교장관이 210억 달러의 쿠웨이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발표하고, 말리키 총리가 쿠웨이트 방문계획을 밝히면서 다시 호전되고 있다. 쿠웨이트도 이후 쿠웨이트 국내 또는 제3국에 도착한 이라크 국영항공기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양국은 장기적인 관계 개선 기반을 마련했다.

터키와의 관계는 앞으로도 신중한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2016년 10월 이라크 북부 ISIL세력의 최종 거점인 모술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터키 군 이라크 내 주둔 상황과 터키군의 작전 참여의사에 대해서 이라크 아바디 총리와 터키 에르도 간 대통령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양측 간 긴장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라크가 터키의 주요 수출시장인 만큼 터키로서는 이라크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해치면서 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최신 정보

정치동향

2014년 6월 11일 이라크 수니파 반군세력(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Levant)이 이라크 북부 지역에 위치한 모술을 점령한 이후 세력을 확대했다. 한 때 풍전등화와 같은 이라크는 2014년 8월 알 아바디 총리를 위시한 신정부가 구성되면서, 국제사회 원조를 바탕으로 ISIL 반군에 대응하기 시작, 2015년 3월 이라크 북부 티크릿을 회복하고 2015년 말에는 같은 해 ISIL 반군의 기습으로 빼앗겼던 라마디를 되찾는 등 느리지만 차츰 ISIL로부터 전장의 주도권을 가져왔다. 2016년 들어서는 본격적인 이라크 정부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반격으로 6월 26일 팔루자가 전면 탈환됐고, 2016년 말 모술 탈환을 위해 대ISIL 전투가 시작됐으며, 2017년 7월 10일 마침내 모술을 탈환했고 아바디 총리가 모술에 직접 방문해 대IS전쟁의 승리를 선언했다.

문제점은 이라크 내부 정정의 불안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3개 종파 또는 민족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통합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시아파 정파 간의 내분도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알 아바디 총리는 ISIL 반군 대응, 국제저유가 추세로 인한 재정위기 속에서 내부 결속을 위해 2016년 3월 정치인을 배제한 기술관료 중심의 개각을 추진했으나, 이라크 제정파의 반대에 부딪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016년 4월 이라크 국회의 일부 의원들은 개각 시도에 대해서 알 주부리 국회의장은 물론 알 아바디 총리까지 축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에 대해서 알 아바디 총리의 개각을 지지하는 묵타다 알 사드르가 대규모 군중시위를 조직해서 이라크 제정파에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다. 묵타다 알 사드르가 조직한 시위대는 2016년 5월 중 한 때 일반 대중에게는 접근이 차단된 그린존 지역 내에 있는 국회의사당까지 진출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난동을 일으켰고, 여전히 일부 부처 장관자리는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에서도 바르자니 대통령이 임기 종료 이후에도 지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등 독자적인 정치위기가 진행 중으로, 바르자니 대통령은 2017년 9월 쿠르디스탄 독립 관련 국민투표 실시를 추진하고 있어 이라크 내 또다른 정치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상황이다. 아바디 총리는 대내적 단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정치세력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사회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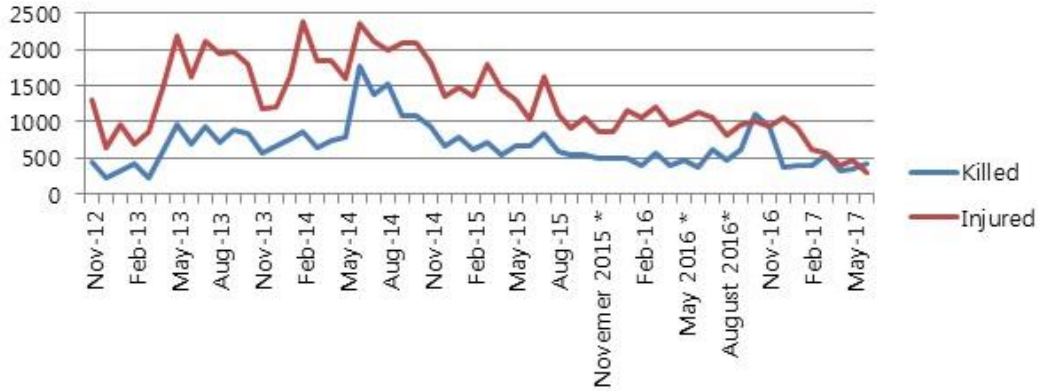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수니 중심의 이라크 군이 해체되면서, 사회기강이 상당히 약화되고 치안 역시 악화일로를 겪었다. 특히 사담 후세인 치하에서 정치적 표현이 억눌려왔던 시아파와 쿠르드족의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바트당 출신인사들의 정치진출을 막은 탈바트화(de-Baathification)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수니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면서 민족·종파 간의 반목이 심해졌다.

특히 1대 총리인 알 말리키 정부의 일부 정책들로 인해 수니파의 고립감이 심해지고, 쿠르드족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나타난 분열상은 2013년 말 이후 ISIL 반군사태로 직결되기에 이르러 한동안 잠잠해지던 사회불안이 증폭됐다. 이라크 사회의 이 같은 분열상을 노린 ISIL 반군은 지속적으로 바그다드 내 시아 밀집지역을 테러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등 시아·수니 간의 갈등을 증폭함으로써 이라크를 다시금 종파간 갈등과 교전 상태로 끌고가려는 양상이다. 한편, 2015년 이후 이라크 정부의 적극적인 공세로 인

해서 폭력과 테러로 인한 사상자 수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2015년 여름부터 식수난,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이라크 전국에서 군중시위가 발생하고 정치불안정으로 인한 이라크의 사회적 불안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2012년 말부터 2017년 6월까지 테러로 인한 사상자 수

(단위: 명)



주: 표시된 월은 안바르주 사상자 제외
 자료원: UN Iraq

3. 한국과의 주요 이슈

가. 개관

정무·문화

우리 정부는 2004년 김선일 사건 이후 신변안전을 위해 한국인의 대이라크 입국을 엄격히 규제해 원칙적으로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그 결과 이는 우리 기업의 이라크 내 주요 프로젝트 진출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여타 경쟁국들은 오일분야, 건설 등 다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자국민의 이라크 입국과 관련, 전면 금지가 아닌 여행 위험지역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2006년 8월 이후부터 요르단 주재 지상사의 쿠르드지역 단기 방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고 2007년 2월 이후부터는 여권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해 일정기간 내의 복수 입국 허용 및 동일 사안 추가입국 허용 등을 진출 허용 시 명시해 기업 진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어 입국 제한을 다소 완화했다. 2014년부터 ISIS반군의 이라크 서북부 점령으로 인해 이라크 내 정정 및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우리 정부는 여행허가(제한적 여권사용 허가) 발급을 보다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2017년 상반기 ISIS반군 사태의 안정화 진행에 따라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여행허가 발급을 개시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우리 기업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경제협력

1983년 체결한 한-이 무역 경제기술과학협력협정에서 양국간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984년 1차 한-이라크 공동위가 바그다드에서 개최됐고, 1985년 2차 공동위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제 3차 공동위는 1987년 바그다드에서 개최됐고, 제4차 공동위는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됐다. 4차 공동위 이후 걸프전, 이라크 전쟁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장기간 공동위 개최는 중단됐다가 2006년 이라크 측에서 재개를 요청했고, 우리 측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수석대표직을 맡기로 함으로써 한-이라크 공동위가 다시 개최되는 계기가 됐다. 2007년 2월 제 5차 한-이라크 공동위가 서울에서 개최되고, 우리 측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이라크 측에서는 무역부장관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다시 3여 년 기간이 지난 2010년 12월에 서울에서 제 6차 한-이라크 공동 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우리 측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이라크 측에서는 건설주택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이어서 2011년 4월 말리키 이라크 총리의 방한으로 한국과 이라크 상호 간 경제협력 강화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제7차한-이라크 공동 위원회가 2012년 3월 12~13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제7차 한-이라크 공동 위원회에서는 건설, 경제, 에너지 자원, 보건 환경 과학기술, 국제노동 통계 문화 등 5개 분야에서 총 30개의 의제를 대상으로 양측이 협의를 했으며, 합의서를 공동 채택했다. 7차 공동위원회에서는 이라크 측이 플랜트, 주택, 인프라 재건사업에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장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이에 이라크 정부는 프로젝트 정보 제공, 안전 보장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2017년 7월 ISIL의 이라크 내 마지막 거점인 모술이 탈환되면서 본격적으로 양국 간 협력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의 주요 인사교류 현황

2013년 1월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National Investment Committee) 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위원장은 한국과 이라크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위한 협의를 촉구하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 회의에서는 향후 양국 투자환경 조성 및 협정에 관한 사항이 발제됐고, 이라크 투자위원회 위원장의 정기적 방문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라크의 재건투자 총괄기관인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를 대상으로 2013년 4월 이라크에서 개최된 한-이라크 비즈니스 포럼에서 MOU를 체결했으며, 체결 후 전략적 파트너로서 양국 간 투자진출 활성화 및 기업활동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핵심 사안으로 다룬다. 아울러 본 포럼에 참석한 한국 기업과 이라크 주요 정부 인사 및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지에서의 투자 개발 전략 및 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2013년 10월 한국 산업통상부, KOTRA,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에서 공동 개최하는 한-이라크 Rebuilding Project Plaza에서는 샤리스타니 부총리를 대표로 한 각 주요부처 유망 프로젝트 담당 인사들을 사절단으로 초청했다. 동 플라자에서는 사절단 인사들의 미래 프로젝트 계획 및 한국 기업 진출 전략에 대한 발표에 이어 한국측 주요 기업들과 이들 사절단과의 개별 면담이 진행됐다.

2017년 3월 ISIS 반군 사태로 인해 연기됐던 한국 국토부 장관 및 이라크 주택건설부 장관 수석의 제 8차 공동위가 바그다드에서 개최돼 양국간의 경제, 문화, 개발 등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의 초석을 마련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나. 최신 동향

무역·통상

이라크 직수출에 대한 국내 보험 미부보, 공사 계약분에 대한 보험 미부보, 대이라크 자본재 수출에 대한 보험 미적용 등으로 국내 수출업체들의 수출여건은 불리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 이라크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9월, 한화의 대규모 비스마야 주택단지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8억불 상당의 P본드와 AP본드는 국내은행(수출입은행 등) 등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발행됐다. 더욱이 이라크 국내에서는 운송 보험이 커버되지 않고 있어 현지 도착도 CIF 기준 수출 시 국내 수출업체들은 이라크 국내 운송에 따른 도난 위험에 따른 추가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라크 석유부는 2008년 4월 향후 이라크 유전개발에 참가할 기업 35개사를 선정하면서 북부 쿠르드 지방정부와 유전 개발 계약을 한 일부 한국기업은 배제했다. 배제 사유는 이라크 중앙정부에서 이라크 내 모든 원유 및 가스전 개발사업을 국유화하고 있으나, 쿠르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외국기업에 쿠르드 지역에 있는 유전 개발사업의 지분권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쿠르드 유전개발 참여기업 중 일부는 2012년 지분 정리를 통해 이라크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유전개발 4차 입찰부터 사전 참가자격을 받게 됐지만, 아직도 중앙정부 발주 유전개발 참여가 불가능한 기업도 있다.

2011년 10월에는 한국가스공사가 2010년 10월 낙찰 받은 아카스 가스전 개발사업에 대한 서비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쿠르드 지역의 유전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라크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가스전 개발사업에 참가할 수 있었으며, 단독 운영사로 참여하는 최초의 이라크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만, 2014년부터 본격화된 ISIS 반군 사태 등으로 인해 현재 동 가스전에 대한 투자는 중단된 상황이다.

이라크 정부에서 발주하는 구매입찰 건 중 일부는 제품 공급 대상 국가를 미국, 서유럽, 일본 등에 국한시키는 사례가 있다. 이라크 정부는 관행적으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일부 기자재에 대해 구매권 국가 및 일본 등 선진국가 계열 기업만을 주 조달처로 지목했고, 아직도 다수 부처에서 그대로 답습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가 격상되고, 시장에서의 한국산 제품의 시장성이 성장함에 따라 일부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발주처에서는 한국기업의 참여에 매우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력부, 보건부 및 고등교육과학기술부와 같은 중앙부처뿐 아니라 바그다드 주정부와 같은 지방정부에서도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정무·문화

2007년 8월 이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들 납치사건의 여파로 위험지역 여행에 대한 신변 위협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라크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고 이라크에 대한 한국인의 입국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 연장돼 사안별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부여한 점을 제외하면 종전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경제협력

2016년 6월 기준 한-이라크 양국 간 체결된 경제협정은 아직은 전무하나 조세, 투자보호 등 협정 타당성이 검토되고 있다.

II. 경제

1. 경제지표 DB

경제지표DB

구분	지표(단위)	2013	2014	2015	2016
대내경제	GDP(경상가격, US\$ 백만)	234,648	228,731	180,069	*184,178
	GDP(경상가격, ID 십억)	274	267	210	*218
	실질경제성장률(%)	6.6	0.1	3.0	*8.9
	1인당 GDP(PPP기준, US\$)	15,500	15,267	15,395	*16,337
	이자율(연평균)	6.0	6.0	6.0	4.0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2	-2.3	0.4
대외경제	수출(FOB기준, US\$ 백만)	89,768	83,981	43,442	*44,109
	수입(FOB기준, US\$ 백만)	-50,447	-45,200	-33,188	*-32,856
	무역수지(US\$ 백만)	39,321	38,781	10,253	*11,252
	무역의존도(%)	76	78	76	72
	대외부채(US\$ 백만)	*59,842	*58,111	*59,950	*64,161
	외환보유고(US\$ 백만)	77,743	66,349	54,058	45,362
	해외투자액(US\$ 백만)	227	242	**	**
	투자유치액(FDI, US\$ 백만)	5,131	4,782	**	**
	환율(연말) ID: US\$	1,166	1,166	1,182	1,182

주: 1) *는 추정치, 2) **는 자료 없음, 3) 수출 및 수입은 서비스무역 미포함

자료원: EIU, UNCTAD - 해외투자액, 투자유치액(Flow), World Bank - 무역의존도(2017년 7월 확인 가능 최신자료)

2.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정책 동향

이라크는 2003년 미국의 침공 이후 사회 인프라가 철저히 붕괴되면서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전력, 상하수도, 의료, 주택 등 인프라 및 경제개발정책에 초점을 맞춰왔다. 특히 전력의 경우 공급이 아직도 수요에 크게 모자라 일반국민의 생활의 질은 물론, 안정적 경제개발 등에도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라크 기획부는 보다 체계적인 경제개발을 위해서 2008년부터 5개년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을 작성하고 있는데, '2010~2014년 국가개발계획'의 경우, 이라크 경제발전을 위해 총 1,86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이 중 1,000억 달러는 정부재정, 860억 달러는 민간투자).

이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가 내세운 경제개발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

- 2010~2014년 중 연평균 9.8% 성장
- 해당 기간 중 300만에서 450만 개의 일자리 창출
-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관광, 농업 부문 개발을 통한 산업다변화
-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 민간부문 강화
- 경쟁 원리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 빈곤율 30% 이하로 절감
- 이라크 전 국토에 걸친 인프라 개발 및 공공서비스의 균등 발전
-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기반 마련
- 경제 발전에 있어서 지자체 역할 강화

이라크 정부(기획부)는 2013년 중 '2013~2017 국가개발계획'을 발표해, 이전 개발계획이 적실성을 재 검토하고 개발목표를 수정한 바 있는데, 위의 정책목표는 커다랗게 바뀌지 않았다.

한편 이라크는 미국침공 이전까지 바트당 이념에 의거해 중앙계획식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운용해 온 바, 앞에서 언급한 경제개발정책의 틀 안에서 이를 어떻게 민간위주의 경제체제로 이행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이다. 2003년 이후 들어선 연합국 임시행정처(CPA)는 외국인투자유치와 민영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인세율을 45%에서 15%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경제 이외 치안, 국방 등 선결당면과제에 부딪히면서 제대로 된 자유화를 완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 CPA가 추진했던 정책을 이어 받아 후속 이라크 정부 역시 실업 등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을 인정, 2006년 투자법(Investment Law)을 제정,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치 및 사회 여건상 외국인투자가 확대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석유 등의 핵심자원개발 위주로 외국인투자가 지속되고는 있다.

석유는 이라크 국부의 핵심자원으로 사회인프라 재건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긴요한 재정원이 돼 왔다. 이라크 정부는 전력 등 사회핵심 기반시설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오일머니를 활용해왔고, 불안한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플랜트업체들이 이라크에 진출해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석유와 관련해서도 외국기업들의 투자 등을 고려한 석유법(Oil Law)이 의회에서 논의만 됐고 아직 통과를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역시 완전하고 안정적인 법적 체제를 갖췄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2014년 ISIL 사태와 더불어 국제적으로 저유가 상태가 지속되면서 이라크 정부 역시 석유자원 이외 민간부문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석유 판매고가 이라크 재정의 95% 가량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유가의 하락은 이라크 재정적자를 불러와, 이라크 정부가 이를 대체할 만한 세원을 찾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라크 정부는 그동안 계속 미뤄져 왔던 국영기업의 복구와 민영화 추진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대ISIL 전쟁으로 인한 지출 증가 저유가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로 재정적자 문제가 심화돼 2016년 7월 7일 IMF로부터 향후 3년간 약 53억 4,000만 달러의 단기유동성 자금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대기성차관약정(SBA, Stand-By Arrangement)을 체결했다. SBA에는 이라크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 세입원 확대를 포함한 경제 및 행정개혁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말 이라크 정부는 IMF와의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공무원(Ghost Staff)의 급여 감축 등 재정지출을 축소하고자 노력 중이다. 그리고, 수입관세, 전기세, 신규조세 도입 추진 등 세입원 확대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또한, 재정난으로 인한 중단된 사회인프라 프로젝트와 새로운 재건복구 프로젝트 개시를 위해 이라크 정부는 미국 등의 국가보증을 담보로 하는 채권발행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나. 경제 전망

경제 성장

EIU에 따르면, 이라크 경제는 향후 수년간 원유 생산량의 지속적 증가를 바탕으로 2012~2016년 기간 중 연평균 8.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으로 상당한 고성장이 예견된 바 있다. 이 같은 예상의 기저에는 대형 유전개발이 본격 진행되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들어있다. 그러나 ISIL 반군이 여전히 이라크에서 축출되지 않고 있는데다, 국제적으로도 저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라크 경제의 전망은 아직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은 수출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유의 생산 증가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4년 하반기 이후 국제적인 유가하락/ISIL 대응으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에 의해 수출을 통한 경제개발 재원확보에 심각한 장애에 직면해 있다. 2017년에는 글로벌 유가 회복 전망과 ISIL사태 안정화에 따라 이라크 경기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ISIL 전투 진행상황에 따라 전년에 이어 여전히 기대치보다는 낮은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EIU의 2017년 7월 국가보고서(Country Report)에서 이라크 경제는 2014년 0.1%로 정체했고, 2015년 3.0% 가량의 소폭성장을 기록한 후 2016년 석유 생산량 증대 및 수출 확대에 8.9%로 경제 성장을 이뤘으나, 2017년 OPEC 석유감산 합의에 따른 영향으로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라크의 경제 성장 전망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e	2017f
경제성장률	6.6	0.1	3.0	8.9	0.7

주: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를 의미
 자료원: EIU(2017년 7월 발간자료)

물가

이라크 중앙은행이 실시한 이라크 디나르화의 평가 절상조치와 기초 생필품의 수급이 개선됨에 따라 수입물가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가 안정되면서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1년 전 세계적인 자원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이라크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6%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나아가 2014년 중에 발발한 이라크 ISIL 사태로 인해 터키, 시리아, 요르단 국경이 봉쇄되면서 물류 애로가 발생한데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일반 민간의 사재기 현상 등이 나타나면서 바그다드 일원에서의 물가가 양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 예로 발전기용 연료의 경우, 2014년 7월 한 달 중 리터당 850이라크 디나르에서 1,000이라크 디나르로 폭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공급애로에 기인한 것으로 과거와 같은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시대로 돌아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전반적 수요부족이 나타나면서 물가수준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환율

이라크 중앙은행은 이라크 디나르화의 달러 대비 환율을 2009년 1월부터 1,170이라크 디나르로 고정시켜 오면서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었다. 유가가 한참 높던 시기에는 달러당 1,165이라크

디나르까지 환율이 내려갔으나, 최근 저유가에 따른 외환보유고 감소를 반영 2015년 말부터 공식 환율은 달러당 1,181이라크 디나르까지 올라갔다. 향후 국제유가가 약세를 지속할 경우 이라크 디나르화의 가치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한편 상기 공식환율과 달리 민간 환전소에서는 디나르화가 더 저렴하게 거래되는데 2016년 중 달러당 1,230이라크 디나르에서 1,290이라크 디나르로 점진적인 상승 추세가 나타났다. 이 역시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저유가 추세를 유지한다면 향후 더 시장환율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대외 부문

이라크의 수출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98~99%로 이라크 정부의 경상수지는 원유 수출규모와 그 대로 연동돼 있다. 2010년 국제원유가 강세로 원유 수출액은 크게 늘어났으며, 2011년에도 원유가 강세 및 생산량 증가로 원유 판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1년 국제상품가격 상승, 소비재 및 자본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상품 수입규모도 크게 늘어났지만 이라크의 경상수지는 2012년 29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4년 말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저유가 경향으로 인해 이라크의 대외무역 흑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6년부터는 유가의 상대적인 안정화와 석유 수출의 확대로 무역흑자 규모가 다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용

이라크는 고용 및 실업에 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없고 기관별로 다양한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다. IMF에서는 2005년 이라크의 실업률을 18.5%로 추정하는 바 있고, BMI에서는 2010년 이라크의 실업률을 18.0%로 추정하고 있는데, 모두 신뢰할만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 2016년 12월 확인 가능 최신 정보인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에서 발표한 연평균 실업률은 2014년 기준 16.4%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라크 정부 내부에서는 실질 실업률이 30~5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 창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라크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군수품 국내 조달이 있는데, 군복, 방탄헬멧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군수품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에 조립공장을 건설해서 국내에서 물품을 조달하기로 했다.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하던 수입관세도 2011년 차등관세를 도입키로 결정한 후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6년 1월 1일부로 전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각 항구 및 세관원마다 관세적용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한 컨테이너에 1,500~2,000달러의 관세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세 인상 조치도 국내 산업 보호를 통한 산업 육성이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 국내에 자동차조립공장 설립, 철강 및 석유화학공장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국내자금 조달이 어렵고, 정치 리스크가 높아 외국기업들이 이라크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데다가, 제조업 가동에 필수적인 전기의 공급 부족 등 기간산업 육성을 위한 이라크 정부의 추진계획은 성과를 보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013년 두바이 회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 장려를 위한 여러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실제적으로 외국인 비자 문제를 개선하는 중이다. 특히, 재건사업의 필수인 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원유 수출 재정을 기반으로 한 기존 정제 공장, 파이프라인 개선 및 새로운 정제 공장 건설 등 관련 프로젝트 발주를 계속하고 있다.

3. 주요 산업동향

가. 개요

이라크는 걸프전 이전까지 나름대로 제조업이 육성됐으나 걸프전 이후 UN 경제제재 체제 하에 산업부문역시 제재를 받아 제조업이 급격히 위축됐고,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기존 산업마저 파괴돼 석유산업 및 농업을 제외한 여타산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라크의 제조업 발전단계를 살펴보면, 1970년대 중반까지는 수입대체 산업 육성 시기였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는 중공업화, 비석유화 정책시기였다. 이라크의 제조업은 석유 연관 산업을 의미할 정도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주요 제조업도 석유 탐사·채굴을 비롯해 정제, 천연가스, 유화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석유 산업은 주로 바스라 및 키르쿠크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그 밖에는 시멘트 산업이 대표적인 비석유산업이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중에 파괴된 전기, 도로 등 각종 인프라 시설의 복구는 이라크 정부의 자금부족, 치안 불안으로 인한 외국기업들의 투자 기피, 투명하지 못한 정책방향 등으로 큰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도후, 아르빌, 술레마니아 등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은 UN이 석유식량 프로그램(Oil for food program) 추진을 위해 이 지역에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을 지원함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민간 제조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육성되고 있다. 특히 쿠르드 지역은 자체 치안병력을 통한 안정적인 안여건 조성, 시장개방에 대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의지, 각종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활발한 투자 등으로 나머지 이라크 지역에 비해서 경제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나. 주재국 핵심산업 개요

1) 광물/에너지 - 석유산업

석유 매장량

이라크는 석유 확인 매장량만 약 1,440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라크는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캐나다, 이란에 이어 세계 5위의 석유매장 국가에 해당된다. 그러나 확인 매장량 이외에 잠재 매장량은 4,000억 배럴 규모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라크 매장량은 1990년 걸프전 이전에 조사된 것으로, 이후 본격적인 탐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탐사활동에 따라 확인 매장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라크의 대표적인 유전으로는 루마일라, 주베이르 등으로 바스라주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돼 있고, 새롭게 개발될 유전들 웨스트 쿠르나, 마즈눈 등 역시 남부에 위치해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이라크 전체 확인 매장량의 17% 가량이 키르쿠크, 모술, 카나킨 등의 북부지역에도 매장돼 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쿠르디스탄 지역에만 약 4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라크 유전의 채굴비용은 배럴당 0.6달러로 여타 중동지역의 평균 비용 1.5달러에 비해 생산단가가 절반 이하 수준이어서 경제성이 뛰어나다. 이라크 석유자원의 특징은 탄소 함량이 높고 황 함량은 낮아 고품질, 생산광구의 원유 저류층이 650m 이내에 위치해 생산단가가 낮은 장점을 갖고 있다. 이라크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에 있어서 이 같은 석유자원 개발은 종자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때문에 이라크 정부에서도 석유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이 핵심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3년 전쟁 이후 최초로 2009년에 두 차례 실시된 중앙정부 유전 입찰에서 10개 광구(약 700억 배럴)에 대한 입찰이 낙찰돼 2010년 1월 계약 체결이 완료됐다. 2009년 6월에 실시된 1차 입찰은 유전 6개와

가스전 2개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루마일라 유전을 제외한 7개가 유찰됐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1 위 응찰사와 협상을 지속해 주베이르, 웨스트 쿠르나 1 유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계약했다. 2009년 12 월에 실시된 2차 입찰은 10개 유전을 대상으로 실시해 마즈눈 등 7개 유전이 낙찰됐다.

외국사와 컨소시엄으로 참가한 우리나라의 가스공사도 주베이르 및 바드라 2개 유전 개발 서비스계약 에 일부 지분을 참여했다. 가스공사는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의 아카스 가스전 개발도 단독으로 낙찰 받 고, 2011년 10월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2012년 7월 진행된 4차 입찰에는 총 12여 개 광구를 개시했 으나 주류 해외 석유기업은 대부분 불참했고 쿠웨이트 석유공사 등 비주류 업계의 컨소시엄 3개만이 참가해 실패한 입찰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라크 석유공사는 향후 실시할 5차 입찰에 보다 개 선된 입찰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북부 쿠르드 지역에는 쿠르드 지방정부가 2007년 독자적 석유법을 제정, 석유개발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해 2009년 말까지 34개사 와 33개 광구 개발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중앙부처의 승인 없이 체결된 계약에 대해 불법임을 주장하며 쿠르드 유전개발 참여기업을 상대로 한 중앙정부 주도 유전 프로젝트 응찰 금지조 치를 시행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DNO사가 유전 개발에 참여해 석유 생산에 가담하고 있으며, 미국의 Hunt사, 오스트리아 의 OMV사 등의 외국기업들도 쿠르드 지방정부와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석유 공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쿠르드 정부와 2007년 11월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중앙정부 발주 프 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엑슨모빌사가 새로이 쿠르드 정부와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라크 중앙정 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2014년 들어 ISIL 반군사태에 즈음해 출범한 거국내각은 같은 해 11월 쿠르 드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서 일단 동 이슈를 덮어놓기는 했으나, 향후 쿠르디스탄 원유 생산이 더욱 증 가할 경우 갈등의 소지는 아직 남아있다.

이라크의 원유 생산량은 제2차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시설파괴 등으로 일일 130만 배럴 수준까지 떨 어졌으나 그 후 이라크 정부의 적극적인 시설복구 등으로 2013년 300만 배럴을 상회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는 전년대비 30만 배럴이 늘어난 340만 배럴을 기록했고, 2015년에는 일일 450만 배럴까지 생산능력을 확대했다. 한편, 2016년 12월 1일 이라크는 저유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OPEC 감산결정 에 참여해 20만 배럴 감산에 합의 일일 435만 배럴로 생산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라크 정부는 2020 년 해당 생산규모를 일일 900만 배럴까지 늘인다는 복안이지만, 석유수출 인프라 애로 현상, 각종 관 료주의적 관행, 석유투자 관련 법령 미비 등으로 인해, 장애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2014년부터는 ISIL 반군이 이라크 북서부를 장악함에 따라 다수의 유전이 가동중지 상황에 이르게 되는 등 애로에 직 면하게 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정부는 외화가득원 확대를 위해서라도 석유 개 발 및 생산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도별 이라크 석유 생산 및 수출실적

(단위: 일산 천 배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생산	2,652	2,942	2,978	3,110	3,504
수출	2,166	2,423	2,390	2,516	3,005

주1: 2016년 12월 확인 가능 최신 정보

주2: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EIA)와 비교 다소 낮은 수치임.

자료원: OPEC

이라크 정부는 석유법 제정을 통해 외국 자본을 유치해 생산 설비의 증설과 개선을 도모하려 하고 있으나, 석유법의 제정 지연, 치안불안에 따른 외국석유기업의 투자 기피 등으로 당분간 석유생산의 큰 폭 증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새로운 석유법은 2007년 5월 제정 시한을 넘기고 7월 법안을 일부 수정해 국회에 제출된 후 수 차례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유전 관리권한을 둘러싼 쿠르드 지방정부의 반발, 정파간 첨예한 이해 대립, 석유자원에 대한 민족주의적 입장 등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2016년에 이르는 지금까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2) 광물/에너지 - 가스

이라크의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3조 1,700억 m³에 달하며, 전 세계 가스매장량의 1.7%, 순위 면에서는 11위이다. 천연가스의 70%는 유전과 연결돼 있어 원유 생산 증대에 따라 가스 생산이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스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고, 원유 추출 및 정제 시 발생하는 수반가스를 소각처리 하는 등 사실상 원유 생산량 증대에 따른 가스 생산 가능성에 비해 실질적인 증대는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전기 공급 확대를 위해 발전용 가스 터빈(Gas Turbine)을 이라크 전역에 대대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점진 증가 추세에 있는 가스 사용량에 대비해 가스전 개발 및 가스채집 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는 안바르주 내 아카스 가스전이 이라크 최초의 가스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3) 농림수산물 - 농업(Agriculture)

농업은 이라크에서 비석유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으로 주요 전쟁발발 이전인 30년 전까지는 국내 생산만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했었다. 강우량이 충분한 북부 평야지대 및 산간계곡과 유프라테스강 및 티그리스강 유역의 비옥한 농토에서는 밀, 보리, 쌀, 면화, 대추야자 등이 대량으로 생산됐으며 한때 세계 최대 대추야자 생산국이기도 했다. 이라크는 지역적으로 농사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종자 개량, 비료 투입 등을 통해 농작물 산출량을 과거 이상으로 증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국토면적 중 약 27%인 800만 헥타르가 경작가능 면적이며, 미 농무부 추산에 의하면 이들 경작가능 면적 중 절반 정도인 400만~500만 헥타르만 농지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걸프전 및 이라크 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과 잦은 내전 등으로 인해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생산력을 감퇴했다. 이처럼 농지 이용률이 저조한 까닭은 농기계 부족, 관개수로 미비 및 낮은 수매 가격에 기인한다. 특히, 농산물 생산을 주도하는 대부분의 농공기업들은 국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후 경영부실, 종자개량 실패, 농업시설 관리 부족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연평균 2.6%씩 하락하고 있다. 특히, 관개수로 부실시공, 목축과잉 방목 제제 실패 등으로 인해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자급능력 부족은 UN의 석유식량 프로그램에 따른 농산물 가치하락으로 인한 생산의욕 감퇴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전후 농산물 자급률은 43%에 불과한 실정이며, 부족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UN의 석유식량 프로그램의 현금화 전환, 농산물 매매시장 활성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연간 50억 달러 상당의 예산을 대국민 기초식품 지급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다. 지급품목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며 쌀, 밀가루, 설탕, 식용유, 분유 등을 무상으로 배급한다. 2013년12월 확인 가능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한 해 무상배급을 위해 러시아 및 타이완으로부터 54억 톤 이상의 식자재가 수입됐다. 2013년 통계 기준 밀의 현지 총수요는 580만 톤, 현지생산은 190만 톤, 수입은 3,900 톤에 달하며 이중 미국으로부터 수입은 40만 톤 수준이다. 쌀의 경우 현지 수요는 140만 톤이나 현지

생산은 11만 톤에 불과 무려 130만 톤이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수입은 20만 톤 수준이다. 2013년 통계 기준 가금류는 현지 총수요는 45만 톤, 현지 생산은 16만 톤, 수입은 29만 톤에 달한다. 전체적으로 곡물과 가금류 수요의 60% 이상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다. 전체 산업구조 개요

전통적인 농업국가였던 이라크는 1927년 원유가 발견된 이후 석유산업이 수출총액의 99% 및 재정수입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가 산업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는 석유 산업을 바탕으로 1960년 10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창설회원국으로, OPEC 내에서 이란, 알제리와 함께 강경파로 활동하고 있다. 1973년 이라크석유회사(IPC: Iraq Petroleum Company)를 국유화했고, 제1차 석유험기에 따른 막대한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1978년 23%의 명목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1970년대에는 경이로운 성장세를 이룩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지속적 유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및 이란과의 8년에 걸치는 전쟁, 그리고 걸프전 및 이라크전 등으로 인해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져 왔다.

석유가 발견되기 이전 이라크는 전통적인 농경사회를 유지하고 있었다.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평야는 이라크 농업 경제의 근간이었다. 특히, 석유가 발견된 이후에도 정부는 석유 고갈을 고려해 경제개발계획에서도 관개공사, 배수, 홍수방지, 염해 방지 및 토지개량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농업을 중요시했다.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해 정부주도의 의욕적인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농지로 사용 가능한 경작지 개발 시 300만 명 분의 식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그 잠재력은 아직도 높게 평가된다.

이라크 경제를 주도하는 석유산업에 비해 기타 기초 산업 및 경·중공업은 아직도 유치한 단계에 머물고 있어 대부분의 생필품 및 산업용 원자재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풍부한 원유를 바탕으로 한 화학공업을 최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영석유회사(State Enterprise for Petrochemical Industries)가 이를 관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라크의 공업부문은 고분자화합물, 제지, 타이어, 고무, 철강업, 알루미늄, 전선, 농업기계, 자동차,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의 분야에 개발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투자환경 개선이 더더짐에 따라 수입에 의존하는 공급구조 개선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 수요의 급증에 따라 다수의 공공기관이 설립됐고 민간건설업자도 등장했지만 아직도 기술수준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이라크의 건설은 외국기업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ISIL 반군 사태로 인한 재정지출요인은 증가한 반면, 국제적 저유가 추세로 인해 재정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금까지 석유일변도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와 특히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국내제조업 개발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정책적 관심의 변화가 향후 어떠한 정책으로 발현하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석유 의존도 감축은 중동 여러나라들의 중요한 정책목표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라크에서도 ISIL사태가 정리되는 대로 외국인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활동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라크 GDP 산업별 비중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농업	9.2	7.5	7.3	8.1	7.4
광업	43.0	45.4	43.9	41.5	42.6
제조업	2.3	2.3	2.9	2.9	2.7
전력·수자원	1.2	1.4	1.7	2.0	2.1
건설업	3.3	3.2	3.3	4.8	5.6
교통·통신·창고	2.4	2.6	2.5	2.5	2.3
도소매	5.2	5.6	6.4	6.7	6.6
금융·보험·부동산	15.0	14.8	13.4	13.4	13.1
사회서비스	18.8	18.4	18.8	18.7	18.4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원: 이라크 통계청(2016년 12월 확인)

4.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이라크는 2003년 전쟁 이전에는 인근 아랍국가 중심의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전쟁 이후에는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서방 국가와의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WTO 가입을 위해 국내 경제체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 범아랍자유무역지대(Greater Arab Free Trade Area, GAFTA)

GAFTA는 아랍 공동시장 구상에 따라 아랍연맹 회원국 22개국 중 14개국(바레인, 이집트, 이라크,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튀니지, UAE)이 1997년 2월 17일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1998년 1월 1일부로 공식 발효된 지역무역협정이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2004년 말까지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교역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해 역내 무역 자유화를 통한 아랍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로 회원국 간 무역 거래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됐다. GAFTA 협정은 6장 22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의, 일반 조항, 실질 조항, 이행 감독, 분쟁 해결, 기타 조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나. 이라크-요르단 자유무역협정 체결

2009년 9월 4일, 요르단과 교역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다. EU-이라크 파트너십 및 협력협정

이라크는 EU와 2012년 5월 11일 'EU-이라크 파트너십 및 협력협정'(EU-Iraq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한 바 있으며, 같은 해 8월부터(잠정) 발효됐다. 해당 협정에 따르면 이라크 원산지 제품의 EU 진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EU산 물품에 대해서는 8% 이하의 관

세가 부과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 협정은 특혜적 성격을 지니기보다는 전반적으로 WTO 규범에 준해 작성된 협약으로, 이라크의 성공적인 재건과 시장경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EU의 대이라크 전략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라. 무역 보완 협정 체결 내용 등

인근 중동국과의 보완 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나 특별한 진행사항은 없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주재국 무역수지(수출, 수입)

이라크는 과거 전쟁 등으로 인해 주된 산업기반이 취약하지만 적극적인 석유자원 개발 및 대외수출을 통해 무역수지 면에서는 견실한 흑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라크의 연도별 교역 실적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수출(fob)	94,207	89,768	83,981	43,442	44,109
총수입(fob)	50,155	50,447	45,200	33,188	32,856
수지	44,052	39,321	38,781	10,253	11,252

주*: 예상치

자료원: EIU(2017년 7월 확인)

나. 주요 동향

이라크의 수출실적과 수입실적은 국제원유가격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원유가 수출실적의 99%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원유가격 및 원유 생산량에 따라 수출실적이 급등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입은 수출과 상관 없이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기록하다 2014년 ISIS 사태 이후 하락하고 있으나 그 폭은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수출실적이 증가하면 무역수지 흑자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수출상품이 원유에 국한돼 있지만, 국내산업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수입은 거의 모든 산업 부문에 걸쳐있다. 심지어는 막대한 원유를 수출하는 자원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제시설 부족으로 정유제품도 수입하는 실정이다. 이라크의 수입은 방대한 인프라 복구·개발 수요를 반영 기계류, 전기장비, 자동차 및 부품, 철강제품 등 플랜트 기자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16 이라크의 주요 수출입 품목(HS 2단위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수출품목	수출액	비중	수입품목	수입액	비중
1	원유·석유	46,778,778	98.0	기계류	3,729,619	13.0
2	귀금속류	769,261	1.6	전기·전자 장비	2,863,794	10.0
3	과일 및 견과류	65,476	0.1	철강제품	1,217,160	4.2
4	동물가죽	27,438	0.1	자동차 및 부품	1,073,116	4.2
5	펠프	19,658	0.1	플라스틱류	1,059,142	3.7

자료원: ICT Trademap(2017년 7월 확인)

최근 국제적인 저유가로 인해 이라크의 석유 생산 및 수출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가치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유가가 반등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수입의

경우도 저유가 상황이 국가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다수의 개발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크게 줄어드는 형국이다. 수입은 2013년 말까지 각종 건설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자본재 및 일반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 ISIL 사태 발발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전반적인 수입도 감소하고 있다. 한편, 국가별로는 터키, 중국, 이란, 미국 및 한국이 대 이라크 수출 5강을 형성한 가운데, 인근국인 터키와 이란의 시장지배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란의 이라크 시장진출은 여러 면에서 흥미로운데, 이라크에서 시아파 정치인들의 입김이 세지면서이란의 이라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도 강해지고, 그것이 통상 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경우 대 이라크 수출도 활발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이라크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으로 대 이라크 적자 폭이 큰 편이다.

2014년 대이라크 주요 수출입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대이라크 수출	수출액	비중	대이라크 수입	수입액	비중
1	터키	10,896	25.1	중국	20,761	24.3
2	중국	7,743	17.8	인도	16,070	18.8
3	이란	6,140	14.1	미국	13,827	16.2
4	미국	2,106	4.8	한국	6,686	7.8
5	한국	1,798	4.1	그리스	5,187	6.1

자료원: ITC Trademap(2017년 7월 기준 확인 가능한 최신 정보)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국과의 무역통계 총괄표

대이라크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출	1,866	1,973	1,798	1,428	1,439
수입	10,227	9,261	6,687	6,266	5,036
수지	-8,361	-7,277	-4,889	-4,838	-3,596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나. 한국과의 무역통계

우리나라의 대이라크 수출품목은 승용차와 플랜트 기자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이라크로부터의 수입은 거의 100% 원유에 집중돼 있다. 우리나라가 이라크에 대해서는 이같은 교역구조로 인해 만성적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라크가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인 만큼 양국간의 교역관계는 단순한 규모를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한국의 주요 원유(HS Code 2709) 수입원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총계	55,120	100	44,295	100
사우디아라비아	16,589	30.1	13,384	30.12
쿠웨이트	7,343	13.3	6,408	14.5
이라크	6,265	11.4	5,035	11.4
이란	2,207	6.0	4,547	10.3
카타르	7,050	12.8	3,876	8.8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대이라크 수출품목으로는 승용차와 플랜트 기자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승용차의 경우 가격 대비 품질 측면에서 이라크 시장에서 성가가 매우 높았으나 전반적인 자동차 수입 감소 추세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기기, 보일러, 기계류, 철강 등은 우리 기업의 이라크 내 플랜트 수주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2014년부터는 ISIL 반군사태로 인해 전략물자 수출이 꾸준히 상위 수출품목에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이라크 주요 수출품

(단위: 백만 달러, %)

HS Code	품목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비중
	총계	1,973	1,798	1,428	1,440	100
84	보일러, 기계류와 부분품	315	164	255	381	26.5
85	전기, 전자기기와 부분품	346	345	196	336	23.3
84	철강제품	169	101	164	238	16.5
87	자동차 및 부분품	984	890	490	228	15.8
93	무기, 총포탄과 부분품	-	98	151	87	6.0
40	고무와 그 제품	23	32	29	36	2.5
90	광학기기	29	16	19	19	1.3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대이라크 교역현황 및 특징

우리나라와 대이라크 교역은 높은 변동성이라는 차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같은 변동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이라크의 정정 또는 정치 리스크 때문이다. 1990년대 사담 후세인 독재 체제하에서는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로 인해 우리 수출이 여의치 않았고, 결과적으로 수출은 전무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이라크 간의 교역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것은 미국주도의 제2차 걸프전쟁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이라크 수출은 전쟁 종료 직후 엄청난 물량의 중고차 수출로 2004년에 크게 증가했으나, 2005년 이라크 정부가 2년 이상 된 중고차 수입을 금지하는 연식 제한 조치를 실시하면서 전년대비

45%나 급감한 6,818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 이후 신차를 중심으로 한 승용차, 담배,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대이라크 수출이 크게 일어나 2006년에는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상회한 바 있다. 그 이후에는 이라크의 정정이 불안한 가운데에도 우리기업의 플랜트 수주가 늘어나면서 2010년에는 수출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실적을 일궈낸 바 있다. 2013년의 경우 전년대비 우리 수출은 5.7% 증가해 최근 8년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출 증가세를 이뤘지만, 2014년부터 본격화된 ISIL 반군사태와 글로벌 저유가로 인해 이라크의 전반적인 수입하락에 따라 다시금 커다란 하락세를 겪었다.

2017년은 ISIL 반군사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섰으나 아직은 이라크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수요 회복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다가 저유가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아 순조로운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현대건설, GS건설, 한화건설, 대우건설 등이 이라크에서 카르발라, 비스마야 등에서 굵직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 수출 전망은 아직 밝은 편이다. 거기에 2017년부터 T-50경공격기 인도가 본격화되고, ISIL 반군 대응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 수출은 이라크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도 앞으로 지속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중요한 변수는 2017년 해결 국면에 들어선 ISIL 사태가 얼마나 조속하게 마무리될 것인가, 그리고 국제유가가 언제 본격 반등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변수는 이라크 경제개발은 물론 시장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우리 수출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수입규제제도

가. 개요

이라크의 수입규제 제도는 선적전 검사를 통해 시행된다. 모든 통관 절차 및 규제 항목에 관한 결정은 선적전 검사 용역을 맡고 있는 COSQC(Cent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의해 진행된다. 수입규제제도는 2011년 5월 개정 발효 이후 대 이라크 수출업자는 세관을 통과하는 모든 항목에 대한 이라크 세관의 사전 심사에 대해 승복할 의무를 지게 된다.

나. 수입금지 품목

항목	세부 품목
식료품	설탕, 홍차, 수입 쌀, 수입채소, 식용유, 지방, 렌틸, 병아리콩, 마른콩, 분유, 동물 사료용 옥수수, 동물 암낙타, 염소, 소, 양, 물소, 당나귀, 말, 사슴, 노새
제조상품	차량, 기타 기계류, 철근 콘크리트, 철근, 아연도강판, 철강시트, 및 판재, 목재, 미네랄 워터 파이프, 피팅류, 세라믹 및 욕실, 마감재, 동, 납판
기타	덩어리 비누 및 방향제, 데이터 팜 묘목 및 줄기, 고고학적 유물, 이스라엘 통화 미허가 총기 및 폭발물, 고기 및 우유

다. 수입규제 품목

네거티브 시스템을 사용해 수입 금지품목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전면적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전쟁 이후 이라크 정부는 비관세 수입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이라크 정부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0년도 이전에 생산된 중고 차량의 수입을 금지시킨 바 있으며, 2005년 9월 1일부터는 2004년 이전에 생산된 중고차량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한시적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 이후 해당 조치를 매년 연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시점 기준 생산된 지 2년 이상 지난 차량은 2013년 9월 기준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농업을 촉진하고 재건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09년 9월 1일부로 중고차 수입규정을 일부 개정, 10년 이하의 버스(20인승 이상) 및 트럭(3톤 이상)과 15년 이하의 농업용 및 건설용 차량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차량 부품수입과 관련, 중고 부품수입을 금지했던 종전 규정을 개정해 역시 2009년 9월 1일부터는 수입을 전면 허용키로 했으나 차량을 절단해 반입하는 것은 불허키로 했다.

라. 기타 수입제한 법규

수입품 선적전 품질 검사제도 시행

이라크 임시정부 각료회의는 2011년 5월 2004년 12월 1일 이라크 전쟁 이후 활동을 중지했던 '표준화 및 품질 검사 위원회(State Committee of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의 기능을 빠른 시일 내 부활시켜 상품 수입에 앞서 반드시 동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동 위원회가 발행한 승인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게 했다. 2015년 7월 기준, Bureau Verista, Baltic Control, SGS, TUV Rheinland, Cotecna 5개 업체가 검사 대행 업체로 선정돼 있다. 해당 위원회 위원은 이라크 산업광물부(Ministry of Industry & Minerals) 전문가를 비롯해 국영기업 사장, 주요 제조업체 사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수입 상품이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지, 인체에 해로운 제품은 아닌지, 불법 복제품은 아닌지 등을 심사하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이처럼 이라크의 자체적인 수입품 사전 품질 검사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불량 제품의 수입이 확산되자 이라크 정부는 2011년 5월부터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수입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제도를 그대로 준용해 시행 중이다. 품질 검사기관은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기관을 지정해 수입품 통관 시 품질검사내용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2012년 8월, 한국의 한 회사는 그동안 수출했던 제품(면도기)이 이라크 표준품질검사 규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관이 거부되고 한국소재 검사 업체도 선적전 검사제도를 거절하는 등 이라크의 선적전 수입검사제도는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수출입 허가제도

이라크 정부는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저가 불량 수입상품 범람, 이라크 외 제3국에 사무실과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이라크 시장에 대한 수입업무를 하는 업체들에 대한 통제를 위해 사전 등록된 사람만이 수출입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수출입허가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마. 수입쿼터

이라크에서는 특별히 수입쿼터 물품 목록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바. 비관세 장벽

이라크 정부당국에서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선적 전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관련 상세 내용은 선적전 검사제도에 관한 설명을 참조 할 수 있다.

사. 참고사항

수입면허 자격 취득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수입물품 범람으로 비관세 수입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수입면허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기존엔 수입면허 취득 시 수입물품 취급이 모두 가능했으나 규정 개정 후는 수입품목별 별도 수입 면허 취득해야 수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엔 정부물자의 경우 수입면허가 필요했으나 최근엔 수입면허 발급이 의무화되고 관세감면 절차와 기간이 매우 어렵고 복잡해졌다. 한화건설의 경우 평균 감면절차에 한 달 가량이 소요됐다.

아. 최신 정보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내에서 자국 기업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의 보호를 위해 매년 수입규제 리스트를 확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지 리스트만 유지하거나, 몇몇 제한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는 형태의 수입 규제 조치만 취했으나 최근에는 세수확대를 목적으로 기본관세와는 별도의 추가관세 형태의 추가 조세 조치를 현장에서 적용하려는 추세이다. 추가관세는 5%에서 100%까지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고, 주요 품목으로는 소형변압기(100%), 동물백신(60%), 소형냉장고(50%), 플라스틱파이프(40%), 광케이블(48%), 강철봉(40%), 변압기·전기모터(10%)가 있다.

4. 대한 수입규제동향

가.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이라크 정부는 저렴한 중고차가 자살폭탄테러에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 유류난 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중고차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산 중고차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한국산 중고차 수입업체에서는 수입규제 정책 완화를 이라크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동 조치의 해제가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전쟁 이후 중고차 수입이 자유화되자 한해 약 90만 대의 중고차를 수출한 적이 있었으나 2005년부터 시행된 중고차 수입제한조치로 인해 사실상 중고차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한국 내에서 렌터카로 사용된 연식 2년 미만 차량들을 연간 약 1,000대 정도 수출하고 있다. 현지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2년 이상 경과된 우리나라의 중고차들이 일부 불법으로 밀반입되는 경우도 있다.

나. 최신 정보

대이라크 한국의 수입규제 관련 중고차 수출에 관한 하위 법령 강화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3년 연식 이상의 승합차량 (20인승 이상) 또는 버스를 수입규제 품목에서 수입금지 품목으로 변경했다. 재건프로젝트용 건설화물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연식이 3년을 초과했을 경우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된다. 5

년 연식 이상의 농기계, 건설화물차량 및 앰블런스는 수입가능 품목에서 제외된다. 중고차 수입금지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중고차 판매실적이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중국산 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매가가 높은 한국산 중고차의 판매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 관세제도

가. 개요

이라크는 2003년 연합국임시행정처(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당시 재건비 조달을 명목으로 정부조달 물품을 제외하고는 5%의 일괄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재정수입 확대 및 국내산업 보호 차원에서 수입관세 인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이라크 정부는 2010년 중 관세법을 마련해 5~35% 수준(주류 등 품목에 대해서는 80% 관세 부과)의 차등화된 관세율표를 마련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시행시기가 연기돼 왔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2014년 이후 ISIL 반군사태가 발생해, 군비를 중심으로 재정지출 요인이 늘어난 반면, 국제적 저유가로 인해 석유 수출을 중심으로 한 재정수입이 줄어들어, 이로 인한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로 인해 그동안 연기해 왔던 차등 관세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2015년 수차례에 걸쳐 시행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못했던 관세법은 2016년 1월부터 전격적으로 실시돼, 현재 쿠르디스탄을 제외한 전 이라크 통관소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라크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관세법을 도입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못했던 것은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의 비협조 때문이다.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의 경우, 이라크 관세법 시행에 협조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5% 일괄관세 체제를 유지해, 다수의 수입업자가 물류경로를 남부 바스라에서 쿠르디스탄으로 돌려버림에 따라 이라크 중앙정부의 관세율 부과시도가 번번히 무산됐던 것이다. 이라크 중앙정부는 2015년 말에 쿠르디스탄 지역으로부터 내려오는 운송트럭에 대한 특별통관소를 바그다드 주위에 설치해, 관세차액을 징수하는 초강수 시책을 도입함으로써 수입업자들의 관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었다.

2016년 11월 1일부로 세입 확대를 위해서 승용차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는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 총리실 행정명령(Prime Minister Council Order #295)을 통해 추가로 관세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새로 도입된 관세와 관련 국가전략투자사업으로 지정된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우리 플랜트 업체들의 경우 이와 같은 면세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 관세율 알아보는 법

이라크의 관세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는 재무부이고, 관세의 징수관리는 산하 관세청(General Commission of Custom Authority)이 맡고 있으며, 관세청장은 국장(Director General) 급이다. 관세율 정보는 주무부처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통과된 법안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갱신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구체적인 품목 관련 관세 문의는 KOTRA 바그다드 무역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 원산지 결정기준

별도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수출국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6. 주요 인증제도

가. 개요

중국산 등 각지에서 생산된 불법 복제, 모조품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으나 품질규제나 인증, 검사가 사실상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라크에서 유통되는 불법 복제 모조품은 전자제품에서부터 담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재와 석유난로 등 가정용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로 인해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다. 특히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의 많은 제품들이 중국산 짝퉁 제품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라크 정부의 행정력 미비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인증제도의 시행을 포함해 인증 획득을 위한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적법한 절차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물품 자체 또는 기업의 인지도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및 진행 절차가 변칙적이기도 하다. 국제 기준의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인증 획득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라크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이라크 표준청(COSQC, Central Organization of Standards and Quality Control)이 한국의 국가표준원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2015년 12월 말 기준, 총 1,515개의 표준과 325개의 기술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라크 표준청이 UNIDO 및 각국의 표준 및 인증관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체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와 국내 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인증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 4월 17일 부터는 가정용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라벨링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세탁기, 냉장고 등으로 에너지라벨링규제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정부기관은 상호 협력하에 이라크 표준청 방한 초청, 이라크 표준청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제공 등을 통해 우리기업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기도 하다.

나. 주요 인증별 현황

1) 강제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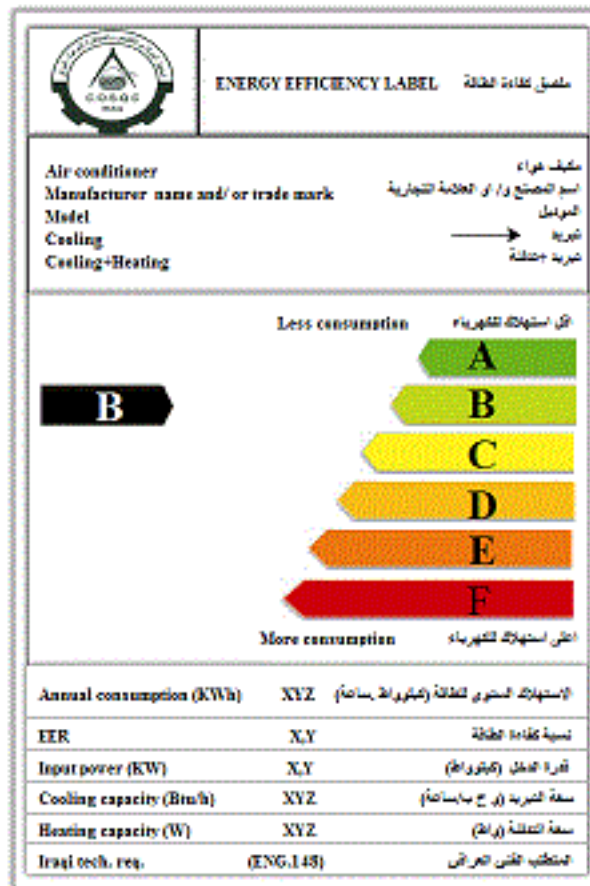
선적전 검사제도

- 강제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선적전 검사제도 참조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선적전 검사제도 참조
- 강제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선적전 검사제도 참조
-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선적전 검사제도 참조

에너지라벨링

-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ISO 및 EU의 에너지라벨링 시험규격과 라벨링표시 방법을 준용하고 있다.
- 대상품목: 가정용 에어컨
-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이라크 표준청(2017년 4월 17일)
-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수입통관 시 필수 서류로 4월 17일 이후 통관품목부터 적용됨.

인증마크



2) 민간자율인증

일반적으로 ISO, UL, CE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들이 이라크 내에서도 수입 및 유통단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7. 지식재산권

가.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 보호대상 및 보호제도

이라크는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가맹국으로 원칙적으로 지적소유권 침해 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2003년 이후 연합국 임시행정처(CPA) 주도로 선진국 수준의 지적소유권 보호법으로 개정돼 최소한 법적 장치 면에서는 여타 국가와 비교해 손색이 없다. 관련 법규로는 2004년 4월 29일 CPA 행정명령 29호로 공포된 지식재산권법이 있으나 이 법규의 효력과 집행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치안질서도 확보하지 못한 현재의 이라크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유효한 행정적 집행수단을 갖는다는 것은 요원한 상황으로 실제 지식재산권 보호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을 지켜 줄 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는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모조 제품, 불법 복제 CD 등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거래되고 있다. 심지어 담배류도 위조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8. 통관절차 및 운송

가. 일반 통관절차 개요

이라크 세관의 통관서류 및 절차는 인근국가와 유사하다. 즉, 상업송장과 원산지 증명서, 포장 명세서를 필요로 하며 세관원이 육안으로 물건을 검사한 후에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에 통관 절차가 종료된다. 이라크 내 세관 가운데 우리나라 화물이 가장 많이 반입되는 카라마-트레빌 세관의 경우, 투명하지 않은 세관 행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항만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만성적인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일 제품이라도 수일 내에 통관되기도 하고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통관과정에서도 관료주의도 심하고 부패, 독직 등의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투명한 세관 행정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행정력 미흡과 시설 부족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통관의 종류

약식통관

이라크 세관은 화물 송장 등의 각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품 검사는 세관이 지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구역인 부두나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세관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물자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검사하기도 한다. 통관 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재건세 명목으로 5%의 관세만을 부과하고 별도의 특별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정식통관

이라크에서는 농수산물과 식품도 원칙적으로 일반 제품과 동등한 관세, 통관, 검역 제도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농수산물과 식품의 위생검역 제도 및 절차는 일반 제품에 비해 다소 까다로운 편으로 부가적인 통관서류(수출허가서나 위생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의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입제도

는 수입통관, 관세, 위생검역, 수입규제 제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모두 이라크 내 선적전 검사 업체의 자체 규정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라크의 통관 신고서 양식은 검사업체에서 지정하며 통상적으로 선적 계산서, 항공 계산서, 용기 적하목록, 송장 등이다. 특히, 2012년 10월 이후 민간수입의 경우 예외 없이 모두 수입면허 제출이 의무화됐다.

우편통관

국제 우편협약에 따라 배송자는 반드시 관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제품에 대해 지정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우편통관 시 특별 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방치된 화물

방치 화물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고 화물 보관료만을 징수한다. 세관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화물은 세관장에 의해 정부가 지정 하는 보세창고로 강제 운송된다. 이때 발생하는 보세 트럭 운송비, 항만 체재료, 선박이나 항공 운송비 등 모든 경비는 추후 수입업자가 통관을 신청할 때에 완불해야 한다. 이라크에서는 국가 재건 프로젝트에 사용 될 건설 기자재를 실은 화물의 경우에도 세관의 억류 조치로 인해 화물이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는 해당 프로젝트 소관 부처에 공식 레터를 요청해 방치 화물에 대한 반입 또는 귀송 승인을 얻을 수 있다.

통관본드(Entry B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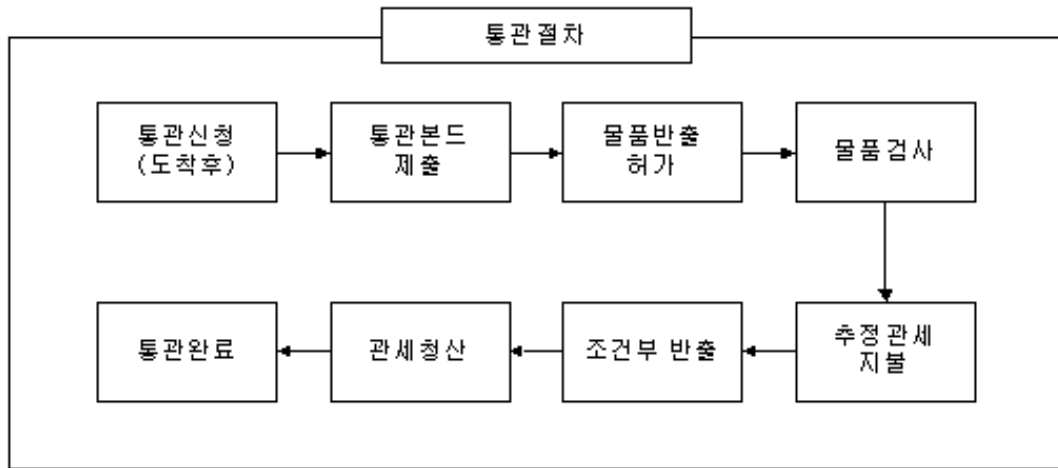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반출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에 통관본드를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입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본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관본드의 보증인(Surety)는 원칙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세관이 인정한 사전에 인정한 보험회사 및 기타 법인체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입자는 이들 회사로부터 본드를 취득하기 위해서 회사와 별도의 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한 통관본드는 세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통관본드는 일회 통관을 위한 본드(Single Entry Bond)와 지속적인 통관을 위한 본드(Continuous Bond)의 두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후자가 이용되고 있다. 지속적인 통관을 위한 본드 금액은 당해 수입자의 수입품 성격, 관세 및 기타 수입 수수료의 연간 납부예상 총액, 과거 납부성적 및 본드조건 준수 성적 등을 감안해 일반적으로 본드 주기 내의 총 수입가액과 관세 및 기타 수입 수수료의 총 합계 선에서 관할 일선 세관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세관의 정책이다. 금액이 충분한지는 본드 주기마다 검토한다.

다. 물품검사 및 보류 및 압류

선적전 검사제도는 농산품 및 부패성 물품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자의 반출허가 신청 후에 수행한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라크 표 준청(COSQC)에 의해 세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수행한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수입품으로부터 샘플을 채취(또는 이미 반출된 경우는 수입자로부터 받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수입자는 세관이 인가한 시험분석소에 시험 분석을 의뢰할 수 있고 세관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관은 모든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검사 목표에 따라 수입품을 선별해 검사하는 정책(Cargo Selectivity)을 펴고 있다.

라. 통관절차 흐름도

선박 및 항공기 자체 통관 신청(도착 후) → 통관본드 제출 → 물품 반출 허가 → 물품검사 → 추정관세 지불 → 조건부 반출 → 관세 청산 → 통관 완료



마.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상업송장

통관에 관한 모든 절차는 이라크 검사 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통관 물품의 종류, 수량, 목적 등에 따라 적용 방침이 상이하므로 상업송장 관련 세부 사항은 한국 내 선적전 검사 대행 업체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포장리스트

통관에 관한 모든 절차는 이라크 검사 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통관 물품의 종류, 수량, 목적 등에 따라 적용 방침이 상이하므로 포장리스트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 내 선적전 검사 대행 업체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세관의 조사항목

통관에 관한 모든 절차는 이라크 검사 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통관 물품의 종류, 수량, 목적 등에 따라 적용 방침이 상이하므로 세관 조사항목 관련 세부 사항은 한국 내 선적전 검사 대행업체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통관경비

통관에 관한 모든 절차는 이라크 검사 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통관 물품의 종류, 수량, 목적 등에 따라 적용 방침이 상이하므로 통관경비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 내 선적전 검사 대행 업체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통관절차 안내 및 문의

한국 내 선적전 검사 대행 업체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Bureau Veritas
- 대표 전화: +82-2-555-8922
- 홈페이지: <http://www.bureauveritas.co.kr>

- Baltic Control
 - 대표 전화: +82-2-6310-6422
 - 홈페이지: <http://www.balticcontrol.com>
 - 이메일 문의: jyc@balticcontrol.com / jsk@balticcontrol.com

- TUV Rheinland
 - 대표 전화: +82-2-860-9860
 - 홈페이지: <http://www.tuv.com/ko/korea/home.jsp>
 - 이메일 문의: info@@kor.tuv.com

- Cotecna
 - 대표 전화: +82-2-714-1344
 - 홈페이지: <http://www.cotecna.kr/>
 - 이메일 문의: cotecna.seoul@cotecn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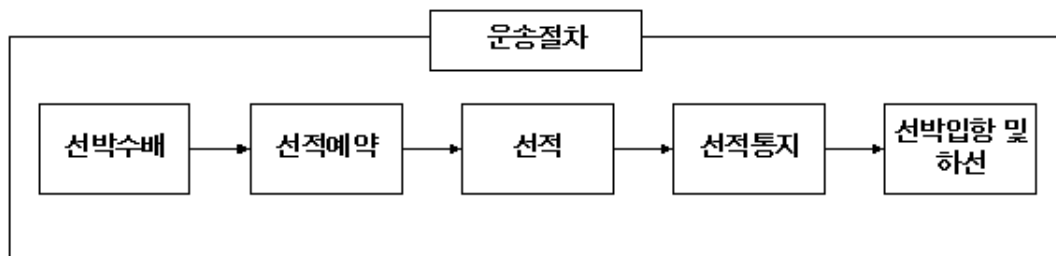
- SGS(쿠르디스탄)
 - 대표 전화: +82-2-709-4500
 - 홈페이지: <http://www.sgsgroup.kr/>

바. 주재국 무역항 및 공항개황

국제 공항은 바그다드 공항, 바스라 공항, 아르빌 공항, 술레마니아 공항 등이 있으며, 가장 주요한 공항은 바그다드 공항이다. 모술, 키르쿠크에는 국내선 공항이 있다. 2008년 7월 20일에는 시아파 성지인 나자프에 국제공항을 개장했다. 국제 공항들은 계속된 전쟁과 UN 경제제재로 인해 노후화됐으며 2003년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정상 운영이 곤란해졌다. 바그다드 공항은 2004년 8월에 관리 권한이 이라크에 이양됐으며, 이라크 국영항공사(Iraqi Airway)가 요르단, 시리아 등 인근 중동국가에 운항을 재개했다. 외국 항공사로는 Royal Jordanian와 터키 항공 운항에 이어 최근에는 에미레이트 항공, Fly Dubai, Oman Air, Middle East Airline 등이 운항 중이다.

사. 운송절차 및 흐름도

컨테이너 출화물의 운송절차는 다음과 같다.



선박수배

- FOB 조건인 경우 수입상, CFI 조건인 경우 수출상이 담당

- 선적 일정을 선사를 통해 확인하고 선박을 수배

선적예약

- 화주는 선사의 소정양식인 선적의뢰서(S/R: Shipping Request)를 발송해 선적 예약을 완료

선적

- 수출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항 CY 또는 터미널에 마감시간 전까지 반입
- 선하증권 수령
- 선적 완료 후 화주는 선사로부터 B/L(선하증권)을 수령
- 운임이 선불인 경우에는 운임을 B/L 수령과 동시에 지급

선적통지

- 선적 절차가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지체 없이 선적통지를 하고 B/L 사본을 송부

선박입항 및 하선

- 수입화물을 부두에서 직반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 입항 전에 선사에 해당 화물을 부두 내 하선하거나 본선에서 차상 반출하도록 부두하선 요청
- 하역업자는 적하 목록 하선신고서에 따라 물품을 반입

아. 운송비용

도로사정, 운송, 수단, 거리, 기간, 비용, 횡수

이라크는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따라 상품의 통관과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내륙 운송의 경우 이라크의 불안한 치안 상황으로 추가의 보관 및 보안 경비가 소요된다는 점이 다른 국가와 다른 점이다. 국제 항구로는 남부의 바스라항과 움카스르항 2개가 있으며, 상업 화물은 주로 움카스르항을 통해 수입된다. 기본적으로 한국 부산항에서 이라크 움카스르항까지 선박 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2,000달러 상당이며, 두바이항에서 움카스르항까지는 1,000달러 상당이다. 움카스르항에서 바그다드까지 육로 운송 요금은 1,000달러 상당이나 운송과정의 도난, 파손 등의 위험으로 보관 및 보안 경비는 추가 부담해야 한다. 2016년 하반기 한진해운사태의 여파로 운송비용, 창고료, 항만화물처리 비용 등이 유동적이며 각종 요금의 정상화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움카스르항을 통한 물류가 취급 물동량의 과다로 통관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세관원의 부패가 심하고, 항구 시설이 협소해 아카바항이 선호되고 있는 추세다. 아카바 항구는 이라크행 컨테이너에 대한 항구 이용료 할인 또한 적용하고 있다. 이라크 수입상들의 수입 루트로 최근 들어 요르단의 아카바 항구가 선호되고 있다. 그동안 치안불안 등으로 이라크 남부 움카스르 항구가 주로 이용돼 왔으나 항구 시설 협소로 화물적체가 심각하고, 적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은 물론 처리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세관원들의 부패가 날로 기승을 부림에 따라, 많은 수입상들이 다소 운임이 비싸더라도 아카바 항구를 이용하고 있다. 아카바 항구 관리당국도 이용객 증가를 위해 이라크행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항구 이용료

의 30%를 할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입항 및 통관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부구매 물자는 여전히 움카스르항구를 통해 반입된다. 주요 정부 구매 물자로는 국민들에게 생필품으로 배급하고 있는 밀가루, 설탕, 쌀 등이 있다.

우리나라를 출발한 화물이 이라크로 반입되기 위해 활용되는 항구로는 요르단의 아카바항, 시리아의 타르투스항,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항을 거치는 이라크 움카스르항 등 3곳이 있으며, 그 동안 어느 항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통관시점 상황에 따라 달랐다. 2003년 전쟁 직후엔 아카바항을 이용하는 것이 운임 경쟁력이 있어 운송 지연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됐으나, 종파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요르단과 시리아를 통해 반입되는 화물이 테러분자들에게 강탈당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자 움카스르항을 이용하는 바이어들이 늘어났다. 이후 두바이 경유 운임이 하향 조정되면서 움카스르-바그다드 간 운송 기간이 짧고, 내륙 운송 시 국경 통과와 번거로움이 없는 두바이-움카스르 루트가 많이 이용됐다.

그러나 움카스르 항구의 접안 및 하역시설 부족으로 근래 화물 적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급행료 요구 등의 부패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통관이 되지 않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의 수입상들이 움카스르항을 기피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움카스르 항구의 개.보수 및 인근 알파우(Al Faw) 지역에 외국인투자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항구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외국인들의 투자 기피와 이라크 정부 예산의 부족으로 시행이 늦어지고 있으며 당분간 아카바항 이용 선호도가 계속될 전망이다.

자.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서비스 회사리스트

- AlMasar Al-Iraqi Co. L.L.C for Shipping & General Transport
 - 전화: +9647712554677, 9647704926113
 - 이메일: operation@iraqilogistic.com, almasar@iraqilogistic.com

- BERTLING
 - 전화: +964 789139193, 964 789189517, 964 7507366432
 - 이메일: ali.majid@bertling.com, jim.mcgovern@bertling.com, rdar.polat@bertling.com

- Wilh.Wilhelmsen Group
 - 전화: +964 7801398406, +964 7703105578
 - 이메일: wss.basrah@wilhelmsen.com

- SKA AIR AND LOGISTICS
 - 전화: +964 7901909871
 - 이메일: basrah@ska-arabia.com

- AL-BADER SHIPPING&GENCONT CO
 - 전화: +964 7809116249, +964 7801416415
 - 이메일: hazimalali@absc-iraq.com, capt.aziz@absc-iraq.com

- Saba International Group
- 전화: +964 7801023955, 964 7801098975
- 이메일: saba.iraq@sabaint.net, Bilal-shakir@sabaint.net

9. 수출유망품목

우리나라의 대이라크 시장 수출유망품목은 무엇보다 이라크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하게 구축한 승용차를 들 수 있다. 우리 승용차는 2,000cc 중형 이하 세단을 중심으로 이라크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주요 경쟁 차종인 중국이나 이란에 비해서 품질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높은 편이다. 3,000cc급 이상에서는 일본산 렉서리 SUV 등에 밀리고 있는데, 이 같은 고부가가치 차종시장에서 어떻게 시장점유율을 늘려갈 것인가가 주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산 차량이 잘 팔리는 만큼, 한국산 부품 역시 향후 이라크로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라크 수입차량 시장은 신차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지만, 이라크 정부의 중고차 수입규제조치가 철폐될 경우 중고차에 대한 수요도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 높은 유망 품목은 우리 기업의 이라크 플랜트 수주를 바탕으로 한 플랜트 기자재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주로 타깃으로 하는 플랜트 분야는 가스처리시설, 발전소, 정유소 등 고부가 프로젝트들로, 이와 관련된 기자재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소싱되고 있다. 카르발라 정유소 등 프로젝트가 2015년부터 본격화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한국산 기자재의 진출 여지도 더욱 넓어진 셈이다.

세 번째 유망 품목은 총포류 등을 비롯한 군수전략 물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말 우리 기업의 T-50 경공격기 계약이 성사되고, 해당 물자가 2016년부터 본격 인도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부품공급 및 유지보수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몇년간 방산물자 수출 전망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ISIL 대응을 위한 총포류, 탄약 및 화약류가 2014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한 평판이 좋기 때문에 적어도 ISIL 반군과의 교전이 지속되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ISIL반군이 이라크에서 축출된다고 하더라도, 각종 테러에 대비한 치안·보안용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라크 정부는 특히 차량폭탄 등을 적발할 폭발물 탐지 시스템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바, 이와 관련 획기적인 제품개발이 있을 경우 시장진출 여지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현재 휴대폰, 에어컨 및 TV 가전 부문에서도 고급시장을 중심으로 역시 우리 기업이 높은 성과를 이루고 있지만, 여타 생활가전이나 생필품 분야에서는 2014년 이후 이라크의 가격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중국산·이란산 저가 품목의 입지가 넓어졌고, 바이어들 역시 가격인하 요구가 강해지는 추세다. 이라크 부유층을 대상으로 어떻게 브랜드를 구축하고 마케팅할 것인가가 향후 핵심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차원에서 의료기기, 의료용품, 화장품과 같이 가격경쟁이 덜하고 품질과 브랜드의 비중이 높은 품목도 이라크에서 통할 가능성이 크다. 이라크 국민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호감도나 인지도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가격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한국산 품질과 브랜드를 앞세워서 이라크 시장을 진출한다면 단기간 내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 시장 특성

가. 소비자 특성

1) 소비자성향 및 관습

이라크는 1인당 국민소득 6,000달러(구매력기준 국민소득 1만 5,000달러)대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는 이라크를 상위 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소득수준은 크게 낮은 편이나, 석유자원 등으로 인한 부의 집중 현상이 일어나서 같은 국가 내 시장의 편차가 매우 극심하다. 한 예로 이라크 거리를 보면 차령 20년이 넘은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한편, 유럽산 고급 SUV나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이라크는 1970년대까지 중동의 산유국 중에서도 높은 소득수준을 자랑하고 있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고급제품에 대한 향수가 많이 남아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산 저가 제품을 구입하고 있지만,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시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월 1,000달러 미만의 소득자들도 최신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다니는 모습 또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소비자의 취향을 겨냥, 유명 브랜드 재고품이나 모조품도 대거 유통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력이 미흡해 모조품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과의 전쟁 이후 소비자들의 급격한 구매력 감소로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나 품질 수준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라크 소비자들은 품질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생각을 지니고 있으며, 대체로 품질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를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그 결과 저가 중국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만족 지수는 그리 높지 않으며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편이다. 생활용품의 경우 대체로 개당 100달러 미만의 제품은 가격을 더 따지나 100달러 이상인 제품은 품질이 더 중요한 구매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전 제품은 500달러를 기준으로 자동차와 같은 내구성 제품은 5,000달러를 기준으로 가격과 품질의 선호도가 바뀐다. 이상과 같이 이라크인의 일반적인 소비성향은 '유명 브랜드 저가 모델'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 중인 가전 제품은 대체로 '브랜드는 고급'이지만 제품은 선진국에서 한물간 구형 모델이거나 원가 절감을 위해 제3국에서 조립한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 소비자 구매선호도

4P(제품, 가격, 유통, 판촉)

전후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는 있으나 치안 및 정정 불안으로, 대형 바이어들은 가급적 재고 부담이 많거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분야를 꺼리고 가능하면 회전이 빠르고 단기 현금화가 가능한 분야에 치중하는 편이다. 즉, 중고차, 가전 제품, 식품 등 현금 장사에 치중하는 편이다. 이라크의 금융시스템 발전 미흡으로 아직까지도 L/C 개설에 의한 거래가 어렵고, 따라서 인근지역에서 소규모 현금 지급방식에 의한 거래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나. 한국상품 인지도

사담 후세인 정권하에서 비우호국으로 분류됐던 국가 이미지로 인해 상품 가치에 대해 충분한 시장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이라크 시장 내에서의 한국 상품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민간교역 부문에 있어서만은 일본, 중국, 구미 경쟁국을 제치고 한국산 제품

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격과 품질 면에서의 만족도가 높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전자제품의 경우 국내 기업의 브랜드만으로도 충분한 인지도를 체감 할 수 있는 정도며, 가계에서는 Made in Korea에 대한 선택을 합리적 소비의 결정 기준으로 보기도 한다.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인한 한국의 선진화 이미지 정착이 성공하면서 전자제품을 비롯한 기타 생산품의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 한류 동향

2006년 10월 방영된 '대장금'에 이어 2009년 3월 이란에서 방영된 '주몽'은 85%의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주몽타임을 만들어낼 정도의 큰 인기를 누렸다. 최근 1999년 제작된 '허준'이 2013년 5월부터 이라크 전역에 방영되기 시작했다. 드라마 '허준'을 통해 한국인들이 가진 도전과 창의, 인내의 모습들을 잘 전달해 한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격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예컨대, L사는 2009년 7월부터 주몽의 주인공 배우 송일국을 내세운 광고를 이라크 전역에 내보냈고, 그 결과 평판 TV와 AV(Audio, Video) 제품이 각광받았으며 이로 인해 LCD TV 점유율은 2위로 치솟았다. 이라크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한류는 전자제품, 자동차, 건설 업계 프로젝트 수주 등 한층 높아진 한국 이미지와 함께 중동시장 진출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방영으로 한국과 이라크 양국 간의 우호 증진 및 문화교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이라크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의 추가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라. 유통채널

유통구조

이라크로 수입되는 상품들은 독점 딜러만이 아니라 자금 능력, 판로를 갖추고 있는 수입상이라면 누구나 수입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제조업체나 수출업체는 아직 이라크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대리점 체제를 구축하기보다는 단기적 시장 진출 전략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바이어들 모두에게 가리지 않고 물건을 공급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라크 내 치안이 확립되고 상거래 질서가 안정되면 대리점 체제가 정착될 것이며, 특히 A/S가 필요한 품목은 조만간 대리점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

유통채널별 특성 및 유통마진

2003년 전쟁 직후에는 원산지 수출상보다는 배송 기간이 짧고 대금 수수가 용이한 두바이, 요르단, 쿠웨이트 등 인근지 중개상을 통한 수입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나 그 후 수입 업자들 간에 점차 경쟁이 가열되면서 중개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직수입을 선호하는 수입상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민족 감정까지 겹쳐서 요르단, 쿠웨이트 중개상을 통한 수입을 매우 꺼리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수입상들의 직수입 선호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내 금융시스템 미비로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불가능하고, 수입상들의 자금 부족과 재고 부담 능력 부족으로 인해 소액주문을 외상으로 받으면서도 운송 기간도 비교적 짧은 두바이, 요르단, 터키 및 시리아 상인을 통한 중개무역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유통채널별 매출채권 회수(여신기한)

이라크 내의 열악한 금융서비스로 인해 매출채권을 이용한 거래 비율이 전무에 가까운 실정이다. 대부분 현금 및 현금등가물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유통산업에서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개념이 통용되지 않는다. 이라크는 여신 기능이 발달되지 않아서 60일 120일 DP/DA와 같은 대금 결제방식은 전무하고 전면 현금 거래 또는 신용장 거래만을 취급한다.

판가결정 체계(Cost Structure)

유통채널의 최상부 피라미드에는 국영기업이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수입 당사자가 정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도매 수입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수입허가를 받는 경우는 대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하부구조에 속하는 나머지 유통업자는 소매만을 담당하는 딜러에 그친다. 따라서 직수입 판매상권이 형성되는 것이 불가능해 물품을 조달받기 위해서는 직수입 판매상이 직접 공급하는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유통체계를 거친 후 획득이 가능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기기·의약품, 자동차부품, 각종 소매상품 등을 취급하는 수입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아이템 추가를 통한 사업 확대나 새롭게 민간시장에 진입하려는 신흥 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리 제품을 소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는 등 네트워크를 공고히해 향후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대비할 필요도 있다. 가격 경쟁구조가 복잡하고, 상품 유통가격에 대한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지 않는, 이제 막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약하려는 이라크 시장 특성으로 인해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일 경우 상품의 초기 조달 비용만큼이나 개인적 친분관계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품목에 따른 평균적인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수입산 식료품의 경우 10~20%이고 수입산 소매상품의 경우 25~30%인 것으로 집계된다.

마. 유망상품

감시카메라 등 보안장비

화기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부유층, 기업인, 대사관, 국제기구 등에서 파견된 외국 기관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안전대책으로서 경호원 등 인적 보안에 의존하고 있으나 종래에는 보안장비 및 보안 시스템 수요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부품

이라크 전쟁 전에는 한국산 자동차 부품이 두바이, 암만, 다마스쿠스 등 인근지역 중개상을 통해 소량씩 반입돼 시장 규모가 협소했으나, 전후 본격적으로 직교역이 시작됐다. 한국산 순정부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국산 차량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산 부품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플랜트 기자재 및 건설장비

이라크는 치안이 불안하고 정치적으로 순탄치는 않지만, 석유자원 판매를 통한 구매력을 보유한 시장이다. 석유자원 개발을 위한 각종 플랜트뿐만 아니라, 국내 정유시설 건설 계획이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전력,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수요도 매우 크다. 2014년 말 기준에도 우리기업이 약 35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 같은 플랜트 시장은 향후에도 상당부분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파이프를 비롯 플랜트 기자재 및 건설장비에 대한 수요 역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11. 바이어 발굴

가. 각종 협회, 매체, 전시회, 기타방법

이라크 유력 수입상들은 테러, 납치를 피해 상당수가 두바이와 암만으로 피신해 있으며 이라크 내에는 최소 직원만 유지하고 있다. 상공회의소, 비즈니스맨 연합 등 유관단체가 있기는 하나 바이어 리스트를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현지에서 발간되는 디렉터리, 옐로 페이지는 신뢰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Compass 등 자료를 토대로 바이어의 소재 여부를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2003년 전쟁 이후 신변 불안으로 이라크의 유력 바이어들이 인근국가로 피신해 있으므로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국 시장을 통해 이라크 시장을 우회 개척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특히 치안불안으로 우리 기업인들의 이라크 입국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바이, 요르단, 쿠웨이트 등지를 거점으로 삼고 있는 이라크 유력 바이어들과 상담을 통해 이라크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인근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를 활용해 이라크 바이어를 발굴할 수도 있다. 요르단, 두바이, 아부다비 등에서 개최되는 여러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이라크 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006년부터 치안이 안정된 쿠르드 지역에서는 아르빌이나 술레이마니야 지역에서 다수의 국제 전시회를 개최해 외국기업의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라크인은 모두 구매력이 약하다'라는 단일 잣대로 요르단 등 인근지 조립품이나 중저가형 모델 위주로 공급하기보다는 '한국제품'을 '일본제품'의 대체품으로 간주하고 있는 고소득층을 겨냥한 'Made in Korea'의 프리미엄 제품을 공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전쟁 직후 세관 행정의 미비하고 혼란한 틈을 타 인근국가 중개무역 상인들이 주도권을 장악했었으나 최근 직교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라크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수입 경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직교역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4년 중에는 이라크 정부기관 혹은 그 에이전트를 사칭하고 나선 사기꾼들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비즈니스를 내세워 국내업체에 접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우리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심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바그다드 무역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각종 홈페이지

이라크는 광케이블 등 통신인프라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전체 인구 중에서 인터넷 이용률이 인근국 대비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2015년 들어 이라크 내에도 3G 서비스가 도입되고 무선은 중심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가는 추세지만, 일반인과 중소기업 바이어들은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이 생활화돼 있지 않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과 이메일을 통한 바이어와의 교신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화 등 측면에서 신뢰할 만한 소스라고 볼 수 없지만 이라크의 업체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 Iraqi Directory: www.iraqdirectory.com
- 유료 사이트인 www.noozz.com는 뉴스 제공 사이트이나 일부 활용이 가능함.

다. DB활용 등 온·오프라인 바이어 발굴 방법 소개

아랍권의 대면 문화(face to face) 및 이라크 통신 사정을 감안할 때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지난 30년간의 전쟁 및 테러로 인해 산업 대부분의 중대형 자국 기업이 이란, 쿠웨이트 또는 터키와 같은 인근 중동국가로 유출돼 사실상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등 현대적인 마케팅 방안조차 구비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활동하는 시장에서 온라인을 통한 정보 획득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외교부에서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 2013년 7월 이후 극도로 불안해진 치안 상태를 감안할 때 독립적 오프라인 바이어 발굴 탐사는 상당히 위험한 시도로 간주된다. 따라서 무역관을 이용한 정보 획득(예: 지사화 프로젝트 또는 무역관 자체 DB) 방안을 이용해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트너십 등을 체결한 현지 업체가 있을 경우, 이들을 통해 현지 시장 조사 등을 일부 의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라크 현지 업체 대부분은 신뢰도가 낮은 편이므로 양질의 정보 획득에 한계가 있다.

라. KOTRA 바이어 발굴 소개

KOTRA 바그다드 무역관에서는 현지 바이어와 한국 업체의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지사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16년 6월 기준 6개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품목으로는 중소형 건설장비, 금고, 난로 및 운할유를 다루고 있다. 이라크 현지 치안 사정상 한국 업체 직원이 시장조사를 하거나 판촉행위를 하는 등 계약과 직결되는 기업 활동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기본 시장조사, 해당 물품 시장성 평가 대행, 계약 성사 대행 및 연락사무소 역할을 대행하고 있으며, 현지 직원과 한국 업체 간의 1:1 교신을 통해 보다 생생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시장 조사부터 계약 체결까지 토털 서비스 형태의 용역을 제공하며 한국 업체의 이라크 진출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12.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가. 상담·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상담 시 금기사항

이라크는 2003년 미국과 전쟁 후 이슬람 종파 간 갈등이 새롭게 증폭됐기 때문에 바이어에게 소속 이슬람 종파(수니파, 시아파)를 묻는 것은 금기사항 중 하나이다. 또한 이름만으로도 소속 종파를 알 수 있어서, 납치가 기승을 부리고 테러 위협이 높아지면서 경찰이나 타인에게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꺼리며 모르는 사람과는 명함도 교환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인과 상담할 때는 쿠르드 독립과 관련된 이야기는 자제해야 한다. 쿠르드족은 전체 인구의 약 17%인 약 460만 명이 이라크에 살고 있으며 사담 후세인 정권까지 쿠르드 독립 정부를 갖지 못했으나, 전쟁 이후에는 쿠르드 지역(수도: 아르빌)에 자치정부에 준하는 정부조직(대통령, 총리 및 정부부처)을 구성했다. 하지만 터키, 이란 등 주변국들은 이라크 내 쿠르드족이 독립할 경우 자국 내 쿠르드족 독립운동으로 확산돼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쿠르드 지방정부의 독립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쿠르드족 독립은 가장 예민한 사항 중 하나로 그와 관련한 언급은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바이어와 친한 사이가 아니면 사담 후세인 등 종전 후의 민감한 정치적 화제는 말하지 않는 편이 좋다. 특히 상대방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잘 알지 못할 경우 사담 후세인에 대한 선호도 질문은 매우 예민한 사항이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바이어와 상담이 잘 진행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신용장(L/C AT SIGHT)에 의한 대금 결제를 원칙으로 삼고 DP 또는 DA 등에 의한 외상거래는 가급적 삼가는 게 좋다. 이라크 바이어들은 유럽 기업들과 오랫동안 거래해 오면서 외상 및 연불거래에 익숙해 처음 거래관계를 맺는 경우에도 USANCE 등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결제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상대방과 충분한 신뢰관계를 쌓기 전에는 신용장 거래방식을 채택해야 안전하다.

신용장 거래 시 L/C 개설은 두바이나 암만 등 신용도가 높은 외국은행에서 개설된 신용장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좋다. 국영은행 TBI(Trade Bank of Iraq) 등 일부 이라크 은행이 신용장을 발급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확립될 때까지는 인근국가 은행을 통해 개설된 신용장에 의해 거래하는 편이 비교적 안전하다.

이라크 바이어에게 독점 에이전트십을 부여할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바이어의 마케팅 능력을 검증한 이후 독점 에이전트를 지정해야 하나 통상 바이어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고 자신에게 독점 에이전트권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시장 지배력, 마케팅 네트워크와 판매능력을 중심으로 거래 바이어를 선별해야 한다.

나. 바이어 상담 시 유의사항

중동지역 공통으로 직접 대면접촉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비즈니스 성공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특히 이라크인은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 정기적으로 상대방을 방문해 친분을 쌓아두는 것이 비즈니스에 유리하다. 이라크는 국내 전화 사정이 좋지 않아 통화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선약 없이 찾아가도 결례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반기는 편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면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처나 국영기업의 의견(protocol) 파트를 접촉해 사전 약속을 해야 한다.

이라크 바이어들과 상담할 때는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상담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적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기 위해 대화를 중단하는 일이 흔하고, 상담 시 제기된 문제나 상대방의 도를 파악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조급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불손한 태도로 간주 받아 상담을 망칠 우려가 있으므로 항상 인내심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쌍방 간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라크 바이어들은 거래선 물색 시 자본력보다는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지를 가장 우선시한다. 특히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기무역 등이 빈발하면서 이라크 바이어들은 상대방을 쉽게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전쟁 이후 이라크 시장은 우리 기업인들의 접근이 제한돼 생생한 시장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시장수요에 적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라크 현지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다. 기업문화

한국 사람이 ‘빨리 빨리’로 유명하다면, 중동 사람은 그 반대다. 중동 사람들은 의사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재촉 당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 미팅 약속을 사전 통보 없이 지키지 않거나 30분~1시간씩 늦는 것은 다반사이고, ‘인살라’(신의 뜻대로)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거나 약속을 잡는데도 시일을 오래 끄는 경우도 있다. 특히, 라마단 기간에 진행되는 비즈니스 약속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꾸준히 바이어를 접촉해 성약을 달성한 사례가 많은 만큼,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인살라’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알라의 뜻에 맡기겠다는 좋은 의미이나, 간혹 신의 가호로 원하는 대로 일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변질되거나, 약속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현지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상담 후 헤어지면서 습관적으로 ‘인살라’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니 실제 진행여부는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

‘부크라’는 ‘내일’이란 뜻이나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좋은 뜻이다. 그러나 상담할 때는 바로 내일 당장 주문할 것처럼 하다가 막상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확인해 보면 부크라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말리쉬’는 원래는 관찮다(No Problem) 혹은 이해해달라는 의미인데, 실제 주문 의사를 밝힌 후 몇 달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아 전화하면 바이어들이 곧잘 ‘말리쉬’라고 말한다. 이것은 노력했으나 되지 않았으니 이해해달라’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중동 바이어가 하는 말에 이렇듯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정작 자신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요하게 접근하며 한 번 거래를 한 경우에는 쉽게 거래선을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

13.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가. 이라크 주요 전시회 일정

행사명	Energy Iraq, Baghdad(Project Iraq, Baghdad와 동시 진행)
행사기간	2017년 4월
행사장소	Baghdad International Fair Ground, Baghdad, Iraq
전화	+964 66 256 7634
팩스	N/A

이메일	fady.darwiche@ifpiraq.com
행사명	Energy Iraq, Erbil(Project Iraq, Erbil과 동시 진행)
행사기간	2017년 10월 23~26일
행사장소	Erbil International Fair Ground, Baghdad, Iraq
전화	+964 66 225 2048(Ext 7320)
팩스	+44 20 710 6648
이메일	rayan.bahnan@ifpiraq.com
행사명	Iraq HVAC Expo
행사기간	2017년 9월 14~17일
행사장소	Erbil International Fair Ground, Erbil, Iraq
전화	+90 212 273 1818
팩스	+90 212 273 1819
이메일	info@iraqhvacexpo.com
행사명	Basrah Oil and Gas Conference & Exhibition
행사기간	2017년 12월 5~7일
행사장소	Basrah International Fair Ground, Basrah, Iraq
전화	+90 212 356 0056
팩스	+90 212 256 0096
행사명	Medicare Iraq
행사기간	2017년
행사장소	Erbil International Fair Ground, Erbil, Iraq
전화	+964 66 225 2048(Ext 7320)
팩스	+44 20 7106688
이메일	rayan.bahnan@ifpiraq.com
행사명	Erbil International Fair
행사기간	2017년 10월 23~26일
행사장소	Erbil International Fair Ground, Iraq
전화	+961 (5) 959 1111(Ext 172)
팩스	+961 (5) 955 361
이메일	is@ifpexpo.com
행사명	Erbil Autoshow
행사기간	2017년 10월 26~30일
행사장소	Erbil International Fair Ground, Baghdad, Iraq
전화	+90 216 575 28 28(PBX)
팩스	+90 216 575 11 01
이메일	info@pyramidsfair.com

나. KOTRA 주최 전시일정: 2017년 중 없음

14. 수출 성공·실패사례

가. 세계 일류상품 및 히든 챔피언 등

아랍의 민주화 물결인 '아랍의 봄' 민중 봉기로 인한 사회 불안이 가중되면서 이라크에서도 중심으로 방탄차량 사업이 호황을 맞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캐나다의 '인카스(INKAS)', 영국의 '잔켈(Jankel)', 독일의 '트란제코(Transec)' 등 방탄차량 제조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들이 만드는 방탄차량은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총탄뿐 아니라 수류탄 공격에도 끄떡없으며 일부 차량에는 공격용 무기까지 장착한 거의 장갑차에 가까운 수준이다. 최근 고위급 인사의 호위를 위해 구매된 특수 방탄 차량은 무게가 수 톤에 이르고 방어 무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화학 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내부 산소가 공급된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진정 국면으로 접었지만 '아랍의 봄' 이후 사회불안으로 방탄차량 판매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군사전문분석기관 IHS제인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삭감되면서 기존의 군용차량은 연간 4% 이상 위축됐다. 하지만 무장차량과 소형무기와 수류탄 공격에도 끄떡없는 리무진 차량 사업은 계속 확장세다. 이에 따라 후발주자로서 메르세데스 벤츠, BMW, 재규어 랜드로버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자체적으로 방탄차량 제작에 나섰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한창일 무렵에도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에서는 12개 이상의 회사들이 영업 활동을 벌였다. 업계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한 달에 생산하는 차량이 400대에 달한다. 이들 방탄차량 제조업체의 최대 고객은 석유업체들을 비롯한 다국적기업으로 이들이 방탄차량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방탄차량을 갖추면 보험료를 끌어내리기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나. 주재국별 진출 한국기업 수출 성공사례

L전자 TV와 에어컨, 세탁기, 모니터는 이라크에서 40%가 넘는 시장점유율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특히 L전자가 만든 LCD TV와 에어컨은 현지에서 부의 상징으로 꼽힐 정도다. L전자 마크를 모방한 중국산 가짜 제품까지 나올 정도다. 쿠르드어 지원 핸드폰, 이라크 전용 에어컨 등 현지 적합형 제품을 내놓은 것도 L전자의 성공요인 중 하나다. 여기에 치안 문제로 사후 서비스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 이동식 A/S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창의적 사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L전자의 이라크 지사는 수도 바그다드와 북부 쿠르드 지역의 아르빌, 요르단 암만 3곳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평소에는 이라크 출신 L전자 직원들이 재택근무 형태로 사무실을 운영한다. 2년 내 이라크에서 종합 시장점유율과 선호도 5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이라크 내 최고의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다. 주재국 진출 한국기업 및 외국기업 실패사례 등

지난 2008년 6월 한국석유공사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유전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공항과 병원 등 21억 달러 상당의 SOC 건설 사업을 지원하는 대신 5개 광구의 석유 개발권을 넘겨받는 등 파격적 조건이었다. 특히, 석유 개발이 실패해도 6,500만 배럴의 원유를 보장하는 파격적인 내용으로 자원 외교의 첫 결실로 평가받던 사례였지만 5개 중 3곳의 원유 매장량이 1년에 최대 35만 배럴 수준에 그치는 등 석유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쿠르드 정부는 2010년 보장 원유 6,500만 배럴 중 3,700만 배럴을 다른 광구에서 보장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석유공사는 12월 MOU를 체결했으나 4개월 뒤 쿠르드 정부는 MOU 체결 당시에는 없었던 1조 9000억 원에 달하는 1,600만

배럴을 법인세로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로 인해 MOU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보장받았던 원유마저 손해를 입게 됐다.

15. 수출 시 애로사항

가. 일반적인 애로사항

한국기업의 이라크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의 대부분은 직접 방문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대표적으로 기업을 상대로 한 사기 및 현지 에이전트를 고용하지 않고서는 통관조차 수개월이 걸리는 등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빈도 수가 높고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유형인 기업 상대 사기는 최근 한국기업의 진출이 성행하면서 동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라크에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이메일 사기 또는 이라크 내에서 활동중인 상대로 한 계약사기가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대부분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업체가 이라크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현지 에이전트를 고용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횡령하거나 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가 빈번하다.

이라크측 인사로부터 의심이 가는 이메일이나 서한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KOTRA 바그다드 무역관을 통해 업체의 존재여부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014년 이후 ISIL 반군사태 등으로 인해 정정이 불안해지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기는 추세다. 이라크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해 현금흐름상의 문제를 겪으면서 정부의 대금지급 역시 꼼꼼히 살펴야 할 요소다.

나. 분쟁 해결절차

이라크 내 사업 관련 사기사건이 발생할 경우 타국에서 범용적으로 진행하는 사기사건 초동 대응 방식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라크에서 한국업체를 대상으로 사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검거율이 매우 낮고, 검거 시에도 손해액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바그다드 무역관에 사전 의뢰하는 것이 무역사기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 무역사기 대응방법에 대한 KOTRA 무역사기 대응법을 소개한다.

무역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서, 송금내역서 등 사기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우선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한다. 합의되지 않은 계약 내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내 또는 현지 로펌 등을 통해 계약 취소를 통지하는 한편, 거래 외국환 은행에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을 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수출대금 회수 불이행 수출대금을 회수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거나 계약 불이행 발생 시 바이어에게 대금 지불 및 계약이행을 요청한다. 바이어의 대응이 불성실하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계약서에 의거한 손해배상청구 의사를 담은 서면을 발송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미래신용정보, 서울신용정보, 한신정신용정보 등의 해외채권회수 전문기관을 활용하면 일정액의 수수료 및 성공보수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미회수 채권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다. 유형별 분쟁 사례

최근 한화의 이라크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이후 한국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주로, 계약서를 사칭, 계약 체결 위한 회사 등록비나 체결을 위한 수수료 등 주로 몇 천 달러에서 몇 만 달러 수준의 금액을 갈취한다. 이라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다.

입찰 또는 계약 가장 부대비용 부담 요구

대규모 정부조달 프로젝트 등을 빙자해 정부나 공공기관을 직접 사칭하거나 정부 프로젝트 수행사 또는 에이전트 등으로 가장해 금융기관 등록비용, 변호사 비용, 계약금, 공증비용, 컨설팅 비용, 커미션 등의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사례이다.

신용장, 송금증, 수표 등 위조

정상적인 무역거래로 위장하고 현지 은행과 결탁 등을 통해 위조·부도수표 등을 발행하거나, 수출업체가 바이어로부터 대금지불 관련 증명을 이메일 등으로 수신하고 난 후 그 진위여부 확인에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이다.

현지 방문 또는 국내 초청 유도

거래 의사가 없으나 현지 계약서 서명 등을 가장해 현지 방문을 유도한 후, 호텔 예약수수료 편취, 항공 또는 현지 유력인사 접대 선물 등을 강요하는 수법으로 심하게는 납치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역으로 국내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초청장을 요구하고 비자만 챙겨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화물 인수 및 대금 지불 회피

가격할인이나 결제기한 연장을 목적으로 제품 또는 서류·신용장상의 미미한 하자를 트집 잡아 화물 인수와 대금 지불을 거부하는 수법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으로 인해 꾸준히 거래해오던 업체와의 사이에서도 빈발하고 있는 사례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일반적인 사기수법으로 이라크 재건국 (IRAQ RECONSTRUCTION DEPT)이나 이라크 보건부, 고등교육과학기술부 혹은 총리실 등을 사칭한 이메일로 허위 작성한 정부 구매 계약희망서를 송부한다. 한국업체 반응 시 구매계약서 체결을 제의한다. 이들 사기 수업은 대부분 이메일을 통한 서신만으로 진행되며 전화 연락처 공개는 하지만 대부분 응답 없는 번호이다.

유의사항

이라크 정부 구매물자는 모두 부처별 공식적인 입찰절차를 통해 구매하므로 선구매를 제안하는 경우는 허위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으며, 일반 바이어들도 대부분이 중동 인근국가에서 물품을 조달하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구매 제의를 하는 경우는 없다. 사전 구매의사를 타진하는 경우 이라크 재건이나 정부 구매물자를 언급하는 이메일은 무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판단이 모호한 연락에 대해서는 현지 소재 무역관에 사전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일반환경

개황

이라크는 자원 보유 대국으로 원유 매장량이 1,410억 배럴로 세계 5위이며 천연가스도 서부를 중심으로 3조 1,700억 m³ 규모가 매장된 천연가스 부국이기도 하다. 이라크 정부는 2003년 미국과의 전쟁 이후 중동지역에서는 비교적 폭넓은 투자 개방정책을 채택해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고 노력 중이다. 종전 이후 미 군정 지배 하에서 이라크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허용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등 이전의 외국인투자 제한 정책에서 투자유치 개방정책으로 전면 전환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과 동등 대우를 부여하고, 외국인의 단독 투자, 이라크 투자자와 공동 출자 등을 허용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사 설치, 과실송금, 기타 영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활동도 허용했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2006년 8월 중앙정부와 별도로 독자적인 투자법을 제정해 개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여건을 조성했으며, 이라크 중앙정부도 2006년 12월 투자법을 제정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라크는 1980~1988년(8년)에 걸친 이란과의 전쟁, 쿠웨이트 전쟁(걸프전) 및 전쟁 이후 12년간의 유엔 경제 제재,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및 이후 저항세력의 테러 등으로 산업 시설이 크게 파괴되고 노후화돼 개발 수요가 매우 큰 편이다. 종전 이후 미국 주도로 재건사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진전사항에도 불구하고 테러에 따른 치안불안으로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아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기업들은 대부분 원유 등 자원 개발 분야에 대해서만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 분야는 이라크 정부에서 철저히 통제하고, 모든 자원을 국유화하고 있어서 단순 서비스계약 이외에는 외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투자법 시행을 담보하는 하위 법령도 제정되지 않았고 투자 지원체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종파 간 분쟁, 테러 등 치안이 여전히 불안해 외국기업들의 투자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아무래도 정정불안이다. 2003년 미국의 점령에 대항하는 수니·시아 무슬림의 봉기, 그 뒤를 이은 종파분쟁에 이어 2014년 ISIL 반군에 이르기까지 이라크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여건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취약한 인프라 및 제도 여건, 관료들의 부정부패 등은 이라크의 경제개발을 가로 막는 가장 커다란 걸림돌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라크 국회에서 석유법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이라크 투자환경의 주요 결정 요인이다. 특히 쿠르드 지방정부와 공동 석유개발 계약을 체결하려는 외국 석유기업에게는 이라크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이 투자 결정의 주요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환경 변화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치하에서는 비(非) 아랍계 국민들의 경우 민간 투자를 일체 허용하지 않았고 이라크 헌법에도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다. 다만, 비 아랍계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정부와 계약을 맺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라크 회사와 합작투자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출자는 할 수 없도록 규제해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통제했다. 이라크전 종전(2003년 5월 1일) 이후 미 군정 지배하에서 이라크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허용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등 이전의 통제 일변도 정책에서 적극적인 유치 정책으로 전환했다. 2003년 9월 19일 연합국 임시행정처(CPA) 행정명령 39호로 공표된 외국인 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천연자원 채굴 및 1차 가공(primary extraction and initial processing)을 포함한 천연자원 분야, 부동산 매매 등을 제외한 모든 경제부문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투자명령 하에서는 외국인이 이라크 투자자와의 공동출자는 물론 100% 단독 투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지사 설치, 과실송금이나 그밖에 영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다만, 동 법은 금융 및 보험업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이들 업종은 별도로 정한 법률에 의해 조건부 투자 허용 대상이었다. CPA로부터 행정을 이양 받은 이라크 정부의 투자법 제정과 관련, 2006년 8월 쿠르드 자치정부가 먼저 신 투자법안을 마련했으며 뒤를 이어 중앙정부도 2006년 12월 새로운 투자법을 제정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했다. 이라크의 경제성장 잠재력, 소비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수익률이 인근 중동국가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적으로는 정정 및 치안 불안이 개선되지 않아 외국인의 실제 투자는 거의 석유부문을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나. 투자국의 지리적 이점

이라크 접경 인근 중동국가는 총 6개국으로 국경선의 총 길이는 3,631km인데 이 중 이란과의 국경선 길이가 1,458km, 요르단과 181km, 쿠웨이트와 242km, 사우디아라비아와 814km, 시리아와 605km, 터키와 331km로서 인근 중동국 간의 교역의 거점으로서 입지해 있다. 해안선의 총 길이는 58km로 해상 무역항으로 사용되는 움카스르 항의 경우 주변 국가와 인접해 있어 해상 무역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 사업여건

투자 매력도

투자를 자율화하고 기업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신 투자법이 2006년 12월 의회를 통과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기본 틀을 갖추었다. 특히 각종 규제 철폐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민간 제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비즈니스 여건(투자매력도) 2016년 조사(Doing Business Survey)에서 이라크는 189개국 중에서 160위를 차지했다. 이는 인근 중동국가에 비해서도 최하위 수준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코자 하는 이라크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의 비즈니스 여건은 그리 매력적이지 못하는 것을 시사한다. 건설허가 등의 측면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신속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취득했지만, 국경간의 무역, 파산처리제도, 신용획득 등의 차원에서 이라크는 여타국 대비 하위에 처해있다.

이라크 산업광물부는 200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일환으로 2007년 1월에 60개의 국영기업을 외국투자유치를 통해 정상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2008년 4월에는 두바이에서 산업광물부 주최로 'Investing in Iraq's Industrial Sectors-Public & Mixed'를 개최해 석유화학, 식품 및 제약, 건설, 엔지니어링, 섬유 등 6 개 분야의 45개 국영기업에 대한 합작투자 유치를 추진했지만, 이 중 3개 국영기업의 합작투자만 일부 성사되는 등 실질적인 민영화 성과는 매우 미흡한 수준

에 그치고 있다. 이라크는 정정 및 치안 불안 등으로 투자 리스크가 아직도 높기 때문에 투자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나, 북부 쿠르드 지역이 비교적 안전하고 이동 시 치안상 문제가 적은 지역이며 개발수요가 높아 상하수도, 주택건설,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추진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정부의 투자정책 및 외국인우대 정책

제2차 이라크 침공 종전 이후 연합국 임시 행정처는 CPA 명령 39호(2003년 9월 19일)에 의거, 종전의 투자 관련법 조항을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투자 명령을 공포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정책을 추진했다. 이 명령에 의해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됐으며 외국인이 100% 투자할 수도 있게 됐고, 이라크 투자자와 공동 출자도 가능하게 됐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사를 설치할 수도 있고 과실 송금이나 그밖에 영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되면서 인근 중동 국가보다 유리한 투자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열의 및 지원

2006년 5월 정식 출범한 현 정부는 2006년 말까지 이라크 내 각종 재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대부분의 자금원 역할을 해왔던 미국정부의 재건자금 집행이 만료됨에 따라, 재건 프로젝트와 신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원활한 자금 조달이 시급하게 됐다. 전쟁에 따른 원유 채굴 시설의 파괴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건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인근 아랍국가들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는 새로운 투자법을 제정해, 2006년 10월 국회 통과를 거친 후 2006년 12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했다. 이 투자법에는 인근 중동국가의 투자 정책에 비해 진보된 시장개방 조치를 담고 있지만, 투자법의 집행을 보장할 하위 법령의 제정, 투자 관련 기관의 설립,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 등 투자법의 집행과 지원을 위한 기반은 아직도 취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013년 두바이 회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 장려를 위한 여러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실제로 외국인 비자 문제를 개선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 하반기 이후 국제적 저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라크 정부의 비석유 산업분야 부흥에 대한 관심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서, 향후 외국인투자여건 개선과 관련 귀추가 주목된다.

세관, 세무, 노동관청의 행정 투명도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지도 순위(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와 관련, 이라크는 2015년 조사에서 전체 175개국 중 161위를 차지했다. 전년(170위)에 비해서는 나아진 성적이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패도는 아직 높다.

라. 국가투자위험도

OECD 평가 2013년 최저 등급을 지속하고 있다(OECD는 1996년 이래 지금까지 이라크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3월 평가회의에서도 7등급을 부여). S&P, Moody's, Fitch는 아직 이라크에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투자법의 시행을 담보하는 하위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고, 투자지원체제 준비 중으로 제도적 기반이 미정착돼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종파 분쟁, 테러 등 치안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 투자유치 기관

중앙정부에서 무역부(Ministry of Trade)가 투자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투자법에 의거 수상 직속기관으로 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가 2007년 11월 설립돼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자프주, 바빌주, 바스라주, 살라아딘주 등 지방정부도 주 투자위원회를 설립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의 투자기관은 아직 내부 조직이 정비되지 않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부 쿠르드 지방정부에는 2006년 8월 제정된 자체 투자법에 의해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가 구성돼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투자지원 주 조직은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National Authority of Investment)로서 정부 직제체계 속에서는 총리 직속기관으로 배치돼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5년 임기, 내각 추천으로 국회 승인)이 관할하며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9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주로 국가 투자정책 기획, 투자규제 조치, 투자규제 감독, 연방정부의 전략적 투자프로젝트 담당하며 각 지역 또는 주정부에서는 별도의 지역과 주의 투자부서 대표자가 임명된다.

- 지역 투자청(Territorial Authority): 지역 정부의 투자 승인과 투자 기획 담당
- 주 투자청(Governorate Authority): 주정부 내 투자 관련 부서

바. 투자 장려 분야

이라크 정부로부터 특별히 지정된 투자 장려 분야는 없다.

사. 제한 및 금지 분야

소매 분야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기간 동안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이라크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과 채굴 분야는 제정 중인 석유법으로 규율을 만들어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은행업과 보험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아. 투자 유치 정책 및 전망

2007년 11월 정부는 국가투자위원회를 설립하고 주정부별로 투자위원회를 설치해 투자 관련 조직을 정비했고, 2009년 11월에는 주택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토지 소유를 허가하는 등 투자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외국인에 의한 토지 소유 조건은 여전히 까다롭고, 주택사업을 제외한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를 불허한다. 특히, 현지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공동 명의로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만이 허용되기 때문에 해외자본 100%에 의한 투자는 2013년 9월 기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잠재적 투자 가능성이 있는 기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2009년에 10개 유전지역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고, 12개 유전지역에 대한 추가 입찰을 계획하고 있는 등 원유 및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원유 탐사 사업 건에 한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의 파격적 조건을 제시해 해외 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2014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재정수입 악화를 경험하고 있어, 비석유 산업다각화를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향후 ISIL가 이라크에서 퇴출된 후 석유부문 이외 분야에서 이라크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투자 인센티브제도

가. 해당 국가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지급내역

조세감면

외국 투자기업에는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며, 합작법인일 경우 이라크 파트너의 지분이 50% 초과 시 이라크 파트너의 지분이 늘어남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준다. 그러나 프로젝트 자산을 이라크 법에 반해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세금(관세 포함)을 추징하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 프로젝트용 수입 자산이 투자 승인 후 3년 내에 수입될 경우 해당 자산의 수입관세를 면제해주며, 투자 프로젝트의 확대를 위해 수입한 자산은 위원회에 신고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수입할 경우 해당 관세를 면제해준다. 또한 투자자산 가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도 수입관세를 면제해준다.

고용보조금

이라크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 보조금 지급 제도가 없다.

국책 R&D 지원사업 선정 등

R&D 지원 정책은 여전히 논의 중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나. 해당 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이라크 정부가 지원사업 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정식 사업 등록 절차를 거친 외국기업에 한해 각종 조세 특혜를 제공한다. 이라크에서의 인센티브 지급 유형은 건별 협상에 따라 결정되며, 지급 규모 결정에 가장 평가 요소는 정부 추진 핵심사업 여부, 공익 증진성, 외자 지분 비율 등이다. 이라크에서 외자에 의한 사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신투자법 또는 외자 유치제도 등을 도입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목표 시기 내 경제 개발 목표 달성이다. 자국의 해외 금융능력 부족과 기술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력 및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 해외 기업을 적극 유치해 추진 계획 달성률을 안정적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 투자 인센티브 지급절차

해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절차는 특별히 마련돼 있지 않으며 정식 등록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조세 혜택은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을 삭감하거나 과세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된다.

라. 투자 인센티브 적용사례

한국 투자기업 사례

한국기업으로서는 한국가스공사와 석유공사가 이라크 내 석유·가스 개발을 목적으로 투자진출한 바 있다. 이 밖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이 이라크 내에 지사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한화건설의 경우 현장 인근에 Prefabricated Concrete 공장을 신설하면서, 상기 투자인센티브 등을 받았다.

외국 투자기업 사례

이라크 내 투자 주류국가는 인근 중동국가이고 일부 미국계 기업이 포함된 경우가 있지만 모두 인센티브 적용사례와는 관련이 없거나 미미하다.

3. 외국인 투자동향

가. 외국인 투자 통계, 업종별

이라크는 2003년 전쟁 이전에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2006년 12월 투자법 제정 등 본격적인 투자유치제도의 준비가 이루어졌다. 만성적인 치안 불안 등 투자자금 회수 위험이 높기는 하지만, 원유 탐사 및 채굴과 관련, 꾸준한 외국인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미군 점령 직후인 2004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라크 연도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882	3,400	5,131	4,782	3,469

자료원: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6

석유 부문에는 쿠르드 지역의 유전개발에 외국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석유 공사를 비롯해 노르웨이의 DNO사, 미국의 Hunt Oil사, 캐나다의 Heritage사, 프랑스의 Perenco사 등이 쿠르드 지방 정부와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며, DNO사는 발굴을 끝내고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금융업 부문에는 영국의 Standard Chartered Bank, HSBC Holdings, 쿠웨이트의 National Bank of Kuwait, 요르단의 Arab Bank, 바레인의 Ahli United Bank, 레바논의 Byblos Bank 등이 영업 허가를 얻었으나 치안을 이유로 이 중에서 Byblos Bank만 쿠르드의 아르빌에 지점을 개설, 영업하고 있으며 나머지 은행들은 진출을 주저하고 있다. HSBC와 National Bank of Kuwait는 이라크의 민간은행인 Dares-Salaam Bank, Credit Bank of Iraq 등의 지분을 인수해 금융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미국의 S.J.C.O Co.가 쿠르드 지역 도훅의 시멘트 공장에 투자하고 있으며, Yuniss Shabo Nunu사가 도훅에 가스통 생산 공장에 투자하고 있다. 관광업 부문에는 레바논의 Malya Al Qabidha사가 쿠르드 지역의 아르빌에 호텔에 투자하고 있다. 농업 부문에는 UAE의 Bn Khalid Trading Group이 도훅에서 농산물 생산에 투자 진출하고 있다. 이외 무역업 부문에 미국의 American(azku) Co.사와 레바논의 Alwarida Co.사가 쿠르드의 아르빌에서 지사를 설립해 영업 중이다.

나. 지역별 투자 동향

외국인 기업의 대이라크 투자는 거의 오일가스와 운송 및 주택 분야에 집중돼 있고 미국과 터키, UAE 등이 주류를 이룬다. 지역별로는 바스라와 바그다드에 대한 투자가 60%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주요 외국 투자기업 소개

이라크 최대 인기분야인 석유탐사 및 채굴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명	국적	유전	진출시기
Bashneft	러시아	Block 12, Najaf, Muthana	2012
BP	영국	Rumalia, Basrah	2009
		Kirkuk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CNOOC)	중국	Maysan	2010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CNPC)	중국	Ahdab, Wassit	2008
		Maysan	2009
		Basra	2009
Dragon Oil	아랍에미리트	Block 9, Basrah	2014
Egyptian General Petroleum Corporation(EGPC)	이집트	Block 9, Basrah	2014
Eni	이태리	Zubair, Basrah	2010
ExxonMobil	미국	West Qurna I, Basrah	2009
		Bashiqqa, al-Qush, Arbat East, Betwata, Pirmam, Qara Hanjeer, Kurdistan	2012
Occidental Petroleum	미국	Zubair, Basrah	
Gazprom	러시아	Badrah, Wassit	2009
		Garmian, Shakal, Kurdistan	
Inpex	일본	Block 10, Muthana, Dhi Qar	2012
Japan Petroleum Exploration Company(Japex)	일본	Garraf, Dhi Qar	2009
Kogas(Korea Gas Corporation)	한국	Akkas, Anbar	2011
		Badra, Wassit	
		Mansuriya, Diyala	2010
		Zubair, Basra	
Kuwait Energy(KEC)	쿠웨이트	Mansuriya, Diyala	
		Siba, Basra	2010
		Block 9, Basra	
Lukoil	러시아	West Qurna 2, Basra	2009
		Block 10, Muthana, Dhi Qar	2012
Pakistan Petroleum	파키스탄	Block 8, Middle Iraq (East of Baquba, Baghdad)	2012

Petronas	말레이시아	Majnoon	2009
		Badra	
		Garraf	
		Halfaya	
Premier Oil	영국	Block 12, Najaf, Muthana	2012
Shell	영국·네덜란드	Majnoon, Basrah, Maysan	
		West Qurna I, Basra	
Total	프랑스	Halfaya	
		Baranan, Harir, Safen, Taza Kurdistan	2012, 2013
TPAO	터키	Badra	

자료원 : KOTRA 자체조사

이 밖에도 발전소, 석유시설 등 플랜트 분야에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이 진출해 있으며서구에서도 Siemens, Alstom, GE 등이 진출해 이라크에서 활동 중이다.

4. 한국기업 투자동향

가. 일반 현황 및 특징

개요

이라크 치안 악화와 테러, 우리 정부의 이라크 여행금지 조치로 2006년 말까지 이라크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전무했다. LG전자,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이 현지인 관리 체제를 유지해 왔고 LG전자가 쿠르디스탄의 수도 아르빌에 한국 직원을 파견한 상태이다.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쿠르드 지역에 먼저 일부 우리 기업들이 2006년부터 진출하기 시작했고, 유전 개발, 국제공항 위탁운영, 서민주택 건설, 병원 건설 등의 분야 업무를 추진해왔다. 이라크시장에서 에어컨, LCD TV 등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LG전자도 2006년 12월 최초로 정식 지사를 개설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쿠르드 지역을 제외한 이라크의 대부분 지역은 테러, 납치 등으로 외국인의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한국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진출 현황

현지 치안 상황으로 인해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쿠르드 지역에는 우리 기업 6개사가 진출해 있고, 그동안 열악한 치안사정으로 진출이 부진했던 바그다드 지역에는 2011년부터 시작, 4개사가 사무실을 개설했다. 바그다드에는 현지 발전설비 건설 등을 추진 중인 STX중공업이 2011년 1월에 우리 기업 최초로 바그다드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3명의 한국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유전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가스공사도 2010년 12월에 바그다드에 사무실을 개설, 운영 중이다.

2012년 6월, 한화가 80억 달러의 대규모 비스마야 주택건설 사업을 수주해, 한화건설이 진출했고 2012년 9월 그 외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총 12개 건설업체들이 바그다드와 바스라에 진출했다. 2012년 쿠르드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포스코건설이 발전소를 수주, 지사를 2012년 10월 오픈했고 쌍용건설도 일본 자이카 자금으로 발주된 상수도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 9월 지사를 설립했다.

2012년 2월, 삼성엔지니어링이 러시아 국영천연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이 발주한 이라크 바드라GSP(Gas Separate Plant) 플랜트의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수주금액은 약 8억 8,000만 달러(약 9,600억 원)다. 동 프로젝트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160km 떨어진 와싯 지역의 바드라 유전단지에서 2억 ft³규모의 가스정제설비와 발전·저장탱크 등 유틸리티 기반시설(U&O)을 건설하는 공사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35개월간 설계와 조달, 공사에서 시운전까지 일괄 턴키 방식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2013년 4월에는 LS산전이 이라크 정부가 발주한 132kV/33kV GIS(가스절연개폐장치) 변전소 프로젝트 4개 구축 사업에 대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총 금액은 4,580만 달러(한화 약 504억 원)로 LS산전이 단일 GIS 변전소 프로젝트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2014년에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 SK가 조인트벤처로 이라크 석유부의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약 60억 달러에 수주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대 ISIL 전투와 저유가로 인한 이라크 정부의 재정난으로 많은 프로젝트들의 대금지불이 지연돼 공사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며, 신규 프로젝트도 투자프로젝트로 진행이 돼 2016년도에는 이라크에서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수주한 프로젝트가 없는 상황이다.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이라크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은 2016년 5월 기준 총 97개사(하청 포함)로 179건 약 348억 달러 수주를 기록했다.

나. 우리 기업 투자 통계 현황

한국은 신변 안전의 위협 및 투자금 회수에 관한 불안으로 인해 무역을 제외한 이라크 내에서의 투자 활동은 전무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1월 NIC 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지난 2013년 4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이라크 내 투자 사업 활동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라크 산업부에서 발표한 신규 투자 개발 프로젝트 중 우리나라 업체의 투자 경험치가 많은 시멘트 산업은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 2014년부터 계획된 산업부 주무하 시멘트 생산설비 재건 프로젝트가 키루쿠, 모술, 나자프, 무다나, 디와니아, 바그다드, 마지드, 디왈라, 알 푸랏 등에 계획 중이다.

한국의 대이라크 투자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07	4	2	1,250	5	253
2008	4	0	3,715,000	0	0
2009	10	5	32,068	31	55,425
2010	16	0	343	33	36,021
2011	13	1	869	33	88,348
2012	11	0	3,585	13	12,315

2013	19	2	612	21	39,536
2014	14	1	1,041	23	98,128
2015	4	2	379	12	23,548
2016	3	0	600	8	8,790
합계	105	16	3,756,815	183	364,884

자료원: 수출입은행(2016년 12월 기준)

5. 한국기업 진출 현황

이라크 진출기업(쿠르드 제외)

기업명	지역	프로젝트명
한화건설	비스마야	비스마야 신도시 개발(77억 5,000만 달러), 비스마야 기반시설(21억 달러)
STX 중공업	바그다드, 미산, 바스라 디와니아, 베이지	총 900MW 디젤발전소(10억 달러, 완공)
STX 마린서비스	미산, 디와니아	발전소 O&M, 부품판매 및 발전소 투자사업
삼성엔지니어링	바스라, 와시	주베이르(9억 달러), 웨스트 쿠르나(10억 달러) 및 바드라(8억 8,000만 달러) 유전 가스처리 플랜트
LS산전	바그다드, 나시리아	변전소 건설(2억 7,000만 달러)
효성중공업	디와니아, 사마와	변전소 건설(1억 3,000만 달러)
한국가스공사	바그다드, 바스라	아카스 가스전(지분 100%), 만수리아 가스전(20%), 주베이르 유전(25%), 바드라 유전(30%)
현대엔지니어링	바그다드, 바스라	총 2,000MW가스터빈 발전소 건설, 카르발라 정유소 건설 추진(현대건설 컨소시엄 일원)
현대건설	바그다드, 카르발라	프로젝트 수주활동, 카르발라 정유소 건설 추진(60억 달러, 컨소시엄 리더)
GS건설	바그다드, 카르발라	프로젝트 수주활동, 카르발라 정유소 건설 추진(60억 달러, 컨소시엄 일원)
실드 컨설팅	바그다드	한국업체 대상 경호제공
코이카	바그다드	무상원조 사업
코트라	바그다드	무역투자 지원

자료원: KOTRA

쿠르드 진출기업

기업명	지역	프로젝트명
코이카	아르빌	이라크 무상협력사업

기업명	지역	프로젝트명
한국석유공사	아르빌	쿠르드 바지안 광구 유전개발
인천국제공항	아르빌	아르빌 국제공항 운영 지원사업
한국가스공사	아르빌	키르쿠크-베이지 배관공사
LG전자	아르빌	전자제품 판매
삼희건설	술레마니	KOICA 시범 학교 건립 사업
쌍용건설	할랍자	상수도 개선 프로젝트
포스코 E&C	아르빌	카бат 발전소·바지안 변전소 공사 사업

자료원: KOTRA

6.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법 개요

목적

이라크 발전에 기여하는 현대적 기술 이전과 투자 촉진하고 투자 프로젝트 달성에 필요한 시설 공여로 외국 투자와 이라크 민간부문 지원, 국내외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촉진한다. 특히, 시장요구에 부합하는 인적 자원 개발 및 이라크인에게 고용기회 제공하고 투자자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해 수출 증대 및 이라크 무역수지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수단

특혜 조치와 경쟁력 증진 지원 조치 및 각종 관세와 각종 세제의 면제, 부가적 혜택을 제공한다.

절차

- 투자 신청서 접수 후 45일 이내 허가 결정
- 단, 투자 금액이 25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내각의 승인 필요
- 구비 서류
 - 소정 신청서(application form prepared by the Authority)
 - 은행의 재정보증(Financial guaranty from an accredited bank)
 - 투자자의 기 투자프로젝트(Projects undertaken by the investor in or outside Iraq)
 - 투자프로젝트의 명세서와 경제 효과(Details of the project to invest in and its economic usefulness)
 - 프로젝트 추진 일정(Schedule fo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투자자에 대한 혜택과 권한

- 국적에 관계없이 동등한 특혜 부여
- 투자목적의 외국인 토지 보유 허용

- 투자 프로젝트 존속기간 동안(50년 이내, 위원회 승인 하에 연장 가능)
- 외국인의 토지 임차 허용
- 투자 자본 반입과 과실 송금 허용(투자법과 이라크 중앙은행의 규정)
- 이라크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주식과 채권 거래, 주식과 채권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국내외 보험회사의 투자 프로젝트 참여 가능
- 보험, 국내외 은행에 이라크 디나르화 외국환 계좌 개설 보장
- 투자 프로젝트에 적합한 이라크 근로자 없을 경우, 외국 근로자 채용
- 투자가와 관련 근로자의 이라크 체재 및 출입국 허가
- 법원 판결 없이 투자 프로젝트의 국유화, 몰수 금지
- 투자법상의 보장, 면제와 권리들에 대한 소급 적용 배제

투자가의 의무

- 투자 자산의 도입과 설치, 프로젝트의 사업 시기 등 신고
- 이라크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 받는 상설 계좌 보유
- 프로젝트의 경제 및 기술적 혜택 보고서, 위원회 요청 자료와 서류 제출
- 투자 프로젝트용 수입 물자와 면세 물자에 대한 기록 유지
- 환경 보호와 품질관리시스템 준수
- 임금, 면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이라크 법률 준수
-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수행(6개월 이상 지체 시 벌금이나 허가 취소)
- 이라크 근로자 교육 및 훈련, 이라크 근로자 우선 채용 등

7. 투자방식

가. 투자방식

법인, 지사, 지점, 연락사무소

현행 이라크 기업법(Company Law)과 연합국 임시행정청(CPA)의 명령 64호에 의해 설립 가능한 회사 형태는 유한회사(주식회사 포함), 합자회사, 공사 합작회사 등이 있다. 외국투자기업은 이들 회사 형태를 바탕으로 지사, 현지법인, 합작투자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다.

구분	상세 내용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개인과 25인 이하 그룹에 의해 설립되며 출자액 한도 내에서 간접의 유한 책임을 부담하고 최소 자본금은 100만 이라크 디나르 임.
합자회사(joint liability company)	2인 이상 25인 이하의 사원들로 설립되며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됨.
공사합작회사(mixed public and private sector company)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1인 이상 사원들로 설립되며, 공공부문의 지분은 최소한 25% 이상이어야 함.

장·단점

이라크 내에서의 현지 법인 설립은 프로젝트 수주 후 또는 투자 사업 안 정부 승인 후에 가능하다. 특히, 현지 치안 사정상 경호 업체 고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지 법인보다는 연락사무소의 설립을 통한 시장 정보 수집 및 프로젝트 입찰 준비를 하는 것이 총체적 현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다.

나. 투자진출형태

현지 법인

현지 법인은 비즈니스 및 시장조사를 주 목적으로 현지 설립이 가능하다. 외국 기업이 이라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등록하는 것이다. 대표 사무소는 외국 기업이 사업 개발, 시장 조사, 마케팅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라크 현지에서의 현지 법인 설립 및 등록 절차 진행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제출서류는 지점 설립 시 요구되는 서류와 비슷하다. 모든 서류는 아랍어로 작성돼 이라크 기업등록처에 제출돼야 설립 및 등록 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 신청서, 이라크 소재 은행에서 발행한 초기 자본금 예치금 확인서, 지분 투자에 의한 합작회사의 경우, 공동 설립자에 의해 서면 서명 및 기술, 경제성 타당성 평가 기술서 등이 요구된다. 특히, 소매 사업의 경우 이라크 은행이 발행처인 최소 10만달러의 예치금 증명서가 제출돼야 한다. 그러나 이라크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

지사 및 연락사무소의 현지 설립 절차는 현지법인 설립 및 등록과 동일하고,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문서가 추가적으로 제출돼야 한다. 아래 명시된 문서 항목은 통상적인 요구사항이고 사업 내용 및 주무부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설립 신청을 위해 필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한국에서 발급된 모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지사 설립에 대한 모기업의 공증서
- 신청서는 모기업의 레터헤드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 작성돼야 한다.
- 지사 설립 동의서
- 지사설립에 관한 이라크 절차 준수 서약서
- 지사 설립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인원의 이라크 상주 서약서

공장 설립

외국인 투자자가 이라크 내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에 소재한 대표 NIC 사무실에 다음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출서류
 - 각 지방자치 정부 소재 NIC 대표 사무실용 신청서 양식
 - 은행으로부터 발급 받은 재무 안정성 공증서

- 공사 이력서
- 기술 및 경제적 사업 타당도 증명서
- 프로젝트 일정 일람표
 - 관련 서류 제출 후 지방 NIC 사무소에서 중앙 NIC로 15일 내에 승인 신청
 - 적격여부 판별 후 투자자에게 직접 통보
 - 공장 설립 시작 허가 또는 반려

인수합병(M&A)

해외 자본에 의한 인수합병 형태의 사업은 허용하지 않는다.

구비서류

- 신청서
- 본국으로부터 승인 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회사 정관 사본 1부
- 하기 요건을 갖춘 협조공문
 - 이라크 지사 책임자, 법률대리인, 사업자 등록 책임자 인적 사항(3인 모두 이라크에 주소지 보유 필요)
 - 최근 연도 결산자료
 - 등록업종이 소매유통업일 경우 10만 달러 은행 예치 및 증빙자료 제출(등록 승인 후 실제 영업개시 전까지 사후 제출 가능)
 - 본사와 이라크 지사 관련 항목에 기재된 인적사항에 대한 여권(외국인) 또는 신분증(현지인) 사본
 - 본사와 신분증에 명시된 인적 사항은 제출양식 기재내용과 동일 인물이어야 하며 향후 등록과 관련해 회사 등록처에서 신분증 원본 제출 요구 시 이행 의무
 - 기본정보가 포함된 신청서 법인 명 및 업종
 - 상호, 업종, 이라크 주재 사무소 주소
 - 아래 3인의 이라크 내 연락 가능한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 본사의 책임자 서명
 - 이라크 지사장, 법률대리인, 사업자 등록 책임자

8. 진출형태별 절차

가. 사전조사

해외 자본 유치에 위해 지정된 사업이 있으면 참여 희망 투자 프로젝트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투자 프로젝트인지 우선적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또는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립해 해당 지역 내에서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참여 투자 프로젝트가 이러한 해외 투자 자본에 대한 특혜 대상지역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라크에 설립되는 해외 자본 투자 조건 및 지원절차는 세부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명시돼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규정이나 방침이 있더라도 사업 규모, 종류 및 진출기업의 인지도 등에 따라 그 절차를 변

칙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무 정부부처인 투자청 또는 국가투자위원회(NIC) 소속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일반 절차

이라크는 외국기업의 이라크 내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현지법인과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현지법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이라크 내에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무역부 산하 외국기업 등록처(Registrar of Company)에 등록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등록방법 및 절차는 형태별로 상이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된다. 다만 이라크 내에서 소매유통업을 하는 외국기업은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지정은행에 예치해야 하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인출이 가능하다. 외국기업이 이라크 내에 투자를 원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류를 국가투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는 이를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 결과를 통보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대규모 투자 없이 이라크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할 경우에는 외국기업 등록처에 등록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 회사설립절차

1) 연락사무소

외국인은 이라크 무역부에 해외 사무소 설립을 위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한다. 구비 서류를 첨부해 회사 등록처(Registrar of Companies)에 제출한다. 제출 후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 검토
- 신청서 오류 발견 시 신청업체에게 반송
- 신청서 오류가 없을 시 모든 구비서류 접수를 신청업체에 통보
- 접수와 동시에 등록 데이터 입력
- 임시 고유등록번호 배부
- 최종 승인 및 등록 완료

2) 지사, 법인

연락 사무소 설립 절차와 동일하다.

3) 공장 설립

부지 확보

투자 개발 시 해외 기업에 의한 토지 소유가 불가하므로 현지 기업과의 합작회사를 구성해야 한다. 이후 공장 설립용 부지에 대해 소재 주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경우에 따라 관할 정부부처 득허 후 부지 구매 또는 임대계약을 추진한다. 예컨대, 산업부에서 관할 2014년 추진 예정인 시멘트 생산 플랜트 재건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해외 기업은 공장이 설립되는 주정부의 승인 및 산업부 승인을 득허 후 사업 대지에 대한 계약이 가능하다.

임대 계약

공장 설립에 대한 해당 정부부처 및 소재 주정부로부터의 승인을 획득 후에는 합작회사 명의로 공장부지에 대한 임대 또는 구매 계약을 진행한다. 개인 소유의 부지를 대상으로 계약 진행 시 파트너 현지업체를 통한 지주와의 접촉 및 협상이 유리하며, 주정부 소유의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 시에는 그 절차가 보다 간소하다.

건축 절차

투자 등록 및 건축부지 확보가 투자사업의 관건이며, 일단 승인이 완료되거나 토지가 확보된 후에는 한국의 일반 건축절차에 비해 특이사항이 없다.

4) 관련기관 및 세부절차

외국인은 이라크 무역부 장관령 149호 「외국기업의 지사 및 연락사무소 등록(Registration of Branches and Trade Representation Offices by Foreign Companies)」에 의거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회사 등록처에 제출한다. 등록처는 접수 후 10일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며, 승인가준은 무역부 규정을 준수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승인 직후 회사 등록처는 신청업체에게 사업자 등록허가서를 발급한다. 승인된 신청업체는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정식 사업자 허가번호를 취득하고 회사 등록처는 업체등록 내역을 공고하고 현지 일간지에 게재한다. 회사 등록처는 등록허가를 받은 업체들의 내역을 노동부, 예산부 등 관련 부서로 전달한다. 회사 등록처는 등록된 사업자 기본정보를 무역부 사업자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대외 공개한다.

- 사업자 등록 수수료: 건당 20만 이라크 디나르(약 157 달러) 소요
- 신청서 제출 시 등록비의 50% 지불
- 사업자 등록 승인 및 임시번호 부여 시 잔액 50% 지불
- 미승인 시 신청업체는 50% 잔여등록비 지급의무 없음.
- 기 지불한 등록비 50%는 환급 불가

사업자 등록 미승인 시 회사등록처는 신청업체에게 미승인 사유를 신속히 통보해주고 신청업체는 미승인 사유에 대해 30일 내에 이라크 무역부를 상대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에 따른 법적 효력은 사업자 등록 승인일로부터 발효된다.

9.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가. 개요

사업활동 종료 또는 중단으로 인한 투자법인의 철수 및 청산을 위해서는 각 주무 부처로의 신고가 우선돼야 한다. 특히, 외자 법인 철수 및 청산 시에는 내국인의 경우보다 까다로운데,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공관부처 또는 현지 은행으로부터의 공증을 요구하는 것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철수나 청산 신청에도 불구하고 기각돼 정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라크 공관부처 특성상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신청서 작성을 위해 공증서를 발급한 기관에 의뢰해 기각사안에 대한 촉구 레터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그 절차가 간소화되기도 한다.

나. 법인 철수 및 절차

현지 법인 또는 대표사무소의 철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 변호인을 선임해 현지 법인 또는 대표사무소의 추후 절차 진행에 대한 권한을 이임
- 철수 등록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 명시된 기관 중 최소 한곳으로부터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를 발급
 - 소득세부처
 - 통관부처
 - 사회보장부처
 - 이라크 중앙은행(국책은행)
 - 이라크 변호사 협회
 - Al-Rasheed 은행(국책은행)
 - Al-Rafidain 은행(국책은행)
 - (지사의 경우에 한해) 계약이 체결된 담당 부처
 - 이라크 보험사
- 서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현지 법인 철수신청이 완료됨
- 철수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 등록부로부터 발송된 통지문에 대해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함
- 회신 후 최종승인 결과가 통보되는 당일로부터 현지법인은 최종 철수 상태가 됨

다. 철수 관련 법령

당 사안은 이라크 회사 규정 및 법률 159-179항에 의거 진행된다. 추천 현지 법무법인 및 변호사는 아래와 같다.

- Al Rassim Law Firm
 - 전화: + 964 7702855111(바그다드), 962 796287875(암만), 962776438393(암만)
 - 이메일: ghassan@rassimlawfirm.net, ghassan_rassim@yahoo.com
- Israa Alqeshteny
 - 전화: +964 7702525888, 964 7901608840
 - 이메일: avocateisraa@yahoo.com
- Reem Saad Alkhaiat
 - 전화: +964 7901305842, 964 77000249000
 - 이메일: absyking@yahoo.com

- Numan law Firm
 - 전화: +964 7809039777, 964 7702559955, 962 795348005
 - 이메일: namanalnaman@hotmail.com

- Ammar Numan shakir
 - 전화: +964 7901905206
 - 이메일: ammaralnaman@yahoo.com

- Al Najar Law Firm
 - 전화: +964 7903258345
 - 이메일: najar68_20@yahoo.com

추천하는 현지 회계사는 다음과 같다.

- Abdul Baset Ahmed
 - 전화: +964 7901334450, 964 7702987227
 - 이메일: Abasit57@yahoo.com

- Zaki Ghazi Alrazak
 - 전화: +964790198904, 9647808320472
 - 이메일: Zaki.alrazak@yahoo.com

- Ahmed Zaki Alnaime
 - 전화: +96479019160664
 - 이메일: Ahmad_alnaime@yahoo.com

- Saad Abdulmuhaimen
 - 전화: +9647901369304
 - 이메일: saad@sulaimanaudit.com

라. 법인청산 및 절차

현지 법인 또는 대표사무소의 청산 절차는 철수 절차와 동일하다.

마. 청산 관련 법령

당 사안은 이라크 회사 규정 및 법률 159-179항에 의거 진행된다.

10. 투자입지여건

가. 특별경제구역 소개

이라크는 수출자유지역청법(Free Zone Authority Law)을 1998년에 제정해 조세법상 특혜를 부여한 자유무역지역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익과 자본 이득에 대한 모든 조세와 수수료를 면제하고, 지역 내 비 이라크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100% 면제하며, 이라크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면제하고 있다. 지역 내 기업에 대해서는 비 내수용 수출입품에 대해 관세와 기타 조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외국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면 ‘이스라엘 보이콧(Arab Boycott of Israel)’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Khor Al-Zubair Free Zone
 - 이라크 남부 최대 도시인 바스라 인근 40km에 위치
 - 1,000km² 규모로 Al-Zubair항의 항만시설 이용, 걸프만의 물류 중심지
- Ninevah Free Zone
 - 이라크 북부지역 모술 북쪽 20km에 위치
 - 400km² 규모로 터키, 시리아, 요르단과 남부의 바스라항을 도로와 철도로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
- Al-Qa'im Free Zone
 - 이라크 서북부 시리아와 국경지역 도시로 수도인 바그다드로부터 400km 북서쪽에 위치
 - 70km² 규모
- Sulaymaniyah Free Zone
 -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 소재

이 외에도 바그다드로부터 약 500km, 요르단 수도 암만으로부터 약 400km 떨어진 국경 지방인 서부 트레빌(Trebil)에서 이라크 수입상품의 약 40%가 세관을 통과할 정도로 물류 흐름이 많은 곳으로 Vassilevi Bros사는 약 4만 5,000m²의 면적에 2004년 6월부터 10년간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다.

나. 지역별 투자여건

이라크 내에서는 지정된 투자 프로젝트 및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한 그 외 투자지역에서는 해외자본에 의한 투자가 금지돼 있거나 해외자본 유치 개정안에 따르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업이 불가한 경우 대부분이다.

다. 주요 지역별 입지조건

이라크 내에서는 지정된 투자 프로젝트 및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한 그 외 투자 지역에서는 해외자본에 의한 투자가 금지돼 있거나 해외자본 유치 개정안에 따르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업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혜택 보장이 가능 여부와 투자 지원 지역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산업단지 리스트

이라크 정부의 산업단지 육성정책은 명확하지 않으며, 치안여건 불안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없다. 단, 기존 조성된 산업단지 6개 처에 대한 정상화 노력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부 바스라 인근 움까스르 항에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해 제조 및 물류기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란-이라크 국경 샤프알아랍 지역에 신도시 및 산업물류단지를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북부 쿠르드 지역에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없으나, 쿠르드 지방정부에서 투자법을 제정해 쿠르드 지역의 아르빌 내에 드림시티를 건설하고 건설분야 활성화에 치중하고 있다.

이라크 주요 산업공단 현황

연번	공단 지역	위 치	주요 입주업종 내역	비 고
1	Bub Al-sham	바그다드 북동방향 25Km	- 건축자재 - Mechanical - Feeding, adhesives - Plastics products	중규모
2	A'wyreej	바그다드 남동방향 35Km	- Textile - Plastic & fiber - glass products - Gas separation - plant(industrial and healthy) - 자동차부품	국영 공장, 창고 및 워크샵 위주 중규모
3	Al-Nahrawn	바그다드 남서방향 55Km	- Bricks factory - Light industries	중규모
4	Gurref Al-Nadaf	바그다드 북쪽 30Km	- Small Agricultureequipment - Food processing - and beverages - others	소규모
5	Jamilla	바그다드 동쪽 8Km	- Foodstuff & beverages - Textile - Steel products - Construction materials - Chemical products	중규모
6	Bab Al Sheekh	바그다드에서 1Km	- Hand crafts and Small work - shops - Supplementary car industries - Plastic products	공해문제로 환경부에 서 2003년 초 입주업 체들에게 철거 명령을 내린 후 전쟁으로 가 동 중단

자료원: 이라크 기획부, NIC (National Investment Committee)

마. 투자입지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및 특이사항

이라크 내 달러십 체제를 구축할 때 이라크의 아랍계 지역과 쿠르드 지역을 분리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한 시장 개척 방안 중의 하나이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은 이라크 영토이면서도 여타 이라크 영토와는 성격이 판이한 시장이다. 자치 지역의 주요도시인 아르빌, 도후, 술레마니아 등지에서는 아랍어로 된 도로 표지판이나 간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쿠르드족 고유의 쿠르드어를 사용하고 있어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쿠르드 시장을 놓고 터키계와 이라크계가 경쟁관계에 있으며, 이라크 쿠르드 상인을 통하면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뿐 아니라 사실상 터키, 시리아, 이란 일부 지역까지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할 수 있다.

바. 체크 포인트 등

이라크 내 프로젝트 추진 시에도 공사현장과 현장 인력에 대한 경호비용을 고려해서 사전에 원가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11.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가. 일반적인 애로사항

2003년 전쟁 이후 연합국 임시행정처 주도로 이라크 경제는 자유 시장경제체제로 전면 전환 중이며, 수입관세도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5% 단일세율을 적용해 시장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종파 간 분쟁, 테러세력의 준동 등으로 치안이 극도로 불안해 시장 접근에 어려움이 많으며, 보안 경비가 추가되는 등 무역 여건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수출을 FOB 조건으로 체결할 경우 바이어 책임하에 운송이 이루어지나 이라크 항구로의 직접 운송 및 내륙 운송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이라크 내 보안조치에 따른 추가 부대비용이 원가의 최소 30%에서 최대 300%까지 견적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보안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가급적 FOB 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분쟁해결 절차

이라크의 경우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법규의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별도의 기관도 아직 없어 상사 분쟁 시 변호사를 선임해 통상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해결하고 있다. 주요 분쟁사례는 제품하자 및 대금 납부 후 미선적이며, 계약 시 분쟁조항을 반드시 삽입해 중재자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유형별 분쟁사례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미흡해 한국산 가전제품 등 유명 브랜드 제품에 대해 중국산 위조상품이 이라크 내 많이 수입, 판매되고 있으며, 이의 시정을 위해 변호사를 통해 클레임을 제기하고 품질관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나 이라크 정부의 행정력 부족 때문에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라크 정부 발주 프로젝트는 대부분 대금을 외상으로 하고 있다. 이라크 프로젝트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문제로 실제 이라크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라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라크의 재건사업을 빙자한 사기 건이 빈발하고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기 건은 이라크보다도 제3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국제사기꾼일 가능성이 크다. 이라크 정부에서 발주한 납품계약이 성사됐다고 하면서 제3국에서의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리베이트자금 또는 사전 소요자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 건에 대한 판별방법은 우선 거래조건이 사전 현금 지급조건이라고 하는 경우는 사기로 판단해야 한다. 이라크 정부의 조달계약은 제3국 은행 발행 L/C 또는 이라크 국영은행 L/C를 유명은행이 지급 보증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단기간에 바로 계약이 성사됐다고 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기유형이다. 이라크 정부조달은 통상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심 가는 계약 건은 바그다드 무역관에 확인을 요청하면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다.

라. 국별 투자위험도(RISK)

이라크의 치안 불안으로 외국 투자자의 신변 위협이 크고, 정정이 불안해 투자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라크의 낮은 국가신용도로 투자 자금의 회수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피하고 있다. OECD는 1996년 이래 지금까지 이라크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3월 평가회의에서도 7등급을 부여했다. 투자분석 공신기관인 S&P, Moody's, Fitch에서는 이라크에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정도로 이라크를 암묵적 고위험 투자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투자법의 시행을 담보하는 하위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고, 투자지원체제 준비 중으로 제도적 기반이 미정착돼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라크 전쟁 후 격화된 종파 분쟁, 테러 등 치안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2. 노무관리제도

가. 연도별 평균임금, 직종별, 지역별 평균임금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는 2013년 이라크 실업률을 16% 정도로 보고 있는데, 2014년 ISIL 사태 등으로 인해 동 실업률은 부쩍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현지 언론(BasNews)에 따르면 이라크 노동부는 이라크 내 실업률을 25%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처럼 실업률이 높고, 사회전반적인 교육 제도가 낙후되다 보니 미숙련 노동력은 풍부한 편으로, 전문적인 교육이나 경험이 없는 단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500~600달러 수준이다. 반면 고급지식노동자들의 경우, 불안한 정정을 피해서 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시장에서 제대로 구하기가 어렵다. 숙칭 두뇌유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는 정보 부족 및 시스템 미비 등으로 노동시장이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며, 동일한 능력이라도 임금격차가 크다.

최근에는 외국기업의 이라크 진출이 늘어나면서 제한된 인력 범위 내에서 직원을 구해야 하는 외국기업들이 불가피하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무직의 경우 능력 및 구사 언어에 따라 월 700~2,000달러를, 비서직의 경우 800~2,000달러 상당을 지불해야 채용할 수 있다. 이라크 근로

자는 다른 중동국가 근로자에 비해 직무에 대한 충성도와 열의는 높은 편이며 업무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라크는 노동법이 있지만, 노동법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노동계약서는 아랍어로 작성해야 하고, 임금은 이라크 화폐로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이를 준수하는 외국기업은 드물다.

나. 노무관리

임금

현지 피고용인의 임금 민감도는 높은 실업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비전문분야 근로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낮은 월급을 대체할 추가 성과급에 대한 희망도가 높은 편이다. 해외 업체 사무직의 경우, 현지에서의 통역 수단 또는 신변 안전 확보차 고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임금 지급 시 이를 감안한 급여 책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쿠르드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정화 된 곳에서는 안전에 대한 특별 수당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다.

근로시간

이라크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며, 초과근무는 1일 최대 4시간 이내이다.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은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은 회사 자율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최대 200%까지 지급될 수 있다. 민간기업은 9:00~16:00까지 근무하며, 일반 상점은 10:00~17:00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는 치안이 불안해 상가의 개점시간과 회사의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으며, 일부 회사의 경우 신변 안전을 위해 재택근무를 하기도 한다.

휴일과 휴가

유급 휴가는 최대 연간 30일이나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 휴가로 유급 1년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다. 공휴일

2015년 이라크의 정식 공휴일은 다음의 표와 같다. 그러나 종교휴일은 시행여부가 전날에 공식 발표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행일은 그때 가서 종교기구나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폭염이나 홍수가 있을 경우, 정부의 재량에 따라서 임시공휴일이 선포되기도 한다. 정식 공휴일은 아니지만 시야파 종교축일인 40일제(Arbaeen Al Hussein)는 아슈라 40일 후에 시행되는데, 전 세계·전국 각지에서 답지하는 순례행렬 등으로 인해 공휴일로 선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휴일은 아니지만, 이슬람력 라마단월(2015년의 경우 6월 중순~7월 중순)은 노동시간이 단축되며 무하람월(정월, 2015년의 경우 10월 중순~11월 중순)에는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라크 2016년 공휴일

연번	일자	기간	구분
1	1월 1일	1	New Year's Day
2	1월 6일	1	Army Day
3	5월 1일	1	Labor Day
5	7월 7일	3	Eid Al Fitr
6	7월 14일	1	Republic Day

7	9월 13일	4	Eid Al Adha
8	10월 3일	1	National Day
9	10월 3일	1	Muharram(Islamic New Year)
10	10월 12일	1	Ashura
11	12월 12일	1	Prophet's Birthday

해고

노동법에 따라 해고 처리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 노동법 보다는 사내 내규가 우선한다.

퇴직금

- 퇴직금제도: 노동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는 사례는 거의 없음. 대부분 지급 시 노동법 보다는 사내 내규가 우선함.
- 퇴직연금제도: 이라크에는 별도의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돼 있지 않음.

노사협의회

현지 업체의 경우 별도의 노사협의회 조직이 구성돼 있지 않고, 대기업의 경우 존재하더라도 그 역할이 상당히 미미하다.

사회보험제도

- 고용보험: 2003년 전쟁 후 사회보험법이 제정돼 기업이 종업원 급여의 일정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사회보험기구에 납부, 종업원은 퇴직 시 근무 연수에 비례해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음. 최저 지급액은 12만 5,000이라크 디나르
- 산재보험: 이라크에는 별도의 산재보험 제도 없음.

라. 노무관리 유의사항

전후 이라크인들의 외국인 회사 근무 기피 현상이 생겨났는데, 이는 저항세력이 전후 복구에 참가하는 기업, 특히 외국계 회사에 고용돼 있거나, 외국계 회사와 합작으로 전후 복구에 참가하는 기업 직원을 납치, 표적 테러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잦은 외근을 주문하거나 신분 노출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요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예컨대, 외국인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외출 시 휴대전화 수신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신분 노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실업률은 높지만 외국인 회사에 근무하려는 현지인들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민감한 편이다.

13. 조세제도

가. 기업에 대한 세금

기업에 대한 세금과 세율

구분	세율
법인세·지사세	- 일반: 15% - 석유·가스 개발 관련 업종: 35%
자본이득세	- 일반: 15% - 석유·가스 개발 관련 업종: 35%
원천징수(이자·로열티)	15%

자료원: Ernst & Young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이라크는 회사 업종에 따라 상이한 법인 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이 15%에 지나지 않지만, 석유 및 가스 개발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35%를 적용한다. 이는 자산의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자본이득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밖에도 계약가액에 대해서 0.2% 세율로 부과되는 인지대, 연간 자산임대소득에 대한 재산세(건물 9%, 토지2%)가 있다. 또한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세가 있는데, 기업 측은 임금소득의 12%(석유/가스 개발 관련 업종은 25%)를 부담해야 한다.

나. 개인에 대한 세금

이라크 정부는 개인별로 해당 기초 공제액을 공제한 소득액에 3~15%의 차등 세율을 적용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직장이 있는 개인은 급여의 5%를 사회보장세로 내야 한다.

소득세율

월 소득 구분	세율
50만 이라크 디나르 이하	3%
50만~100만 이라크 디나르	5%
100만~200만 이라크 디나르	10%
200만 이라크 디나르 이상	15%

자료원: Ernst & Young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다. 소비세

이라크는 원래 부가가치세나 판매세 등을 징수하지 않았으나, 이라크 정부는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2015년 연방정부예산법에 근거해, 이하 특정 품목에 한해 특별소비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중에도 몇 차례에 걸쳐 시행이 연기된 바 있으며, 8월 1일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무자료 거래가 많은 이라크 사회의 특성상 제대로 시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세율	징수 주기
선불 전화카드, 휴대폰 후불 영수증, 인터넷 사용료	20%	3개월
수입차량	15%	거래 시
항공권(국내·국제선)	15%	3개월
주류	300%	거래 시

자료원: 이라크 국세청

라. 한국과 현지국 간에 체결된 각종협정

- 이중과세방지 협정: 한국과 이라크 간에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협정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 사회보장협정: 한국과 이라크 간에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협정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 투자보장협정 등: 한국과 이라크 간에 투자보장협정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위원장의 2013년 1월 방한 시 양국 간의 투자보장협정에 관한 논의 진행을 요구했고, 한국 측에서도 검토 중이다.

14. 금융제도

가. 개요

이라크 금융부문은 지난 정권하에서 대다수 국민의 외면을 받았고 극히 소수에게만 대출 특혜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전면적인 변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자본금 확충과 은행 재건작업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 이후 연합국 임시행정처(CPA)는 사기업 친화적 금융부문 건설을 위해 중앙은행법을 제정해 통화정책을 담당할 독립적인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aq; CBI)을 설립했다. 2003년 9월 은행법을 제정해 민간은행의 최소 법정자본금을 100억 디나르로 규정하고 2003년 10월 28일 중앙은행을 통해 이라크 17개 민간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 결제, 송금, 외환 신용장 개설업무를 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2004년 1월 금융시장을 개방해 외국은행인 영국계 HSBC, Standard Chartered Bank, National Bank of Kuwait(NBK) 등이 지점 개설 면허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이들 은행들은 치안 상 이유로 영업 개시를 미루고 이 중 HSBC와 NBK가 이라크 은행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간접 진출을 하고 있다. 이후 레바논의 Byblos Bank가 2007년 아르빌 지점을 개설했으며, 인근 중동국의 Arab Bank(바레인), Turkish Agricultural Bank(터키), Bank Milli Iran(이란) 등이 바그다드에 지점을 개설, 영업하고 있다.

나. 금융 서비스

이라크에는 총 7개의 국영은행이 있고, 민간은행 역시 43개가 영업 중이다. 가장 커다란 은행은 국영은행인 Rafidain 은행과 Rasheed 은행으로 지점수 면에서 이라크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자산 규모도 가장 크다. 특히 Rafidain 은행은 자산면에서 전체 은행산업 자산의 60%

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민간은행으로는 자산규모 면에서 Baghdad 은행, International Basrah 은행, Iraq Commercial 은행 등이 있다. 그러나 자산면에서는 아직도 국영은행 자산(13조 1,000억 이라크 디나르)이 민간은행 자산(12.6이라크 디나르)을 상회하고 있는 등, 금융분야에서 국가의 지배력은 높은 편이다. 중동을 비롯 다수의 외국은행들이 이라크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은 곧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 내 주요 은행

국영은행	Rafidain(170), Rasheed(143), Cooperative Agricultural(42), Real Estate(21), Trade Bank of Iraq(15), Industrial(9), Al-Iraq(4),
민간은행	Baghdad(38), Investment Bank of Iraq(20), Iraq Commercial(10), Iraqi Middle East Bank for Investment(9), International Basrah(7) 등

주: 1) 은행명에서 Bank 생략, 2) 괄호 안은 2011년도 지점수(확인 가능 최신자료)
 자료원: Central Statistics Organization, Iraq

다. 과실송금

내국인 및 등록되지 않은 외국기업에 대해 과실송금에 대한 특별한 보호책이 없다.

외국계 지분 참여 민간은행 현황

이라크 은행명	참여 외국기업·기관	지분율
Commercial Bank	Al-Ahli United Bank of Bahrain	49%
Bank of Baghdad	United Gulf Bank of Bahrain	49%
National Bank of Iraq	Export and Finance Bank of Jordan	49%
Credit Bank of Iraq	National Bank of Kuwait	75%
Credit Bank of Iraq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	10%
Dar Al-Salaam Bank	HSBC	70%
Economy Bank	A'ayan Company of Kuwait	49%
Mansour Bank	National Bank of Qatar	60%

자료원: Central Bank of Iraq

15.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제도

2003년 10월 새로운 이라크 디나르 화폐를 발행해 대미 환율을 US\$ 1 = 2,050 IQD로 정했으며, 이후 이라크 디나르화는 지속 절상돼왔고, 2009년부터 이라크 중앙은행이 US\$ 1 = 1,170 IQD, 2014년은 US\$ 1 = 1,165 IQD라는 공식환율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달러화에 자국통화 가치를 고정시킨 고정환율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은 US\$ 1 = 1,200 IQD를 상회하고 있어 중앙은행 고시환율과 다소 괴리가 있다.

2003년 8월 말 이라크 중앙은행이 업무를 재개한 이래, 시중은행이 참가하는 외화 경매를 통해 대미 환율을 정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경우, 물가 억제책의 일환으로 이라크 디나르화의 평가 절상을 지속 추진해왔으나 2014년 ISIL 반군 사태 이후 이라크 경제활동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제적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라크 디나르화는 달러화 대비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달러화 등 외환거래는 완전히 자유화돼 이라크 내 외환 소지 및 거래, 송금, 입금이 자유화돼 있다. 달러화 환전도 시중 환전소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미 달러가 이라크 화폐 못지 않게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매장에서 달러로 지급 가능하다.

나. 현지 자금조달

이라크에서의 열악한 기업환경 및 투자환경으로 인해 현지 기업들 대부분이 중소기업 이상의 투자 사업 건에 대해 해외 자본에 의지하는 경향이 크고, 이라크 국내 금융산업 미발달로 인해 현지에서의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하다.

다. 현지 금융조달 방법(대출 등)

2013년 최근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이라크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이라크의 투자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엔지니어링, 구매 조달, 건설(EPC) 단계에서는 일부 현지 은행 또는 걸프만 지역 소재 중동국 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장을 사용하고 있다.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와 수출신용기관은 이라크 외교부와 함께 금융을 통한 인프라 프로젝트 장려를 위해 투자자 보호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열악한 금융 서비스 수준으로 인해 국내외 기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사업 방식은 극히 제한적이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일반인들의 은행 등에 대한 신뢰가 낮고, 개인은 물론 기업의 신용평가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의 길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개인 및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대출, 수출 신용기관, 국제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V. 비즈니스 참고정보

1. 물가정보

(US\$ 1 = 1,170 IQD / 2016년 6월 기준)

구분	항목	가격(ID)
식품류	쌀 1kg	2,500
	계란 12개	2,500
	쇠고기 등심 1kg	1만 5,000
	돼지고기 등심 1kg	n/a
	우유 500ml (skimmed)	2,000
	식용유 1L	2,000
	생수 1L	500
	맥주(하이네켄 355ml, 6팩)	1만 5,000
	담배 1갑(말보로 라이트)	3,000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n/a
	김치찌개 1인분	n/a
의료비	의료보험료(4인가족, 초과제외 Full Cover, 1년)	n/a
	병원진료비(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개인병원)	3만
	병원진료비(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n/a
차량관련	중형승용차(2,000cc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현대 소나타)	2,700만
	무연휘발유 1L	450~750
	자동차 등록비	300만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신차, 운전경력10년, 대인/대물커버, 1년)	n/a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5,000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n/a
	시내버스(mini bus) 기본요금	500
	택시 기본요금	탑승 전 흥정
통신	시내전화(휴대전화) 요금 (3분)	150
	국제전화(휴대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1,500
	시내전화 요금(월 표준 1분)	n/a
	인터넷 월사용료(1mb, IP 1개 기준)	5만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120만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중상급)	n/a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중상급)	n/a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중상급)	n/a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싱글)	30만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싱글)	5만
임금/노무	대졸 초임(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 급여)	100만
	생산직 초임(학력무관 월 급여 초임)	60만

매니저급 급여(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 급여)	200만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출산휴가일수	14일
연간 국경일수	15일
주5일 근무 여부	5일 근무

자료원: 바그다드 기준 무역관 자체 시장조사 자료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개요

이라크는 바트당 독재를 거치면서 세속주의적 통치를 겪었기 때문에, 인근 GCC 중동국가나 이란에 비해서 이슬람 색채가 약한 편이다. 때문에 주류를 즐기는 무슬림 남성,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들과 접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이슬람 문화의 저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그동안 억압받던 시아파 정치(종교) 지도자들이 전면 에 나서면서 사회전반적으로 시아파 이슬람 색채가 더욱 강해졌다.

나. 복장

남성

전반적으로 공공부문·민간부문에 있어서 서구식 양복, 비즈니스 캐주얼 등이 보편화돼 있으며, 상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슬람 전통복장(디쉬다쉬, 터번, 칸두라)을 걸친 비즈니스맨과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일반 거리에서는 전통 아랍 복장을 한 중년 남성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여성

전반적으로 세속적인 경향이 강한 가운데, 수니파 여성들은 히잡(Hijab)으로 머리 혹은 머리·어깨만을 가리고 다니고, 시아파 여성들은 검은색 차도르(Chaddor)를 두르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인근 사우디아라비아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되는 훨씬 더 제한적인 형태의 여성의류인 니캅과 부르카는 이라크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이와 같은 전통복장을 하지 않고 현대적 의상을 입고 다니는 직장 여성들도 많다. 또한 이라크에서는 기독교인들도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 여성들이 모두 무슬림인 것은 아니다.

다. 인사

약수는 아랍계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 약수를 청하고 나서 길이나 집을 묻기도 한다. 이 때의 약수는 질문을 하기 위한 단순한 예의 절차 정도로 볼 수 있다. 포옹은 보통 가까운 집안 식구나 친척, 친구 간에 하는 인사로 먼저 머리를 오른쪽부터 시작해 왼쪽으로 서로 어긋나게 하는 인사법이다. 이 포옹을 하고서 상대의 어깨에 얼굴을 대거나 서로 뺨을 맞추는 인사를 계속하기도 한다.

뺨을 맞추는 인사는 일반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간에 많이 사용하는 인사법이다. 이런 인사는 가족, 친지, 가까운 친구 사이에 하는데, 서로 오른쪽 뺨을 맞추거나 상대의 오른쪽 뺨에 입술을 대며 약한 소

리가 들리게 하고, 다음엔 왼쪽을 맞춘다. 이때 반가움의 표현으로 양쪽 볼에 2번 이상 뺨을 맞추며 인사를 하기도 한다. 또 장례식 같은 위로의 인사를 할 때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상을 당한 가족과 뺨을 맞추어 인사할 수 있다.

오른손을 들어 인사하는 법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손바닥을 상대방이 보도록 앞으로 하고, 보통 머리 높이까지 들어서 인사를 하는 방법이다. 이 때 손을 들어 인사하면서 입으로 인사말을 건넬 수도 있다. 이런 인사는 말을 타고 지나가거나, 앉아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데 이때 손을 좌우로 흔들 수도 있다.

라. 선물

이라크에서도 다른 이슬람 문화권과 같이 개인적 또는 업무적으로도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 관리들과 친분을 쌓는 데는 간단한 선물이 때때로 좋은 성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마. 약속

이라크 바이어들은 약속 시간 관념이 다소 불분명하다. 약속시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며, 약속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지거나 화를 낼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라크 전쟁 후 미군에 의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거나 전후 중고차 대량 반입으로 교통 정체가 많아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바. 식사

이라크인도 다른 이슬람 국가와 같이 손님 접대를 즐기며, 첫 대면인데도 점심이나 저녁을 초대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경우 바이어의 신원이 확실하다는 가정 하에 바이어의 호의를 가급적 거절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바이어의 집으로 초대받았을 때는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답례 형식의 초대를 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초대를 받거나 상대방의 사무실을 방문해 음료(차)가 제공되면 적어도 한잔 정도는 마시는 게 좋다. 왼손은 불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는 오른손만 사용해야 한다.

사. 문화적 금기사항

상대방에게 신발의 바닥이 보이도록 앉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악수를 권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무례한 것으로 간주된다. 북부 이라크의 쿠르드계는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와 쿠르드 국기를 사용하는 등 준 독립국가로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쿠르드계 바이어와 상담시 어설픈 아랍어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3. 이주정착 가이드

이라크는 2003년 전쟁 이후 매년 테러에 의한 사망자가 줄어드는 등 치안상황이 다소 개선되는 듯 했지만, 2014년부터 ISIL 사태 및 이로 인한 테러의 증가로 아직도 외국인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치안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테러세력의 공격을 미군 및 이라크 정부군이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외국인의 안전이 매우 위협받고 있어 외국인이 이라크에 이주해 정착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외국인들은 높은 몸값을 노리고 테러세력들이 납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라크의 치안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우리 기업인들이 이라크 여행을 할 수 없도록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해 이라크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이라크 입국을 위해서는 우리 외교부의 허가(제한적 여권사용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하며, 우리 외교부는 제한적 여권 사용허가 신청과정에서 현지경호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이주정착은 둘째치고 입국할 때부터 현지 경호업체와 신변 경호 계약을 맺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수도 바그다드에는 대사관, KOTRA, KOICA 등 3개 공공기관이 주재하고 있고, 2011년 초에 STX중공업, 한국가스공사, STX건설 등이 사무실을 개설해 소수의 인원을 주재원으로 파견 중이다. 비교적 치안이 안전한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지역에는 우리 정부의 허가를 얻은 기업 및 기관들의 주재원들이 2016년 12월 기준 1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활발한 진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국인의 이주정착을 이야기할 단계로 보기에는 치안사정이 불안한 편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이라크는 외국인인의 이민 또는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이 이라크에 사업, 취업 등의 목적으로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 6개월 내외의 근로허가 비자를 취득한 후 매년 갱신을 통해서 연장해야 한다.

4. 생활여건

가. 주거 여건

이라크 전력은 모든 가구의 98%가 공공전력망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가구의 78%는 파이프를 물 공급을 받고 있다. 또한 모든 가구의 37%는 하수도 처리 시설에 연결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기능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수준이다. 전력망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78%와 파이프를 연결돼 물을 공급받는 가구의 66%는 심각한 공급의 불안정성을 겪고 있다. 한 예로 쿠르디스탄의 경우 24시간 공공전력망을 통한 전력이 공급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 공공전력망을 통한 전력공급 시간은 평균적으로 하루 24시간 중 8시간 가량에 지나지 않으며, 이같은 전력 부족은 에어컨을 본격 가동하는 여름철에 더욱 심각하다.

때문에 다수의 가구에서는 소형발전기를 통해 자가발전을 하거나 지역민간업체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실정이다. 하계의 옥외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력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근로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므로, 바그다드 진출업체들의 경우 호텔 등에서 사무공간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자가발전기를 구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라크인들이 살고 있는 집 중 일부는 전쟁으로 황폐화돼

손실을 입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의 빈곤한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임시적인 불법점거형태 (squatter-type)의 집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대부분 가구는 자신들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외국인 비즈니스맨이나 근로자들은 임대를 통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나. 교육 여건

외교관이나 외국 비즈니스맨의 경우 단신부임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바그다드 내에서는 현재 외국 인학교가 없다. 대학의 경우, Webometrics ranking of world university에서는 University of Baghdad(2,356위), Babylon University(3,070위), University of Technology Iraq(3,874위) 등이 거론되고 있어 전체적인 교육경쟁력은 낮은 편이다. 이라크 본토와 달리 쿠르디스탄에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American University of Iraq, American University Duhok Kurdistan과 더불어 몇 개의 프랑스 계통의 외국대학들이 설립돼 있다.

다. 의료 여건

이라크 내 의료시설이 가장 밀집돼 있는 바그다드조차 시설 노후화, 의료전문인력 유출 등으로 인해 주변 중동국가에 비해 의료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라크 보건부에서는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병원망 확장을 추진해 왔으나, 전문적 의료인력 부족, 불안정한 치안상황, 사회주의적 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 보건부 등 관계당국의 관료주의 등으로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라크인들의 경우에도 병치료를 위해서 요르단, 터키나 쿠웨이트와 같은 주변국에 위치한 인근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라. 교통 및 통신여건

1) 교통

정확한 지명을 알고 있거나 아랍어로 돼 있는 메모가 있는 경우 택시 이용이 가능하나 택시 운전사와 납치세력 간의 연계가 돼있는 경우도 있어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노란 택시는 지붕 위에 택시라는 표시가 돼 있으며 정해진 요금체계나 미터기가 없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 승객과의 흥정을 통해 요금이 결정된다. 대체로 일정한 기본요금(2,500이라크 디나르 정도) km당 1,500이라크 디나르 정도의 요금이 부과되나, 교통혼잡 등으로 인한 정체 시 가산금이 붙는데 그 체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또한 택시 이용과 관련해 영수증을 발행하는 관행도 없다.

미니버스(주로 한국 베스타 승합차)가 바그다드 시내에 운행돼 구간별로 이용할 수 있으나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노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미니버스 또한 현지인들만 이용하고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다. 지상사의 경우 이라크에서 육상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중교통보다는 경호회사의 호송을 받고 다니는 것이 일상화돼 있으며, 향후 비즈니스 차 이라크를 입국하는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통신

유선전화

2006년에 전화 회선 수가 인구 100명당 평균 4회선으로 2001년 평균인 2.9회선에서 증가해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최근 휴대전화의 보급 확대로 유선전화는 더 이상 보급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사용자들도 오히려 유선전화를 해지하는 등으로 인해 지금은 거의 유선전화가 사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때문에 팩스 서비스도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인 도혹, 아르빌, 슬레이마니아 지역에도 유선전화가 개통돼 있으며 연결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국제전화 서비스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키르쿠크 지역도 지방 유선전화가 개통돼 바그다드까지 연결돼 있다. 이라크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0082-지역번호-전화번호를 차례로 누르면 되며 국제전화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이라크로 전화할 경우 001(2)-964-1(유선), 001(2)-964-79(휴대폰, 이라크의 경우)-전화번호를 차례로 누르면 된다.

휴대전화

2004년 1월 초부터 ORASCOM에 의해 휴대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Zain, Asia Cell, Korek Telecom 등 3개사가 2007년 8월부터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갖고 운영 중이다. 하단의 통신업체들의 경우 전화 연결이 자주 끊기는 등 통화 품질이 열악하며 바그다드 시내를 벗어나면 전화 송수신이 어려운 등 서비스 수준은 발전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나 해외 로밍, SMS, 음성사서함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5년부터는 3G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 Zain

쿠웨이트의 Zain Group이 30% 지분을 갖고 있는 이라크 내 최대 모바일 사업자이다. MTC Atheer란 브랜드로 2003년 10월 사업권을 획득한 후 2004년 8월부터 이라크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 오다가, 2007년 8월 이라크 정부의 15년 장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시 선정됐다. 이후, 입찰 과정에서 포기한 이집트 Orascom의 Iraqna를 인수함으로써 이라크 내 최대 업체가 됐다.

○ Asia Cell

공식명칭은 Asiacell Telecommunications Co., Ltd. 로 Zain에 이어 2번째 모바일 사업자인 Asia Cell은 이라크에서 가장 오래된 업체이다. 지난 1999년 쿠르드 슬레이마니아 지역에 국한된 서비스를 시작한 Asia Cell은 2003년 10월 MTC Atheer 및 Iraqna와 함께 이라크 모바일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쿠웨이트의 Wataniya Telecom사 주도 콘소시엄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Wataniya Telecom사는 카타르의 Q-Tel이 운영함). 비록 사업 시작은 이라크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했지만 2005년 1월부터 통신망 확충 투자를 시작해 2007년 8월에 전국적인 사업자로 재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 Korek Telecom

세 번째 모바일 사업자로 2000년 11월부터 쿠르드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07년 8월, 이라크 정부로부터 이라크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사업자로 선정됐다.

인터넷 사용환경

후세인 정권 하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정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됐으며, 극히 일부 이라크인들만 이용이 가능했다. 2002년에 이라크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2만 5,000명 수준으로 아주 낮았으나 2003년 이후 이라크 독자적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인 Uruklink가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어 몇몇 외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환경이 조성돼 인터넷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이라크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2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1%에 지나지 않으며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공식 통계자료에 의한 인터넷 이용률은 매우 낮지만, 실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는 공식통계자료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5년부터 통신사들이 3G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선인터넷을 위한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인터넷 보급이 확대됐기 때문에 유선보다는 무선 인터넷이 주로 이용되고 있고, 위성에 의한 인터넷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주요 인터넷 사업자는 Uruklink, ALJAZEERA TELECOM, Earthlink, ZAIN, Skynet 등이다.

인터넷 이용료는 IP 1개당 월 100~300달러 수준으로 매우 비싸지만 최근 다양한 경쟁업체의 등장으로 보다 저렴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 회사별 인터넷 요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가입을 위해서는 여러 인터넷 회사의 자료 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속도가 빠른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인터넷 속도는 대체로 매우 느린 편이지만, 최근에는 1메가바이트 이상의 인터넷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불편이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터넷이 안정적이고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지 않고, 속도 저하 및 인터넷 단절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규모 시위를 막기 위해, 또는전국 학생시험 부정행위 등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을 통한 화상통화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나, 음성통화는 오히려 통신사업자 서비스보다 나은 경우도 많다.

마. 여가 여건

외출 시 테러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되므로 외출관련 여가를 즐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테러 위협으로 인해 인파가 모이는 대형 상점 또는 식당가로의 접근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교통 정체가 심한 오전 8시경부터 9시 및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는 도로에서도 차량을 이용한 폭탄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실내 생활을 유지하기를 권고한다. 공원시설 또는 야외 레저시설 등이 개발돼 있지 않거나 하계의 극심한 기후 조건 등을 감안할 때 야외 활동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바. 기타 여건

이라크의 공식 통화는 디이라크 나르(Dinar)이며, 약어로는 통상 ID 또는 IQD(Iraqi Dinar)로 칭한다. 이라크는 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달러화 교환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Money Exchange 라고 쓰여 있는 시중 환전소에서 쉽게 은행 환율과 차이 없이 환전이 가능하다. 중앙은행에서 고시하는

환율은 달러 대비 1,170이라크 디나르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환율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5년 들어 시장 환율은 1달러당 1,200이라크 디나르를 상회하고 있다.

한편, 현지 상점이나 식당 등에서는 현지화뿐만 아니라 달러 표시 가격도 적혀있는 경우가 많고 달러화도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고액의 현지화를 교환할 필요는 없지만, 시중에서 물건 구입 시에는 가급적 디나르화로 환전해 지불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은 일부 특급호텔 등에 국한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급호텔에서도 시스템 상의 장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결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취항정보

가. 직항 및 3국경유

암만, 이스탄불, 두바이, 아부다비, 테헤란 또는 다마스쿠스 등에서 이라크 항공(Iraqi Airways), 요르단 항공(Royal Jordanian Air), 아랍에미리트 항공(Emirates Airlines), 터키항공(Turkish Airline) 등을 이용해 입국 가능하며, 외국인인 이라크 입국 비자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2016년부터는 이라크 저가항공사인 플라이 바그다드가 소규모모로나마 운항을 개시했다. 에티하드 항공이 2011년 3월부터 아부다비-바그다드 노선에 취항하고, 아랍에미리트 항공이 2011년 11월부터 두바이-바그다드 노선에 취항하는 등 최근에는 신규 항공사들의 취항이 늘어나는 추세로 그 동안 이라크항공의 독점적 운항체제에서 선택이 가능한 체제로 변하고 있다.

한국과의 교통

2011년 4월 기준, 한-이라크 직항편은 운행되지 않고 있으며 두바이, 아부다비, 이스탄불, 도하 등을 경유해 입국이 가능하다. 바그다드 국제공항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국제 항공편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바그다드-다마스쿠스, 바그다드-암만, 바그다드-두바이, 바그다드-아부다비, 바그다드-카이로, 바그다드-테헤란, 바그다드-이스탄불 등 중동 노선이 운행 중이다. 바그다드와 주요 유럽 도시간 취항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공항을 출발할 경우 두바이, 아부다비, 이스탄불, 도하 등을 경유해 이라크로 입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입국 방법이다.

나. 취항 항공사 리스트

이라크에 취항 중인 항공사 현황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 거점	이라크 서비스지역	수송 내용
Fly Dubai	두바이	바그다드, 아르빌	- 승객 전용 - 두바이 운행
Gulf Air	두바이	바그다드, 아르빌	- 승객 전용 - 바레인 경유

Turkish Airlines	이스탄불	바그다드, 아르빌	- 승객 전용
Royal Jordanian	암 만	바그다드, 아르빌	- 승객 전용
Etihad Airways	아부다비	바그다드, 아르빌	- 승객 전용
Iraqi Airways	바그다드	바그다드, 아르빌, 바스라	- 승객, 일부 화물 - 암만, 다마스쿠스, 두바이, 테헤란, 카이로 등 운행
Emirates Airlines	두바이	아르빌, 바그다드	- 승객 전용 - 두바이 운행
Qatar Airways	카타르	바그다드, 나자프, 바스라, 아르빌	- 승객전용
Middle East Airlines	베이루트	바그다드, 아르빌	- 승객전용

자료원: 이라크 교통부

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방법

바그다드 공항을 포함한 이라크 내 모든 공항 주변의 치안 상황이 극도로 열악하므로 테러, 납치, 종파 간 분쟁 등으로 인한 과격 단체의 폭동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경호업체를 활용, 공항에서부터 방탄 차량을 이용한 경호를 대동해야 한다. 렌트 차량을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6. 출입국 및 비자제도

가. 제한적 여권사용허가

이라크는 우리나라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가(2007년 8월 7일~2017년 1월 31일까지)로 입국을 위해서는 여권법 제17조에 의거해 우리나라 외교부로부터 제한적 여권사용허가(여행허가)를 득해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영주, 취재 및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에 한해 이라크 방문 및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만약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라크를 방문하고 그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나. 비자(사증)

외국인이 이라크에 입국해 장기간 활동 후 출국을 위해서는 입국용 사증, 체류용 사증 및 출국용 사증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 전 사증 발급이 완료돼야 하며, 다른 나라의 예에서와 같이 선입국 후 사증을 발급 받는 등의 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라크 외교부의 내부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증 발급 신청 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요건 등을 미리 꼼꼼히 챙겨서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입국용 사증의 만료기간은 통상 열흘 이내로, 열흘 이상 이라크 내에 체류를 위해서는 체류용 사증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라크의 경우 출국을 위해서는 출국용 사증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보건당국의 채혈

및 피검사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이 크다. 출국용 사증이 발급되기 전에 출국을 시도할 경우 최대 500 달러의 벌금을 지급한 후에 출국이 가능하다.

1) 입국방법

항공편 입국 시

국제공항은 바그다드, 바스라, 아르빌, 술레이마니아 등 4곳이고 키르쿠크와 모술에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공항이 있다. 최근 이라크 시아파의 성지인 나자프 국제공항도 개장했으나 주된 이용객은 성지순례를 위한 이란 관광객들이라 할 수 있다. 아르빌 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공항운영 전반에 걸쳐 자문을 받고 있다. 1946년에 창설한 국적 항공사 Iraqi Airways는 2003년 전쟁 직전까지 13년간 국제선 운항을 중단했다가 2004년 11월부터 요르단, 시리아 노선 운항을 재개했으며 점차 운행 노선을 늘려서 2007년 6월 기준 추가로 두바이, 테헤란, 카이로 등 국제 노선과 바스라, 아르빌 등 국내 노선을 운행 중이고 유럽 주요 도시로의 운항도 검토 중이다. 이라크 정부는 노후화된 항공기를 교체하기 위해 미 보잉사와 신형 비행기 구입 및 임차계약을 2008년 초 체결해 항공사 정비에 힘쓰고 있다.

육로 입국 시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으며 현지인들만 육로를 이용하고 있다. 육로를 통한 입국 루트는 북부의 경우 터키 이브라힘 알 칼릴(Ibrahim al-halil), 중부지역에서는 사우디 아르-아르(Ar-Ar), 요르단 트리빌(Tribil), 시리아 등, 남부에서는 쿠웨이트 사프완(Safwan) 등이 있으나 치안 관계로 육로입국 및 이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 서부 고속도로(암만, 다마스쿠스 기점)가 주된 출입국 루트로 활용된 바 있으나 2014년 ISIL이 본격 발흥하면서 동 도로는 거의 폐쇄된 상태다.

항구를 통한 입국

이라크 내 국제 항구는 움카스르 및 바스라 두 곳으로서 '두바이-움카스르' 구간에 고속 페리선이 운행 중이나 '바스라-바그다드' 육로구간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용을 삼가야 한다.

2) 사증발급 및 체류절차

한국인의 이라크 입국은 신변 안전을 이유로 2004년 이후 엄격히 제한돼 왔다. 그러다가 2006년 8월 이후부터 암만 주재 진출기업 중 이라크 담당 지상사들은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 한해 외교부 경유 NSC 승인을 얻어 단기 방문을 제한적으로 허용받았다. 하지만 2007년 아프가니스탄 납치사건을 계기로 이라크에 대한 한국인의 입국이 통제돼 왔다. 이후 2014년 ISIL 사태 발발로 인해 2015년 6월 기준 시점까지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입국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는 이라크의 치안사정 변화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라크인의 한국 입국 비자는 2008년 말까지는 불법체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의 허가를 얻어야만 발급됐으나 2009년 들어 법무부 승인 없이 주 이라크 한국 대사관이 직접 발급하고 있으며 소요기간은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다.

3) 기업투자(D-8) 사증

대상

이라크 내에서 기업활동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외교부 안전여행 관리부처에서 신변 안전 확보(경호 및 거처 안전 등) 및 사업 내용에 대해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여행 금지국가를 대상으로 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서를 발급 받게 된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서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해 기업 활동 목적의 사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발급 신청방법 및 절차

이라크는 외교부에서 지정한 여행금지국가에 속하므로 이라크 사증 발급 시 반드시 외교부 산하 안전 여행 관리부처로부터 여행금지국가에 대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 목적, 사업 절차, 기업 정보 및 신변 안전을 위한 경호 업체 고용 사실확인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방안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외교부 해당 부처에 제출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허가서 발급까지는 대략 일주일 가량이 소요된다. 외교부에서 발급 받은 예외적 여권사용허가서와 함께 사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한 이라크 대사관 제출용 신청서 및 혈액 검사 증명서(간염 및 에이즈) 및 외교부에 허가서 발급을 위해 제출하는 사업 내용 및 기업 소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면 제출이 완료된 후 일주일 후 사증 발급이 완료된다.

최초 허가 시

- 소관부처에 기업 진출 신청 및 여권사용 허가 신청(신청자)
- 안전대책 검토(국정원)
- 허가여부 심의(외교부 여권정책심의위원회)
- 신청자에게 심의결과 통보(외교부)
- 필요 시 안전교육(국정원)
- 여권사용 허가서 교부(외교부)

동일 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 시

- 외교부에 여권사용 허가 신청(신청자)
- 허가여부 심의(외교부 여권 정책심의위)
- 심의 결과 통보(외교부)
- 안전교육(국정원)
- 여권사용 허가서 교부(외교부)

처리기한

- 최초 허가 시: 4~7일
- 재허가 시: 1~3일

유형별 자체 안전대책(장기체류)

- 무장 경호원 확보
- 이라크 출장기간 동안 전 일정을 무장 경호원이 동행
- 이동 시 안전대책
- 경호운송수단 확보하고 정부에 신고된 지역으로만 이동
- 경호원 동행 등 이동 시 안전수칙 수립
- 숙소, 사무실, 공사현장 안전대책
- 숙소, 사무실, 공사현장의 안전지역 위치
- 거주 및 체류 지역 외곽 방어벽 설치 및 경비초소 운용
- 거주 및 체류 지역 출입통제 관리(출입자·차량 신원 확인 및 검문)
- 안전대책 최소기준
- 총 경호 인력 수: 36명(현지경찰 25명, 자체고용 경호원 11명)
- 자체고용 현지 경호원: 11명(팀장 1명, 팀원 10명)

유형별 자체 안전대책(단기체류)

- 무장 경호원 확보
- 이라크 출장기간 동안 전 일정을 무장 경호원이 동행
- 이동 시 안전대책
- 경호 운송수단을 확보하고 정부에 신고된 지역으로만 이동
- 숙소 안전 대책
- 안전이 확인된 호텔 등을 숙소로 활용
- 비상연락망 구축
- 현지 공관과 비상연락망 구축 및 일일 체류현황 보고
- 진출기업 본사와 정부 간 비상연락망 구축 계획
- 현지 정부 및 치안기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 본사 및 직원 간 비상연락망 구성

소관기관의 사업타당성 등 검토를 위한 제출자료

- 여행금지지역 기업 진출 신청서 및 서약서: 대표자 1인이 작성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현지 정부 및 관련 기업의 초청장 및 안전보장 각서

외교부의 허가여부 심의를 위한 제출자료

- 여권 사용 등 허가신청서 및 서약서: 방문인원 전원 작성
- 활동계획서: 안전대책, 총 여행 인원 정보 포함
- 재직증명서, 여권사본

4) 동반(D-3) 사증

이라크에서는 당 항목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현 시국상 가족 동반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다. 체류

개요

이라크 내에서는 체류를 목적으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6개월 단수비자 기간 만료 후에는 이라크 외로 출국해 주한 이라크 대사관 혹은 타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 취득 후 재입국해야 체류가 허가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체류 연장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

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지 변경신고

이라크에서는 당 항목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

외국인 등록·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라크에서는 당 항목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

체류기간 연장

이라크에서는 당 항목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대응이 미비하거나 관련 상세 규정이 없다. 특히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 대부분의 이라크 진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체류 연장에 관한 실질적 방안이 없어 인근 타국으로 출국 후 재입국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재입국 허가

이라크에서는 당 항목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대응이 미비하거나 관련 상세 규정이 없다. 또한 재입국을 위해서는 혈액검사서나 기타 관련 규정 서류들을 매번 제출해야 하고 입출국 수속 기간이 인근 중동국에 비해 긴 편이다.

체류지 변경신고

이라크에서는 당 항목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라크에서는 당 항목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

자격 외 활동허가

이라크에서는 당 항목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대응이 미비하거나 관련 상세 규정이 없다.

근무처의 변경 및 추가신고

이라크에서는 당 항목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대응이 미비하거나 관련 상세 규정이 없다.

7. 관광, 호텔, 식당, 통역

가. 추천 관광명소 안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이라크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으나 이라크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광목적의 방문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바그다드

이라크 박물관(Iraq Museum)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체계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이며 선사시대, 수메르 도시 국가 시대, 악카드, 고대 바빌로니아, 앗시리아, 사산조, 압바스조 등의 유물이 시대별로 잘 분류돼 있었고 우르(Ur)에서 출토된 장신구나 다른 유물들도 소장돼 있었으나 2003년 전쟁 시 대부분 약탈되고, 훼손돼 이전의 모습을 찾지 못했다.

칸마르잔(Khan-Marjan)

14세기에 건립된 바그다드 건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건물 중 하나이다. 과거 대상들의 숙소로 사용됐으며 1935년 복구돼 한때 박물관으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최근 외국인용 관광 레스토랑으로 개방 중이다.

2) 바그다드 교외

바빌론(Babylon)

Baghdad 남쪽 90km 지점에 있으며,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의 수도로 약 4,000년 전에 흙, 벽돌로 축성됐다. 발굴 시에는 성벽의 하단부 등 일부만 남아있었으나 1980년대에 성벽을 복원했다.

사마라 달팽이탑

사마라는 바그다드 북쪽 120km에 위치하고 있는 이라크의 주요 성지 중 하나로, 달팽이탑은 9세기 압바스 왕조 당시 조성된 모스크의 미나렛으로 높이 50m의 나선 계단으로 이루어진 명물이다.

나. 호텔 소개

치안사정으로 인해 바그다드에 투숙할 만한 호텔은 이쉬타르 셰라톤(Ishtar Sheraton Hotel), 바빌론 호텔(Babylon Hotel), 만수르 호텔(Hotel Mansour)과 그린존 내에 위치한 라시드 호텔(Rasheed Hotel) 정도에 불과하다. 거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데다, 호텔 운영에서 경비 관련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가격이 국제적인 평균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2015년 상반기 중 이쉬타르 셰라톤과 바빌론 호텔에서는 나이트클럽 왕래객을 노린 폭탄 테러가 발생한 바 있다.

Cristal Grand Ishtar Hotel(구 쉐라톤 호텔)

- 전화: +964 770 677 0711
- 이메일: sales@ishtarhotel-bgw.com
- 숙박요금
- 일반실(King Room, Twin Room) 250달러(1인), 320달러(2인)
- Junior Suit: 380달러(1인), 440달러(2인)
- Superior Room: 320달러(1인), 380달러(2인)
- 지불방법: 현금 또는 신용카드(신용카드는 장애 빈발, 현금 지불 권장)

Royal Tulip Al Rasheed Hotel

- 그린존 내 위치
- 전화: +964 770 013 3370
- 이메일: gm@royaltulipalrasheed.com
- 요금: 싱글 300달러, 트윈 400달러 수준(조식 포함, 결제는 현금만 가능)

Babylon Warwick Hotel

- Al Jaderiyah 지역. 총 객실 수 300개
- 전화: +964-+964 750 522 3333
- 이메일: info.babylon@warwickhotels.com
- 무역관과 대사관 소재 지역에 위치

치안이 비교적 안전한 아르빌에는 아래 호텔이 이용할 만하다.

Erbil International Hotel

- 전화: +964 66 2234460
- 이메일: reservation@erbilinhotel.com
- 웹사이트: www.erbilinhotel.com
- 요금: 싱글 250달러, 트윈 300달러 수준

Khanzad Hotel & Resort

- 전화: +964 66 2245273
- 이메일: info@khanzadresort.com
- 웹사이트: www.khanzadresort.com
- 요금: 싱글 250달러, 트윈 300달러 수준

경호업체가 숙박업을 겸하는 곳이 있으며, 이용이 가능한 주요 업체는 아래와 같다.

Harlow International

- 전화: 964-790-509-0141
- 이메일: mhaimour@harlowinternational.com
- 경호업체 및 숙박업소를 운영

다. 주요 식당 소개

바그다드에는 한국식당이나 일식당이 전무하다. 이라크 치안 상황 악화로 외국인이 안전지대 밖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며, 실제 현지인들만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다만, 현지 바이어와 업무협의 차원에서는 경비 수준이 높은 상급 호텔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라크 현지 음식은 짠 편이어서 비교적 한국사람 입맛에 적합하지만, 장기 출장 시에는 볶음 고추장이나 고추장, 된장, 김치 등을 휴대하면 투숙 호텔에서도 직접 요리를 해먹을 수 있다. 일반 호텔에서는 보통 가스 오븐, 냄비 등을 갖추고 있어 3~4인용의 작은 전기밥솥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라크 전통 음식으로는 케밥(양고기), 잉어 구이(마쓰코프), 닭고기(디자지) 요리가 유명한데 닭고기는 보통 길거리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1마리에 약 10달러이다.

라. 통역 정보

관광지역에서 여행사가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통역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없다. 기관에 따라 영어와 아랍어 사이 통역 가능 현지인을 수배할 수는 있지만 해외 방문객을 위해 통역만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어 아랍어 간 통역 서비스는 주이라크 한국대사관 또는 외교부 문의 시 전화연결을 통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8. 출장시 유의 및 참고사항

가. 시내교통편, 대중교통 및 택시 렌트

이라크 내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한 일반 택시 및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라크 현지인들도 테러 안전문제를 우려해 신분 노출을 꺼리는 환경에서 외모의 차이로 인한 확연한 신분 노출은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 각국 대사관 및 주요 정부부처가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 지역인 Green Zone과 같은 안전지대를 제외하고는 장단거리 구분 없이 방탄차량을 이용한 경호를 대동해야 한다.

나. 여행경보 단계 경보 등 주의사항

자살 폭탄 테러, 외국인에 대한 납치·살해 및 테러가 지속되고 있어, 2004년 6월 김선일 납치 피살 사건 이후부터 한국인의 이라크 지역 입국이 금지됐다. 2006년 8월 이후부터 암만 주재 이라크 담당기업 지상사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 한해 외교부 경유 NSC 승인을 득해 단기 방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으며, 2007년 2월 이후부터는 여권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해 일정기간 내의 복수 입국 허용 및 동일 사안 추가 입국 허용 등을 진출 허용 시 명시해 기업진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여행 금지 조치가 제한적으로 완화됐지만 이라크의 치안 상황이 일거에 좋아질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 없이 바그다드 시내를 물론 위험한 시 외곽 지역으로의 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07년 8월 이후 이라크 입국 제한을 더욱 강화해 입국 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후 계속 연장돼 2016년 현재 시점까지 제한되고 있다. 2014년 6월 ISIL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정부에서도 이라크에서의 신변안전대책의 유무 여부를 여행허가의 요건으로 설정한 상황이기 때문에우리기업 입장로서는 방문이 더 까다로워졌다고 할 수 있다.

이라크 여행을 위한 여권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라크 체류 시 이용할 경호업체와 숙박업 체명을 신청서에 명시해야 하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여권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 같은 대책(경호원, 방탄차 등)을 세웠을 때에는 출장비가 하루 3,000달러 이상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출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북부 쿠르드 지역은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몇몇 우리 기업들이 건설 부문, 유전개발 프로젝트 등에 진출해 주재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매일 여러 건의 테러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중이 모이는 공공장소 출입은 절대 삼가야 할 것이며, 테러 다발 지역인 바그다드 내 사드르시티, 카라다 지역, 안바르주 라마디-팔루자를 간 고속도로를 비롯 ISIL 장악 지역 등지에 대한 방문은 절대 삼가야 한다.

다. 위험지역

바그다드를 비롯한 이라크 주요 도시는 대부분 위험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상대적으로 ISIL 반군의 위협이 덜한 바스라 등 남부 지역에서는 최근의 경제침체, 중앙정부 치안부재 등으로 인해 납치 등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회사를 대동하지 않은 불필요한 외출은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역시 테러의 타깃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 또한 ISIL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이라크 북서부 안바르주, 키르쿱주, 살라후딘주 및 니네베주로의 출장은 현지의 초청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라. 팁 제도 등

이라크 내에는 호텔과 같이 일반적으로 팁 문화가 정착된 상업 형태에서도 팁 제도가 따로 없다. 따라서 팁을 지불하는 것에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 익숙하지 않으며 정가 지불만을 원칙으로 한다.

9. 유관기관 웹사이트

가. 정부단체 및 기관

상공회의소(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in the Iraq)

- Baghdad: www.baghdadchamber.com
- Erbil: www.erbilchamber.org

이라크 정부(Ministries in the Iraq)

- 전력부: www.moelc.gov.iq/default_en.aspx
- 무역부: www.motiraq.org
- 산업광물부: www.industry.gov.iq
- 석유부: www.oil.gov.iq
- 통신부: www.iraqimoc.net
- 기획부: www.mop-iraq.org/mopdc
- 주택건설부: www.moch.gov.iq/eindex.htm
- 수자원부: www.mowr.gov.iq/english
- 교육부: www.moheiraq.org
- 농업부: www.moagr.com
- 외무부: www.mofa.gov.iq/index.aspx
- 교통부: www.motrans.gov.iq
- 바그다드 시청: www.mayoralty-baghdad.com

나. 언론단체

이라크에서는 치안 상황으로 인해 기자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의 언론 통제로 인해 제한된 기사만을 접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현지 신문이나 언론에서 발표된 기사나 보도 내용은 양질의 정보일 경우 영문 웹사이트에 그대로 번역돼 게재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다음은 영문 기사를 제공하는 이라크 내 주요 언론 웹사이트 주소다.

- www.iraqinews.com/baghdad-politics/
- www.iraqdirectory.com/
- www.iraq-businessnews.com
- www.ninanews.com/English/index.asp
- www.alliraqnews.com/en/
- www.theiqdteamconnection.com/iraq-news.html
- www.alsumaria.tv/news
- www.iraqtradelinknews.com/

다. 한국기관 및 한인단체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주 이라크 한국 대사관	964-7901259756 964-7902868799	Mahala 915, Street 11, House No. 11 Babilon Street, Al-Jadriya District, Baghdad, Iraq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964-78-0958-1034	Hay Babil, Al-Jadriya District, Mahala 915, Street 5, House No. 32, Baghdad, Iraq
KOICA 바그다드 사무소	964-7703961979	Hay Babil, Al-Jadriya District, Mahala 915, Street 5, House No. 24, Baghdad, Iraq

라. 비즈니스 관련 현지기관 등

- Iraqi Businessmen Association
 - 전화: 0096417760466, 0096417760465
 - 이메일: aiba.2001@yahoo.com, ibaa.2001@gmail.com, info@ibairaq.com
 - 웹사이트: www.ibairaq.com

- Iraqi Federation of Industries
 - 전화: 00964 (0) 790191486
 - 이메일: fed_ind_iraq@yahoo.com
 - 웹사이트: <http://www.fedindust.org/English/index.php>

- 상공회의소(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in the Iraq)
 - 웹사이트: www.baghdadchamber.com(바그다드), www.erbilchamber.com(아르빌)

10. KOTRA 무역관 안내

가. 무역관 개설에서 현재까지

바그다드 무역관은 지난 1992년 이라크 진출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해외프리미엄서비스(OPS), 지사화 및 각종 민원사항 등을 해결하며 사업을 지원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된 이라크 내에서의 사업을 희망하는 한국업체에게 시장정보, 재건프로젝트 및 필수 비즈니스 정보 등을 제공해 직·간접적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이라크 내 사업 진행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본 무역관에서는 현지인을 통한 현지 업체 방문 및 마케팅 및 정부 주도 재건 프로젝트 정보 발굴을 위해 정부인사와 접촉, 현지의 생생한 사업 정보를 공급하고 한국 업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위치 및 연락처

- 주소: International Zone, Al-Kindi Area, District 215, House No 12, Baghdad, Iraq
- * 사서함 주소: POBOX 2615, Jadriya, Baghdad, Iraq
- 전화: +964 78 0958 1034, +964 772 224 4629
- 이메일: kotrairaq@hotmail.com(공용메일), iraqjisa@hotmail.com(지사화 사업)

다. 인원 현황

- 김성재
 - 직위: 관장
 - 업무: 바그다드 무역관 업무 총괄

- Sama Adnan Suleiman
 - 직위: 현지 직원
 - 업무: 마케팅, 조사, 총무

- Sarmad Alshami
 - 직위: 현지 직원
 - 업무: 지사화 전담 및 마케팅

- Mr. Jamal Al Abady
 - 직위: 현지 직원
 - 업무: 마케팅, 프로젝트 개발

라. 사업 안내

바이어 업무

바이어 방한 구매단 구성 및 파견, 자동차 부품 전문전, 기계전, 전자전 등 국내 유력 전시회와 연계해 이라크 바이어 구매단을 구성, 파견하는 서비스

해외시장 조사대행

국내업체로부터 바이어 발굴 및 이라크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 조사를 의뢰 받아 현지 관련 품목의 시장정보 제공 서비스

지사화 사업

지사운영이 어려운 국내중소기업이 무역관을 지사화해 지원을 받는 서비스

해외 세일즈 출장 지원

ISIL 사태 이후 이라크 신규 사업에 대한 입국비자 발급 제한

시장개척단 지원

국내기업이 구매단을 구성해 이라크에서 상담을 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입국비자 발급 중단으로 인해 보류 중인 상태

시장정보 조사

이라크 시장동향, 플랜트,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 등 비즈니스 정보를 입수해 KOTRA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서비스



KOTRA 국가정보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4유형의 개별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유형별 항목 설명



출처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본 저작물은 KOTRA에서 00년 작성해 공공누리 제 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 000)를 이용했으며, 해당 저작물은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업적 이용 금지

비영리적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동 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해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동 저작물의 변경이 금지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집·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